

발 간 등 록 번 호

총 목 - 2013 - 9



#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과제명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최지연
책임담당관	충북교육청 교원지원과 주무관 김기훈

이 연구는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연구과제명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교원대	교수	최지연
공동연구원	경인교대	교수	송현순
공동연구원	한국교원대	교수	권동택
공동연구원	동덕여대	교수	조용선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7
3. 연구 방법 .....	8
4. 연구 절차 .....	10
<b>II. 학생 이해의 개념과 관련 요소</b> .....	13
1. 학생 이해의 개념과 의의 .....	13
2. 학생 이해 관련 요소 .....	22
3.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 .....	41
4. 학생 이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 .....	49
<b>III. 교사의 학생 이해 실태</b> .....	55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	55
2. 조사 도구 .....	55
3. 자료 분석 방법 .....	56
4. 분석 결과 .....	56
5. 논의 및 시사점 .....	73
<b>IV. 학생 이해에 관한 교사·학생 심층 면담</b> .....	79
1.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	79
2.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	114
<b>V.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안</b> .....	135
1. 방향 .....	135
2. 설계 .....	138
3. 연수 프로그램 .....	143
<b>VI. 결론 및 제언</b> .....	207
1. 요약 및 결론 .....	207
2. 제언 .....	210
<b>참고문헌</b> .....	212
<b>[부록 1]</b> .....	215
<b>[부록 2]</b> .....	219
<b>[부록 3]</b> .....	221

# 표 목 차

<표 I-1> 신규교사 자격 기준(안) .....	6
<표 II-1> 초등학교 교사 문화의 특성 .....	29
<표 II-2>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성 .....	32
<표 II-3> 계층별 학교문화의 특성 .....	39
<표 II-4> 학생이해교육 요소 범주 .....	41
<표 II-5>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의 연구 방법 .....	42
<표 II-6> 연수 기관별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수 .....	42
<표 II-7>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학점(시간)과 내용 .....	43
<표 II-8>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명의 핵심 낱말 .....	45
<표 II-9> 연수 과정의 내용 범주 빈도 .....	46
<표 II-10> 연수 과정의 학점 빈도 .....	47
<표 II-11> 학교생활기록부 I의 진로희망사항 .....	51
<표 II-12> 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51
<표 III-1> 문항의 범주와 수 .....	56
<표 II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7
<표 III-3> 자녀 유무와 친밀도 .....	58
<표 III-4> 학생 이해 정도 .....	58
<표 III-5>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 .....	59
<표 III-6> 수업을 제외한 학생과의 대화 시간 .....	60
<표 III-7> 하루 평균 대화 학생 수 .....	61
<표 III-8>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육(연수) 경험 .....	61
<표 III-9> 학생 이해와 관련한 정보원(복수 응답) .....	62
<표 III-10> 학생을 이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 .....	62
<표 III-11> 학생 이해가 어려운 원인 .....	63
<표 III-12> 학생 이해를 방해하는 교사 관련 요인(복수 응답) .....	63
<표 III-13>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의 요인(속성) .....	64
<표 III-14>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	65
<표 III-15> 중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	65
<표 III-16>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	66
<표 III-17> 학생 이해에 저해가 되는 학교 문화(복수 응답) .....	66
<표 III-18>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복수 응답) .....	67
<표 III-19>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복수 응답) .....	68
<표 III-20>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	69
<표 III-21>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초등) .....	69
<표 III-22>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초등) .....	70
<표 III-23>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초등) .....	71
<표 III-24>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중등) .....	71
<표 III-25>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중등) .....	72
<표 III-26>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중등) .....	73
<표 IV-1> 교사 대상 심층 면담지 .....	80
<표 IV-2>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	81
<표 IV-3> 면담 참여자 정보 .....	82
<표 IV-4> 면담 참여자 정보 .....	87
<표 IV-5> 면담 참여자 정보 .....	91

<표 IV-6> 면담 참여자 정보 .....	94
<표 IV-7> 면담 참여자 정보 .....	96
<표 IV-8> 면담 참여자 정보 .....	101
<표 IV-9> 면담 참여자 정보 .....	104
<표 IV-10>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	108
<표 IV-11> 학생 대상 심층 면담지 .....	114
<표 IV-12>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	115
<표 V-1>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차시 구성 .....	147
<표 V-2>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	150
<표 V-3>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	152
<표 V-4>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	154
<표 V-5>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	158
<표 V-6>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	162
<표 V-7>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	165
<표 V-8>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 .....	171
<표 V-9>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 .....	173
<표 V-10>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 .....	175
<표 V-11>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 .....	178
<표 V-12>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 .....	183
<표 V-13>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 .....	187
<표 V-14>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 .....	189
<표 V-15>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 .....	193
<표 V-16>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	198
<표 V-17>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	200
<표 V-18>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	202

# 그림 목 차

[그림 I-1]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절차 .....	10
[그림 II-1] 교사와 학생 간 순차적 이해관계 .....	17
[그림 II-2] 교사와 학생 간 상호동시적 이해관계 .....	18
[그림 II-3] 대인간 관계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	21
[그림 II-4]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들 .....	23
[그림 II-5] 브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모델 .....	24
[그림 II-6]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 .....	26
[그림 II-7]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 내용 범주 비율 .....	46
[그림 II-8]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의 학점 비율 .....	47
[그림 V-1] 학생 이해의 패러다임의 변화 .....	137
[그림 V-2] 교사의 학생 이해의 접근 모형 .....	138
[그림 V-3] 학교급별 맥락 하에서의 학생 이해 모형 .....	139
[그림 V-4]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기본 모형 .....	140
[그림 V-5]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응용 모형 .....	141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절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해와 인정, 관심을 받으면서 불안한 존재인 인간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게 된다. 매슬로우(Maslow, A. H.)는 이를 소속과 애정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로 표현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해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성장이 모두 끝난 독립적 개체로 여겨지는 성인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 역시 이해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하다.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은 친구와 가족, 학교, 사회에서 이해 받으며 안정을 찾게 되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청소년은 학교라는 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된다. 오늘날의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문제는 결국 이러한 청소년의 욕구의 표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닌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교사와 학교로부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또래들 속으로 들어가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 이해해주지 않는 교사와 어른들은 피하려 하고 이해해주는 친구만 찾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전문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성립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떠나고 싶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1)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학생은 40.3%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41.8%), 재미없는 학교생활(22.1%) 등이 그 이유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에만 연연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업성적에 관한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재미없는 학교생활이 그 다음 이유라는 사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왜 학교생활이 재미없다고 느낄까?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에 따르면 전국 139만 명의 학생 응답자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 비율은 2010년(30.8%), 2011(31.4%)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따돌림, 뺑서툼,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등의 학교 폭력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추억과 우정을 쌓기에는 너무 살벌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학생들이 고민 상담을 가장 먼저 상의하는 대상에서 학교선생님은 2.8%로 친구(43.1%), 부모님(30.1%), 혼자고민(18.2%), 형제·자매(4.2%)에 이어서 꼴찌를 차지했다(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의 본질이 교육을 전제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은 어른인 교사를 통해 배워가는 대상이라고 할 때 학생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른, 곧 교사와 고민을 나누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학교 교육은 학생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가출, 일탈, 성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학교에서 벗어나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CCTV 설치, 인성 주간 편성, 캠페인, 체육 시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에는 4개의 직접 대책(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과 3개의 근본 대책(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

책)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정책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제 간 소통단절, 떠나고 싶은 학교, 청소년 문제의 대두 등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교육자의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절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호자이며 부모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 단절되고 고립된 또래들의 문화만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왜곡된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교육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은 이러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감정, 판단,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교감과 상호작용이라 할 때 오늘날 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의 전제가 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대부분이 모범생이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큰 문제없이 정상적인 학생 시절을 지냈다. 하지만 교사들이 만나고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 중 모범생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일부일 뿐이며 오히려 각자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개인적 경험만으로 교사들은 결코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교사들을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 교사들의 성장배경과 교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가치관, 사고방식 등에 따라서 같은 학생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라는 고등학교 학생을 놓고 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가'라는 학생은 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평소에는 조용하게 지내지만 좋아하는 역사 과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한다. 이런 학생을 보고 역사 선생님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수학 선생님은 조용히 지내는 학생을 보고 아주 평범한 학생으로 생각한다. 국어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졸고 있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으로 생각한다. 원로 교사인 윤리 선생님은 비슷하게 생긴 과거의 문제 학생의 경험에서 '가'라는 학생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경력 2년차인 물리 선생님은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가'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비록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상황이지만 이처럼 같은 학생을 두고도 교사들은 각자 다양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을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경력교사와 신규 교사 등에 따라서도 학생을 이해하는 방법과 접근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직생활 경력이 20년이 된 교사와 초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경험의 양과 질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경력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은 직접 경험과 동료교사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 연수 경험, 자녀의 양육 경험 등은 신규교사가 경험한 2~3개월의 실습기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라도 경력교사와 신규교사가 학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동료와의 대화이다. 교실에서 학생과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동료교사나 선배교사들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게 된다. 둘째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직접 느끼고 생각한 것이나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에 비추어 현재 상황을 짐작하게 된다. 셋째는 도서나 웹, 방송매체를 통해서이다. 학생의 심리나 교실에서의 갈등상황을 다룬 도서,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 웹 블로그, 기사 등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넷째는 연수 참여이다. 현재 교사가 겪고 있는 고민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앞의 세 가지의 형태는 개인차가 크고 개인적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이해에 대한 현장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개설하여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원천은 교원양

성과정에서 공부한 발달심리학적 지식이나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이라 할 때 이러한 한정된 경험과 지식으로는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성향과 사고,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 대상의 교육은 현직에서 연수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과 함께 현직교원 재교육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원(2011)은 모든 교원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역량으로 ‘학생 이해’와 ‘교과 수업 및 평가 이해’라는 두 역량을 도출하였다. 교과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주된 직무인 수업과 관련하여 중요시 여겨지는 역량이다. 학생 이해 역량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라는 양 측면에 모두 필요한 역량으로 수업에 관한 내용 못지않게 교사의 전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표 I-1>은 교원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기준으로 고전(2006)에서 제시한 신규교사 자격기준(안)이다. 여기에서 학습자 이해는 교직인성, 교과지식, 수업 및 평가 능력, 학생지도 및 학급관리 능력, 미래사회 대처능력과 함께 중요한 대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학습자의 인지·정의·신체적 전 측면과 학생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 1-1> 신규교사 자격 기준(안)

영역	자질과 능력
교직인성	교직에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 자긍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인간사랑 정신
교과지식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의 심층적 이해력 교과와 인접교과, 생활경험과의 관련성 이해력 담당교과 및 관련교과의 국가교육과정 내용 이해력
학습자 이해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과정 이해력 학습과정과 학습 촉진 조건의 이해력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성 이해력
수업 및 평가 능력	효율적인 수업의 설계·운영 능력 교과지식의 학습자 수준에 맞는 변환 능력 학생들과 풍부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 적절한 평가방법·도구의 선택·개발·활용 능력 평가결과를 기록·분석하여 학생 성장과 수업 개선에 활용하는 능력
학생지도 및 학급관리 능력	학생 문화 이해력과, 효과적인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노력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급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능력 건강한 학급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적인 학급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미래사회 대처능력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과 현장연구 수행 능력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출처: 고전(2006). 2005년 교원 양성 정책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2(1), p.178.

하지만 기존의 교원양성과정과 현직연수에서 학생이해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발달심리, 학습심리, 특수아동의 이해, 학습부진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은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일반론적인 내용이므로 개성이 다양한 모든 학생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처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맥락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과 소통 능력, 소양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적이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교원의 학생 이해에 대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학생 이해와 관련된 다방면의 접근을 통해 교사의 학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 이해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고 교사와 학생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 고찰

- 교사와 학생의 이해와 관계
- 학생 이해와 관련된 요소
- 학생 이해와 관련한 기존 연수

### 나.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 이해

- 교사의 학생 이해 실태 조사(설문)
-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심층면담)
-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심층면담)

### 다.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연수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및 설계
- 연수 프로그램 구안

###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가. 양적 연구

##### ○ 연수 현황 분석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수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에 터하여 시도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연수원과 사설(원격)교육연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이해 연수 프로그램의 개요와 과정 목차를 분석하였다.

##### ○ 설문조사

교사들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이해의 현황, 학생과의 소통,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 생각과 경험 등에 대해 질문을 구안하였다.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된 설문 문항을 최종 확정하고 전국의 초중등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질적 연구

##### ○ 심층 면담

교사·학생 관계의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하고 학생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전·현직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면담은 학생지도 경력이 많은 교사와 신규 교사, 부적응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을 들어보았다. 학생 면담은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여 학생들이 생각하

는 이해 받는다는 것이란 무엇인지와 기대하는 교사상 등을 들어보았다.

#### **다. 문헌 연구**

이해의 의미와 의의, 관계의 개념,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서 이해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의 의미,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 등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 백서, 학교 문화, 교사 문화, 청소년 문화, 학생 이해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였다.

#### **라.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프로그램 개발

학생 이해와 관련한 문헌 연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기존의 연수 현황 분석, 교사 대상 심층 면담, 학생 대상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연수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이해교육의 내용 범주와 세부 요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내용과 요소에 터하여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2학점 수준의 실제 프로그램으로 차시와 내용을 구체화한 연수 실라버스를 구안하였다.

##### ○ 전문가 검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해의 개념,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등의 개념적 고찰과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 조사, 교사와 학생 대상 면담 등 양적·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해 전·현직 교사,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였고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 등에 대해 2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 4.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1 단 계	문헌연구	○ 이해의 개념과 의의 고찰
		○ 학생과 교사 관계의 의미
		○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 고찰



2 단 계	양적 연구	○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학생 이해 관련 연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질적 연구	○ 교사 대상 면담 및 시사점 도출
		○ 학생 대상 면담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검토	○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토



3 단 계	프로그램 개발	○ 1, 2단계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안
	개선	○ 프로그램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 ○ 수정 및 보완

[그림 1-1]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절차

## II

---

### 학생 이해의 개념과 관련 요소

1. 학생 이해의 개념과 의의
2. 학생 이해 관련 요소
3.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
4. 학생 이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



## II. 학생 이해의 개념과 관련 요소

### 1. 학생 이해의 개념과 의의

#### 가. 이해의 개념적 의의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이다(Buber, 1958). 인간은 타인과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하루에도 천 번 이상씩 인간관계를 가지며, 주위 사람들과 매시간 약 200-300번의 상호작용을 한다(Jackson, 1968).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이해(理解)'는 '사리를 분별하여 앎', '말이나 글의 뜻을 깨쳐 앎'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해'의 의미는 앎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대상(what)과 어떤 방식(how)이 전체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할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대인간 이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일상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다'라는 것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Soltis, 1978).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 '납득하다', '수긍하다', '공감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는 단어나 기호에 대한 이해로서 '의미를 파악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셋째는 원리 혹은 법칙에 대한 이해로서 '원인이나 이유를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해하다'라는 세 가지 용법 중에서 학교교육, 특히 교사와 학생의 교

수·학습 과정에서는 주로 ‘단어나 기호에 대한 이해’와 ‘원리 또는 법칙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교수·학습 과정의 매개물인 교과는 단어나 기호의 의미, 원리나 법칙으로 특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병희, 1985). 반면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 차원에서 교사의 학생 이해의 관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첫 번째 의미로 접근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의 ‘이해’라는 용어는 여러 교육적 상황(맥락)에 따라 접근되는 것이 다르다. 즉 교사가 학생을 이해할 경우 혹은 학생이 교사를 이해할 경우, 교육적 관계인지 아니면 인간학적 관계인지, 수업 상황인지 아니면 생활지도 상황인지, 이해의 대상이 물리적 대상인지 아니면 심리적 대상인지, 혹은 이해의 대상이 교과 지식이나 태도인지 아니면 교육방법 내지 학습방법의 문제인지, 이해 대상이 일반 학생인지 아니면 문제(장애) 학생인지 그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의미 접근의 다양성 중에서 이 연구는 ‘이해’의 의미를 교사와 학생의 인간학적인 관계에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적 목적의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 **나. 학생 이해의 의의**

교육에서 학생 이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상적인 교육의 목적이나 수업의 목표는 언제나 학생 이해의 소통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Patti, 2006). 즉 기본적인 학생 이해의 소통 능력이 없이는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 내지 방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무엇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 이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의 조직 역학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교사의 학생 이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대인간 이해는 관계적 측면과 수단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대인간 이해를 통해 모종의 목표를 달성하고, 물질적 및 심리적 결과물을 얻는다. 이때 대인간 이해는 기법, 기술, 능력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인간 이해는 인간과의 관계적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인간 이해는 단순히 기법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에서는 수단적 목적보다는 대인간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성을 가지게 된다.

② 대인간 이해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직적 관계는 상향식 관계와 하향식 관계로 구분된다. 인간학적 관계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에서는 상향식 혹은 하향식과 같은 위계적 관계로 이해되지 않는다.

③ 대인간 이해는 일방적 관계와 양방향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의미 전달만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관계는 일방적 관계인 반면, 양방향적 관계는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는 양방향적 관계로 접근되어야 한다.

④ 대인간 이해는 성과 지향적 관계와 인화 지향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 지향적 관계는 달성해야 할 목표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상호간 필요한 과업을 확인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인화 지향적 관계는 리더의 기능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 구조로부터 보호하며 집단의 응집을 높이는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는 인화 지향적 관계로 접근되어야 한다.

⑤ 대인간 이해는 형식적 관계와 비형식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관계는 명문화된 조직 하에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직

위상 권력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인 반면, 비형식적 관계는 조직 내의 대면적, 감정적, 비합리적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로 내면적, 내향적이어서 불가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에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학적 관계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는 정형화된 관계보다는 비형식적 관계로 접근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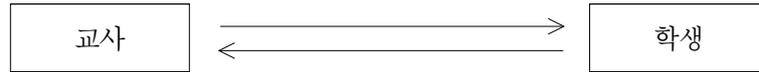
⑥ 대인간 이해는 소극적 관계와 적극적 관계로 구분된다. 단순히 타인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학생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학적 관계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는 단순히 학생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관계로 접근되어야 한다.

#### **다.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와 관계**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인간관계는 역할 관계와 정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규석, 최상진, 1998). 대인간 역할 관계는 상호간에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일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는 관계이다. 이러한 역할 관계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규범과 그에 준한 언행 규칙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 하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대인간 정의 관계는 구성원 개인 간 정서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러한 정의 관계는 정서적인 교감으로 형성된 관계로 구성원 상호간의 주관적인 규범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호 가족 공동체와 같은 주관적 관계 상황으로 상호간의 의리나 친밀을 중시하지만, 상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섭섭함이나 실망감이 클 경우도 많다. 사실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대인간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대인간 역할의 관계가 강하지만, 사제 간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 교감의 정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 이해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그림으로 접근되어 왔다.



**[그림 II-1] 교사와 학생 간 순차적 이해관계**

위 그림은 대인간 소통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학생에게서 교사에게로 이해가 가능한 상호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대인간 상호성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Marinyn과 Lynne(2007), Seiler와 Beall(2007)은 대인간 소통의 양상을 ‘interaction’과 ‘transaction’으로 구분했다. ‘interaction’은 소통 행위를 일방적 인과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며, ‘transaction’은 각각의 ‘interaction’의 의미와 과정을 상호 통합하는 동시적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림 II-1]은 화살표 방향 표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해 관계자 간에 생성되는 동시성이나 상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화살표가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교사와 학생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주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객체가 된다. 결국 교육적 관계는 시간과 순서적 간격을 전제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체와 객체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 순차적 이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방향성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혹은 ‘학생에게서 교사에게’로 이어진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는 단순히 대인간 의미 전달의 효과적인 전략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인간 소통에 대한 교육적 이해는 보다 나은 인간적인 관계의 성향을 생성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이해는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지식을 증대시키거나 혹은 태도, 신념,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종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Hills, 1979). 결국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교사와 학생 간 상호동시적 이해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림 11-2] 교사와 학생 간 상호동시적 이해관계

교사와 학생 간 상호동시적 이해관계는 교사와 학생이 주체와 객체로 구별되지도, 시간적 순서가 있지도 않은 완전한 상호성과 동시성을 지닌 이상적 관계가 된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지 않는 이해의 관계는 교육적 관계에 적용되는 그 순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즉 과연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가? 혹은 대인간 이해 혹은 소통은 교육적 의도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의 의문이 생긴다. Buber(1955) 역시 학습자의 존재, 즉 아동을 교사와는 다른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사에 비해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일 때,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동등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당연히 그들과의 소통 혹은 이해관계는 단순 상호성에 기반을 둔 소통이라기보다는 교육적 의도성을 가진 소통의 의미가 된다. 결국 교육적 이해의 상호성은 교사가 품고 있는 모종의 의도적 행위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이해관계는 항상 참여자의 상호성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교육은 분명 의도성을 갖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이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계는 둘 이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일시(shared identification)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된 동일시란 가령, 가족,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Yang, 1994). 첫째, 친근감(familiarity)과 근접성(intimacy)이다. 만약 두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상호 공유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즉 상호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상호 신뢰감이다. 관계를 통한 유대망은 형식적이거나 법률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셋째, 상호의무감이다. 만약 타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불신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양자 간의 관계도 훼손되게 된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 역시 친근감과 근접성을 통한 학생 이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상호 신뢰감과 상호 의무감을 통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밀접한 관계의 발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익성 및 상호협력에 의존한다(Brian, 1997).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하거나 협력을 통해서 친해지고 상호간에 호감을 갖게 되고 형성된 관계가 상호 유용한 방향으로 진전되면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형성이 학생의 학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 형성 및 그 장애 요인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 **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의 장애 요인과 극복 노력**

일반 학급 상황에서 교사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교육적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교사들이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어려운 관계 형성은 학생과의 문제이다. 즉 교사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distance),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closeness).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관계 형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집단에는 대인간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개인 간 혹은 대인간 소통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대인간 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에는 개인내 장애요인, 개인간 장애요인, 조직 차원의 장애요인, 기술적 장애요인 등이 있다(Bedeian, 1980).

① 개인내 장애요인(intraperson factors) : 개인의 연령, 성, 신념, 문화적 배경, 태도, 언어습관 등 개인의 선택적 지각과 신상과 관련된 개인의 속성으로 야기되는 장애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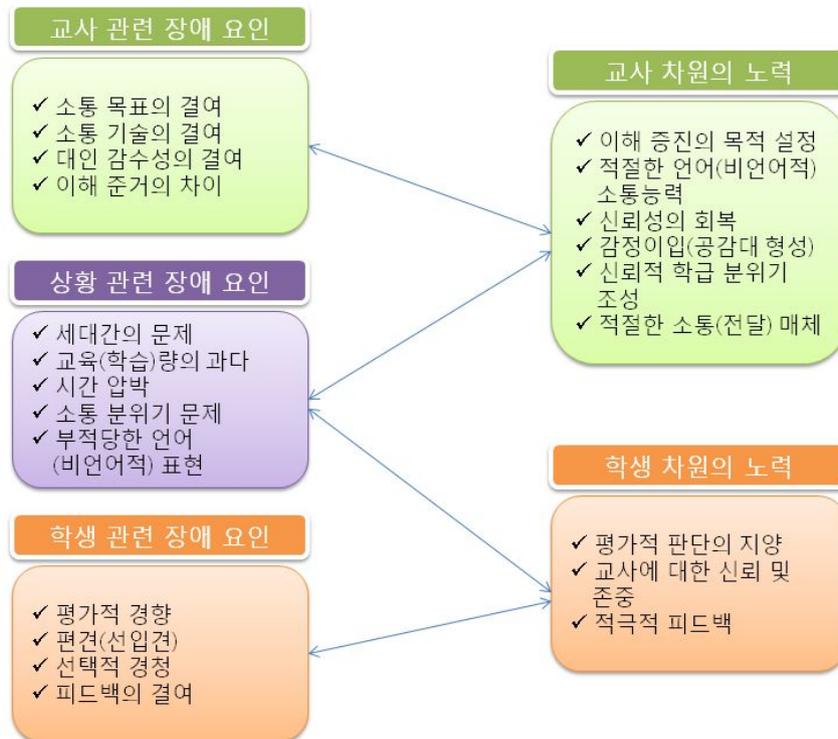
② 개인간 장애요인(interperson factors) :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친밀도, 신뢰도, 선입관이나 편견, 관계 정도 등에 의해 야기되는 장애요인으로, 특히 편견은 대인간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

③ 조직 차원의 장애요인(organizational factors) : 조직내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지위, 전달체제, 집단 크기, 시·공간적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장애요인이다.

④ 기술적 장애요인(technical factors) : 소통의 전달매체와 전달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확하고 모호한 매체의 사용이나 전달과정상의 물리적 및 심리적 문제로 야기되는 장애요인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해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물리적 장애요인과 심리적 장애요인이 있다. 물리적 장애요인은 대인 상호간 이해를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인 수 학습으로 인한 과밀학습의 경우 교사는 학생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우며, 전체로 대상으로 상대하다 보면 학생 개인적 생활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 심리적 장애요인은 그 성격상 물리적 장애보다 더 어려운 대인간 이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상호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방해하여 의미 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폐쇄적인 문화, 지나친 권위주의적 관계,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 사이의 불신 등은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 소통을 통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간의 소통의 장애가 해소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적절한 전달 매체와 전달과정에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사 측면, 학생 측면 그리고 학교 상황에서의 소통 장애의 원인과 그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 차원과 학생 차원의 장애요인별로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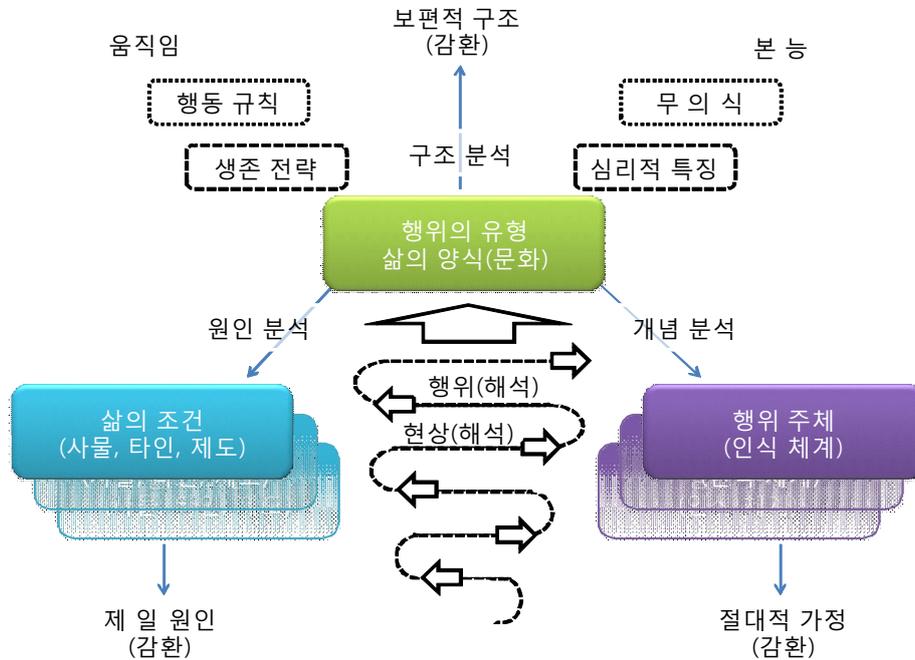
[그림 11-3] 대인간 관계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통에의 감정이입, 피드백, 신뢰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적절한 전달 매체의 선택 등 학생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학생을 평가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 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접근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 이해에 있어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신뢰의 형성 하에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 학생 이해 관련 요소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 자체에 대한 이해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인간의 생애 발달단계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한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이며 사회·국가적으로 볼 때는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적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홍길동'이 학생이라고 해서 그를 학생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학생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출발점(조용환, 2009)이라는 말처럼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학생을 이해하려고 한 연구는 서근원(2000)에서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삶의 양식을 고려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한정된 논의이지만 초등학생이라는 제한을 버리고 현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개념상 큰 무리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학생으로 이해하였다. 학생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파악하는 방법과 인식체계,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p.64). 인식체계와 삶의 조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순환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한 부분을 드러내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시적, 비가시적인 학생의 행위를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 이면에서 인식체계가 작용하고 어떻게 삶의 조건이 지각·해석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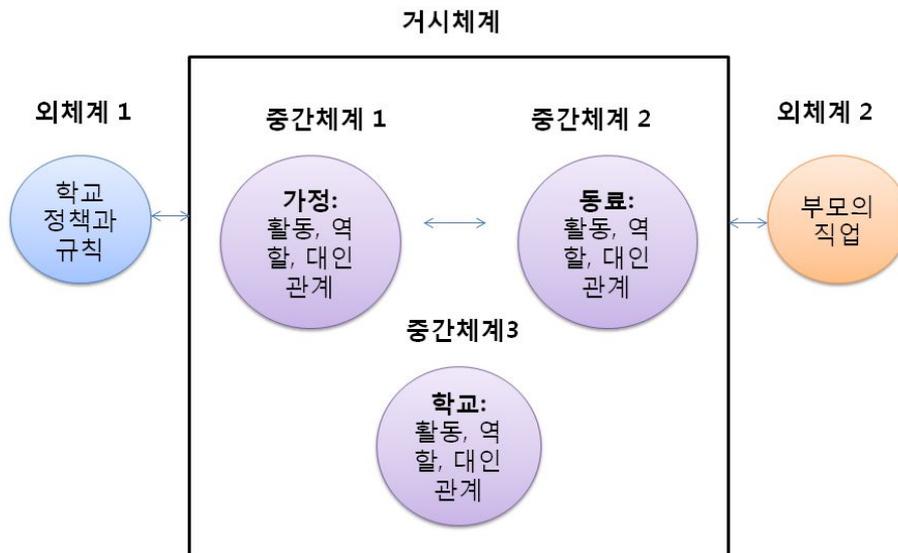
주. 출처 "초등학교 학생문화 이해를 위한 시론", p.67. 서근원, 2000.

하지만 행위나 현상을 통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의 과정 속에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가감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총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감환(減還)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의 행위를 단서로 그들의 인식체계와 그들이 인식하는 삶의 조건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p.68).

학생을 이해하는 다른 접근으로 학생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가를 살피는 생태학적 접근이 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이론(1989)이 대표적이다. 김영천(1998)은 생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은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다음 네 가지의 체계로서 설명되고 있다고 하였다[그림 2].

첫째, 미시체계(microsystem)는 아동이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체계를 말한다. 가정과 동료집단이 이에 속한다. 둘째, 중간체계(mesosystem)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수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가정과 학교의 관계, 가정과 동료집단의 관계 등 미시체계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

문에 어떤 하나의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른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외체계(ex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달의 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장면을 말한다. 부모의 직장, 손위형제의 학교, 학급, 이웃의 특징,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관계 등이 속한다. 셋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말한다. 앞의 세 가지 체계를 포함하는 신념체계 또는 이데올로기로 규칙, 규범, 기대, 가치, 역사 등이 해당한다.



**[그림 11-5]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모델**

주. 출처 “잠재적 교육과정이 밝혀진 후: 교사와 행정가에게 주는 시사점, p.54. 김영천, 1998.

학생은 외적, 중간, 거시적 체계로 구분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학생의 환경을 살피지 않고서는 학생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된다. 거시체계와 외체계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의 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게 하므로 학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대인관계적 환경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김영천, 1998). 또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구축된 것이므로 다른 이론들이 갖지 못하는 포괄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또 개인에서 가족 혹은 보다 큰 체계에 이르는 다양한 분석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진영, 2005b).

생태학적 접근의 거시체계는 학생의 발달을 가져오는 일종의 맥락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맥락적 접근에 대해 임진영(2005a)은 존재하는 근본적 사실들은 복잡하고 맥락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라 보고 Riegel(1976b, 재인용)의 내적 생물적(inner-biological) 차원, 개인 심리적 차원(individual-psychological) 차원, 문화사회적(cultural-sociological) 차원, 외적 물리적(outer-physical) 차원 등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할 때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적 실체가 파악된다고 하였다. 각 차원간의 영향과 작용을 통해 발달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인간 내적인 차원과 인간 외적인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발달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인간 내외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총체적 이해에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관점에서 학교생활은 학교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외적 물리적 차원, 내적 생물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중 미시적 요소로서 인적 요소인 교사, 학부모, 또래를 설정할 수 있다(임진영, 2005b).

이상의 인간의 이해와 관련한 접근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므로 연수의 대상으로서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 요소로 하였다. 교사의 리더십, 인간관계, 마음관리, 자기치유 등의 내용이 교사 요소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의 대상으로서 학생 요소를 설정하고 외적 요소로 학생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또래와 학부모를 학생 요소에 포함시켰다. 또래문화, 심리, 문제상황, 고민, 학부모 관련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므로 관계를 한 요소로 하였다. 갈등해결, 감성코칭, 상담기법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은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설정되는 관계이나 본질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므로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인간을 한 요소로 하였다. 인간의 실존과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 이해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관계와 관련된 요소는 교사와 학생이 동시대적 존재로

문화라는 맥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시체제로서 작용하는 문화는 맥락 요소로 정하였다. 학교문화, 학급문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학생 이해 관련 요소를 도식화하면 [그림 II-6]과 같다.



[그림 II-6]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

## 가. 인간

### 1) 심리학의 인간관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원식(2005)은 현대 심리학의 인간관을 세 가지의 견해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견해는 행동주의적 인간관이다. 행동주의적 인간관은 인간을 반응하는 존재로써 파악하며 다른 모든

유기체와 다를 바 없는 반응체로 보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복잡한 기계라 보고 인간행동은 복잡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정신분석학적 인간관이다. 인간의 심층적인 의식세계를 중요시하고 무의식의 충동에 의해 부적응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인간행동의 이해는 무의식의 세계를 통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행동주의적 인간관과 정신분석학적 인간관에서 벗어나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본질적 질문에서 출발하는 견해로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위의 세 가지 관점 이외에도 다양하다. 각각의 인간관은 저마다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규정하기 곤란한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은 이러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학생을 전체해야 한다.

## 2) 만남

인간은 만남을 통해 사회를 만들어간다. 이는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관계맺음을 들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관계의 시작은 천부적인 생물학적 만남인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학교에서는 또래와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교사와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워나가게 된다. 사회 속에서는 직장 동료, 이웃, 동호회, 시민단체, 스포츠 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인간과의 만남이 이뤄지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구성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도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3) 성장

인간의 성장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외적인 신체의 변화 외에 교육을 통해 내면이 발달하게 된다. 인간은 적극적이고 동적인 유기체로 인간행동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이다(정원식, 2005) 인간의 변화는 본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을 통해 평생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학생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교육의 기본 전제로서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 변화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에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다. 학생 이해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관계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 4) 인간행동의 선행조건

정원식(2005)은 인간행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예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 보았다. 학생 이해의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의 행동은 단순한 어떠한 원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일정한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행동에 대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어떤 욕구가 작용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획일화된 지식이나 통념에 의해서는 파편적인 이해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대상이 되는 한 인간으로서의 학생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 나. 교사

### 1) 교사문화

교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크게 초등교사문화에 대한 연구(오영재, 2010; 류방란, 2002; 이정선, 2000; 조용환, 1995; 황기우, 1992)와 중등교사문화에 대한 연구(박소영, 2011; 이혜영, 2001)로 구분할 수 있다.

오영재(2010)는 이차적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표 II-1>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 문화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 수업문화, 행정 업무 문화, 인간관계의 네 가지 중핵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표 II-1> 초등학교 교사 문화의 특성

중핵	특성
일반적 특성	-의례화와 보여주기 -느린 변화와 불만 속의 환경 순응성 -개인주의적 성향과 학년 동일시 지향성의 공존
수업문화	-이상적 수업과 일상적 수업은 다르다. -고립적 수업문화
행정 업무 문화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하기 -경력에 따라 나누되, '꼭 필요한 일'만 '남하는 만큼'만 한다.
인간관계	-교장과의 인간관계: '어른'에 대한 예우와 순종, 외부 압력에 대한 '방패막이'로서의 교장에 대한 기대 -교사들 간의 인간관계: 동 학년 중심, 튀지 않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

이정선(2000)은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학생 통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교사는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급경영계획을 세우고, 학급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업과 학생지도를 한다. 또한 과외 활동을 지도해야 하고 상담과 생활을 지도하며 학생평가 및 기록보존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공문서 처리와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수업은 교육적 목적에 따른 행위이고 학생 통제는 관리적 목적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적 목적의 활동과 관리적 목적의 활동은 긴장관계에 처할 때가 많다(이정선, 2000). 실상 교육적 목적의 활동보다 관리적 목적의 활동이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정선(2000)은 학교에서 관리적 활동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적 목적과 관리적 목적 활동 간의 긴장관계는 학교의 조직적 특징에서 야기된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되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의 조직적 특성은 결국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 목적보다는 관리적 목적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Feidman-Nemser & Floden, 1986; 이정선, 2000. p.130에서 재인용). 둘째, 다인수 학급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교사들로 하여금 관리적 목적을 더욱 강조하게 만든다. 실제로 학교는 감옥이나 정신병원처럼 비자발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것이다. 셋째, 과밀학급이 교사들에게 주는 의미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기가 어렵게 된다.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교사가 개인적인 친밀감보다는 소원성이라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교사들은 업무를 당연한 책무인 교육활동과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인 의미가 약하거나 그에 반하는 업무 등은 '잡무'로 인식하기도 한다(이정선, 2000).

교사문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교직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교사의 직업적 의미를 좀 더 드러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황기우(1992)는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해석적 분석에서 초등 교직문화의 특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다. 교사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학생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수 학습과 기타 학교 행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적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안정지향적인 학교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종일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문제 상황이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생활을 하여 경험의 공유를 통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성으로 인한 현재주의적 경향이다. 교수활동은 바쁜 일정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따르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등학교와 달리 대부분의 과목을 담임이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수업은 반복되지 않고 한 번에 끝나기 때문이다. 넷째,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향이다. 이것은 아무 일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여기는 공무원 집단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문화에서도 학교장은 안정을 지향하고 도전적인 사업은 벌이지 않는다. 관리자의 이러한 성향과 학교의 분위기는 열정적인 교사의 도전과 모험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정선(2000)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수주의, 개인주의, 현재주의,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교직 문화의 이중성이라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황기우(1992)와 달리 현재주의는 경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재에 머물게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직업 입문과정의 엄격함이 낮고 자격을 갖추는 사회화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의 복잡성이 적게 요구되며 성문화된 경험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교직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라는 교직문화의 특성이 드러난다. 교직의 이중성은 '특수한' 것을 기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지위와 보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이중적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표 II-2>는 이정선(2000)과 황기우(1992)의 교직 문화를 비교한 것이다.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성**

특성	이정선(2000)	황기우(1992)
보신주의		○
개인주의	○	○
현재주의	○	○
보수주의	○	○
교직의 이중성	○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	

교사집단이 안고 있는 모순은 학교의 내외적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는 교사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조용환(1995)은 교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은 전문성과 자율성의 실질적 보상이 미약한 데 비해서 공공성의 부담만 유독 큰 것이라 보았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교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사적 이익을 챙겨도 사회적 지탄을 덜 받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교사들이 도전적으로 자기계발을 해 나가며 전문성을 신장하려하기보다는 무사안일주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다. 학생

### 1) 학생문화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메타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적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한 조용환(1995)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직업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방식이 직업 위주로 되어있다(조용환, 1995). 직업 위주의 인생관은 잘 사는 삶에 대한 반성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오로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성장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부추기고 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초중등 12년간의 모든 시간이 투입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이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의 인생에서 소외시킨다.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고 준비해야 할 많은 것을 유보하고 홀로서기를 포기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입시문화’의 지배뿐만 아니라, 부모나 사회가 ‘학생’의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들은 미숙한 존재로 취급하여 자율보다는 타율을 습관화한 풍토가 큰 몫을 하고 있다(조용환, 1995. p.86)

이러한 직업 중심의 인생관에서 비롯되는 타율과 학생 신분의 강조는 자율의 욕망이 발달하고 자아개념이 확립되어가는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의 문화에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조용환, 1995). 학생과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라는 속성에서 학생의 역할과 청소년으로서의 욕망이 갈등하게 된다. 이것은 졸업의 한 증표로서 학생들이 교복을 찢는 행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발달해가는 그들에게 권위와 폐쇄, 금지로 강요했던 억눌림이었던 것이다.

학생과 청소년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정체이다. 학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해야 하는 존재인 반면에, 청소년은 청소년 고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학생은 재미는 별로 없더라도 ‘뭔가 남는 것’을 지향해야 하지만, 청소년은 재미를 주는 ‘뭔가 와 닿는 것’을 지향한다. 학생은 교사의 주목에 신경을 쏟지만, 청소년은 또래의 주목에 신경을 쓴다. 학생의 관심이 성적에 있을 때, 청소년의 관심은 옷차림과 이성과 대중음악에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의 정체가 ‘청소년의 정체’를 압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갈(가야 할) 곳이 있지만, 청소년은 갈(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는 많은 것들이 학교에서는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인 학생’이 곧 ‘성공적인 청소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조용환, 1995. p.83).

청소년과 학생을 동일개념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을 학생으로만 보는 시각을 벗어나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 결국 학교에 있는 교사의 대립각에 위치한 역할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발달과정인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이라는 존재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학생 이해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 라. 관계

### 1) 의사소통

인간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전되어 간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가운데 인간의 관계는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구조에 따라서 일방향, 양방향, 상호작용으로 구분된다. 일방향 의사소통은 두 대상 중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일방적인 의사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의식 수업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양방향 의사소통은 두 대상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되 순차적이거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단순한 의견의 교환을 의미한다. 무전기의 통신이 그러한 예이다.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지속적인 의사의 교류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전적인 소통을 의미한다. 공동과제에서의 토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의사소통은 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온라인 의사소통은 가상의 공간에서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되는 것으로 이메일, 채팅, 메신저 등의 형태가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의사소통은 면대면 소통 방식으로 직접 만나 육성과 오감의 정보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의 변화는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의 비중의 높아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면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의사소통방법에 교사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많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장·발전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정원식(2005)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에서 두 개인이 만나면 상호작용이 시작된다.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다. 비록 아무런 외형적인 동작이나 대화가 교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 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며 이 인상이 나중에 그들 사이에 관계를 위한 기초를 만든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인상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개인과 집단이 만날 때에도 일어난다(정원식, 2005. p.75).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경우 인간 본래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는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역할만이 남게 된다. 인간의 상호작용과 학생 이해와의 밀접한 관련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마. 맥락(문화)

인간은 독특한 행위 양식을 이루고 살아간다. 인간의 특성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독창적인 행위의 양식 또는 삶의 양식인 문화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다. 학생 이해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문화적 존재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사전적 의미로서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홍재호(1994)는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와 인지인류학자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통합하여 문화를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문화가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의 총체이며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인지인류학자인 굿이너프(Goodenough) 등은 공유하고 있는 인간학습의 소산으로서 현상세계의 경험을 조직하는 표준(standard)으로 문화를 인지한다고 하였다. 거시체제로서 인간의 외부에서 행위와 삶의 양식을 규정하지만 인간의 내면적으로도 일정한 표준이 되는 것이 문화인 것이다.

이정선(2005)은 지금까지 제시된 문화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종합적 정의로 문화와 문화적 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문화를 규정하고자 했던 타일러(Tylor)의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규범, 도덕, 관습 등 수많은 구성요소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둘째, 인지적 체제로 보려는 입장으로 문화를 사회 구성원들 간 공유한 인지체제로 보려는 굿이너프(Goodenough)의 견해이다. 이 두 가지는 앞서 언급한 홍재호(1994)의 문화와 유사하다. 셋째, 문화를 공유된 상징과 의미체제로 보려는 기어츠(Geertz, 1973; 이정선, 2005에서 재인용)는 문화를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1) 학교문화

학교문화란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문화의 하위문화에 속한다. 홍재호(1999)는 학교문화는 앞의 두 가지 문화의 정의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은 물론 그들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원리나 규칙 혹은 표준이라 보았다. 이정선(2005)은 세 가지 문화의 개념 유형에서 학교를 첨부한 형식으로 학교문화가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scientific term)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가하는 민속적 개념(folk term)으로의 이해도 중요하다(pp.3~4).

일반적으로 학교문화는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두 문화 모두 학교의 특성으로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학생의 성취나 학교의 효과에 관계된다(홍재호, 1999).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는 모두 교사와 학생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쳐 행위와 현상에 관여하게 된다. 이정선(2005)은 홉스테드(Hofstede, 1996)의 문화 구성요소인 가치와 실제(상징, 영웅, 의식)에 따라 학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면적 가치와 외면의 표현에서 학교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학교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교문화를 구성하는 사물, 사람, 활동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자, 겉으로 드러난 상징(대상), 영웅(사람), 의식(활동)을 통하여 내면의 문화적 가치를 찾는 일이다(이정선, 2005).

이러한 학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강한 문화, 건강한 문화, 좋은 문화, 긍정적인 문화, 호의적인 문화와 각각의 반대되는 문화로 유추를 통해 분류와 범주화를 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 현상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기술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문화의 민속적 개념에 가까운 참여관찰 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학교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영애와 이준(2002)은 이용숙과 김영천(1998)이 우리나라의 학교문화로 규정된 획일성과 위계성으로 학교문화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였다. 먼저 획일성은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방식, 물리적 공간 구조, 행사, 모임 등 모든 영역이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 획일적인 교과서를 들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점차 검인정 교과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에도 완전히 맞은 예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현재에도 획일성은 우리나라 학교문화의 특성이 아니라고 말하기

는 어렵다. 여전히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상명하달식이 많고 특정한 정책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과 학교, 학급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관습에 따르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획일성은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문화를 규정하는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계성은 교육부처에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장, 교감, 부장, 교사, 학급 반장, 일반 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 고리로 어느 특정 부분에서의 변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계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호박에 줄을 긋고 이름을 수박이라 한다고 하여 수박이 되지 않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하여 본래 속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교육청은 여전히 현장 교사들에게는 높이 있는 관료적 권위의 상징이고 학교에서는 교장-교감으로 이어지는 관리자들과 평교사 간에는 보이지 않는 층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학급에서도 반장은 교사를 등에 업은 권력의 핵심으로 여전히 일반 학생들과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혁명적인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학교는 구성요소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시대에 앞서가는 21세기 학생과 과거 기억에 안주하려는 20세기 교사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학생-교사의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영애와 이준(2002)은 디지털 시대의 학교문화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교사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코드의 부조화이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는 학생들과 아날로그 세대 교사들 간의 문화 차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주도적이며 신기술과 새로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N세대의 문화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교사, 학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 개념의 변화이다. 과거의 지식이 고전적 인식론에 터해 개별적으로 축적되며 지식이 확장되므로 학생은 개별적 지식을 습득하고 구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날의 지식은 정보의 바다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세련되게 구조화를 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지식의 개념의 변화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실에서 지식의 전달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의 괴리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셋째, 학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경직성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육은 그러한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학교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상급기관에서 임의로 결정되며 이런 결정된 사안들이 학교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경직성을 띄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는 교사,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규격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표 II-3> 계층별 학교문화의 특성**

학교 계층	문화 특성
학생	대입 지향의 경쟁 속에 순응하는 문화 획일적, 통제 중심의 학교규칙에 저항하는 문화 다양한 능력관에 기초한 평등한 인간관계 지향 문화
교사	수업의 의례도구화 행정업무의 형식화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 환경변화에 대한 선택적 수용
교장	의례적 수업개선 강조 경험 중심의 안정 우선주의 학교경영 환경변화를 꺼려하는 경향 고독한 완벽주의 경향
학부모	높은 자녀 교육열 학벌, 학력 위주의 도구적 교육열 자녀 성공을 위한 과도한 경쟁 및 불안심리 학교교육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의식 증가
지역사회	경제적인 거주지로서의 학교 가치 재평가 경향 학교의 교육성패에 대한 지역단체로서의 요구 증가

오영재(2009)는 앞의 <표Ⅱ-3>과 같이 학교문화를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섯 계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학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관리자로서 교장, 외부 요인으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각 계층 별로 문화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경쟁에 순응하고 있으나 확일과 통제에는 불응하는 성향이 강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문제를 동료와 공유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는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장은 수업개선을 의례적으로 강조하고 도전적인 일을 벌이지 않으며 안전과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변화를 꺼려하며 고립된 경향이 있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입시 위주 교육을 부추긴다. 주변과 늘 불안해하는 경쟁심리가 강하여 남들을 따라 자녀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성적에 따라서 판단하며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사회는 이른바 좋은 학군을 형성하여 지역과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려 한다.

이처럼 학교문화는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뚜렷하게 드러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이해에 대한 접근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교 문화라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총체적 이해에 다가서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또는 학생을 이해 하는데 있어 학교문화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3.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

#### 가.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의 정의

이 연구에서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란 연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표 II-4>와 같이 인간, 교사, 학생, 관계, 맥락의 다섯 가지 범주 중 어느 한 범주 이상에 해당되는 연수를 의미한다.

<표 II-4> 학생이해교육 요소 범주

범주	하위 요소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기반
교사	리더십, 자기치유, 마음관리
학생	또래 문화, 고민, 문제 상황, 심리
관계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 상담기법, 상호작용, 감성코칭
맥락	학교문화

#### 나. 분석방법

학생 이해와 관련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연수원과 교원대상 사설(원격)연수원의 연수 과정을 조사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최근 3년 이내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연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연수원의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연수에 대한 안내와 개요를 중심으로 <표 II-4>의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 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2개 기관에서 39개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이해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수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학생 이해와 관련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II-5>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의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방법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연수원과 사설(원격교육연수원(12개 기관, 39개 연수 과정)	연수 기관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연수 명	
	연수 내용	
	연수 학점	

<표 II-6>은 연수 기관별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총 39개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수는 26%(10개)이었고 사설 기관에서는 약 세 배가 많은 74%(29개)의 연수 과정을 주관하고 있었다.

**<표 II-6> 연수 기관별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 수**

연수기관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 수(총 39사례)	백분율(%)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2	5
대전광역시 교육연수원	1	3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5	13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2	5
사제동행, 한국교총원격연수원	4	10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	4	10
유니텔연수원	1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3
티처빌	2	5
한국교원 연수원	6	15
행복한연수원	9	23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2	5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는 모든 교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을 기르는 연수 과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게 되는데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가 사설(원격)교육연수원에서 많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원들에게 학생이해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II-7>은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사설(원격)교육연수원 및 기타 기관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39개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7>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학점(시간)과 내용**

연수 명	학점(시간)	내용				
		교사	관계	학생	인간	맥락
2012 중등 사랑의 학생 이해 직무연수	1학점		○			
2013 초등 교사학생 상호작용 직무연수	1학점		○			
중등 교사·학생 상호작용	2학점		○			
교원능력개발 학생지도 전문성 향상(동계과정)	4학점	○	○			
중등 공모형 맞춤형(상담기법 및 학생 이해)	2학점		○	○		
중등 공모형 맞춤형(석춘중·학생 이해를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 체험)	1학점		○	○		
중등 공모형 프로슈머 1기(신도림중, 학생 이해와 공감하기)	1학점			○		
초등 공모형 맞춤형(교동초·학생과 소통하는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	1학점		○			
교사·학생 상호작용(중등)	1학점		○			
교사·학생 상호작용(초등)	1학점		○			
사례로 배우는 실전! 학생코칭기술!	2학점		○			
신세대문화 이해와 학생지도	2학점			○		○
청소년 문제 유형별 상담	4학점		○	○		
학생 이상심리 바로 알기	2학점			○		
갈등해결 프로그램, 피스메이커!	2학점		○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	2학점	○	○			
교사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2학점		○		○	
최고의 상담 비법	2학점		○	○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	2학점	○				

<표 II-7>에서 계속

연수 명	학점(시간)	내용				
		교사	관계	학생	인간	맥락
행복한 학급을 만드는 에니어그램 연수	16시간	○		○		
공감과 소통을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	2학점		○			○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2학점		○			○
마음을 얻는 소통의 심리학	2학점		○			
사례중심 중등 생활지도	2학점		○			
사례중심 초등 생활지도	2학점		○			
서로를 이어주는 마음의 소통 감정코칭	2학점	○	○			○
선생님은 소통방통 해결사(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	2학점		○			
학생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코칭&리더십	2학점	○	○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신생활지도 - 학생 이해와 공감에 기초한 정신역동적 신생활지도	1학점		○	○		
교사를 위한 한국형 감수성훈련	15시간	○				
교사의 인간관계 역량 개발 전문 워크숍(T-SAI workshop)	15시간		○			
교사의 자기 치유와 성장을 위한 마음관리법(TSH-SKILL)	15시간	○				
‘관계’가 열리는 교사리더십 상담훈련 종합과정	22시간	○	○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 리더십상담훈련 중급 워크숍 삶이 바뀌는 연수	24시간	○	○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 리더십상담훈련 초급 워크숍 삶이 바뀌는 연수	24시간	○	○			
학급아동의 문제행동 심층적으로 다루기	1학점		○	○		
학급아동의 문제행동 유형별 이해와 상담 기법	1학점		○	○		
성공하는 교사들의 4가지 핵심역량 워크숍	7시간	○	○			
성공하는 교사들의 7가지 습관	24시간	○				
빈도		13	31	11	1	4

위의 <표 II-7>을 바탕으로 최근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경향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수 명과 학점, 연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II-8>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명의 핵심 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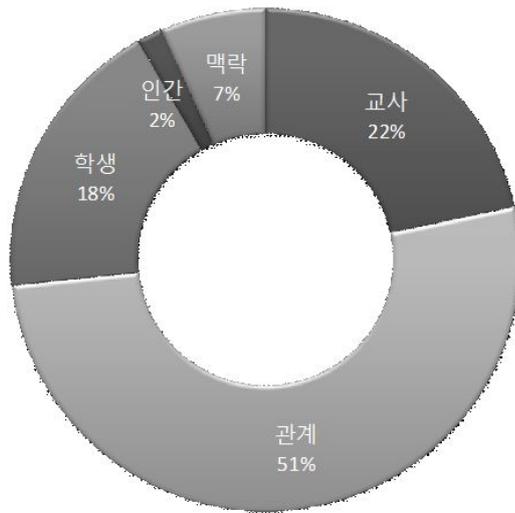
핵심 낱말	빈도	백분율(%)
관계(인간관계, 상호작용, 공감, 소통, 갈등해결)	13	23
마음(심리학, 이상심리, 치유, 성장)	12	22
코칭(학생지도, 생활지도)	10	18
상담(상담기법, 상담훈련, 상담비법)	8	14
학생 이해(신세대 문화이해)	6	11
리더십	4	7
문제(문제행동)	3	5
계	56	100

<표 II-8>은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 명을 분석한 것이다. 연수 과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였으나 학생이해교육이라는 큰 범주에서 분류하면 관계, 마음, 코칭, 상담 등의 낱말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관계, 상호작용, 공감, 소통, 갈등해결 등 관계와 관련된 낱말과 심리학, 이상심리, 치유, 성장 등 마음과 관련된 낱말이 각각 23%(13회)와 22%(1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학습 이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낱말인 코칭, 학생지도, 생활지도 등이 18%(10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학생 이해의 기술적인 접근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담기법, 상담훈련, 상담비법 등 상담과 관련된 낱말도 14%(8회)로 나타났다. 학생 이해(신세대 문화이해)와 리더십, 문제(문제행동) 등의 낱말은 각각 11%(6회), 7%(4회), 5%(3회)로 뒤를 이었다.

연수 과정명의 핵심 낱말의 비율을 살펴볼 때 특정 낱말에 집중된 경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관계, 코칭, 상담 관련 낱말이 55%인 것을 생각해볼 때 개설되어 있는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칭과 상담에 대한

연수명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 영역이 학생 이해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9>와 [그림 II-7]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에 속하는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51%)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기술, 갈등해결, 상담기법, 상호작용, 감성코칭 등 학생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과 관련된 연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리더십, 자기 치유, 마음관리 등 교사 자신의 내면을 기를 수 있는 연수는 22%(13회)로 관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학생의 또래문화, 고민, 문제 상황, 청소년 심리 등 학생에 대한 내용은 18%(11회)로 뒤를 이었으나 학교 문화, 배경 등 맥락에 대한 내용(7%)과 인간과 인간의 만남,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기반 등 인간 본연에 대한 내용(2%)은 드물게 나타났다.



[그림 II-7]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 내용 범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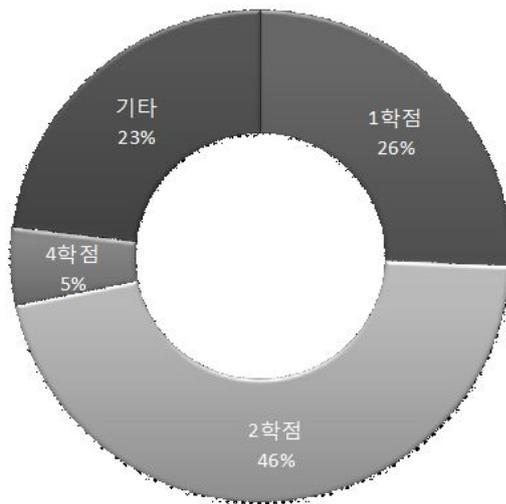
<표 II-9> 연수 과정의 내용 범주 빈도

내용	빈도	백분율 (%)
관계	31	51
교사	13	22
학생	11	18
맥락	4	7
인간	1	2
계	60	100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에서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학생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실관계의 두 당사자로서 교사 자신에 대한 내용과 학생에 대한 내용이 관계와 함께 학생 이해 연수의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현행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관계, 교사, 학생에 대한 내용 요소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점별로 살펴보면 <표 II-10>과 [그림 II-8]에서 알 수 있듯이 2학점이 46%(18회)로 가장 많았다. 1학점은 26%로 그 다음 많았으며 4학점은 작게 나타났다(5%). 그 밖으로 24시간과 15시간이 각각 3회 있었고 22시간, 16시간, 7시간이 모두 1회씩 나타났다. 여기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합숙형 연수 또는 자율 연수 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I-8] 학생 이해 관련 연수 과정의 학점 비율

<표 II-10> 연수 과정의 학점 빈도

학점	빈도	백분율 (%)
2학점	18	46
1학점	10	26
기타	9	23
4학점	2	5
계	39	100

2학점의 연수는 보통 30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30차시의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원격연수의 특성상 온라인 상에서 평가가 가능한 시수가 30시간이고 집합 연수의 경우 5일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에서 2학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도 이러한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보편적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학생이해교육은 단순히 학생에 대한 이해로 한정되지 않고 학생, 교사, 관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2학점(30차시) 이상의 연수가 51%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시사점

첫째, 사설연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선택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 확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중심의 교육연수원에서 학생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설(원격)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자발적 의지가 강하며 경쟁 체제이므로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의 질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수 과정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교원들은 선택적으로 연수를 수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의 연수는 대부분 비용이 무료이고 연수 기수마다 일정 수의 수강 교원이 확보가 되므로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원의 기본 소양을 학교 현장에 꾸준히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연수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교원의 필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교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현상과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한 교실붕괴 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 학생이해교육과 관련한 연수 과목을 늘려서 필수적으로 교원들이 학생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기에 관계에 집중한 기존의 연수는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설정, 코칭, 생활지도와 갈등해결에 집중한 반면 인간과 맥락에 대한 이해는 소홀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담에 대한 내용도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의사소통기술과 함께 기법적으로 치우친 면이 많았다. 상담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지만 교육

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사와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의 만남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의 측면과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 이해는 편향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철학·심리학·사회학 등 이해의 기반이 되는 근원에서부터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연수를 통해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학교 문화, 교실 문화 등의 맥락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과 맥락에 기반을 두고 마음의 치유, 성찰, 반성 등 교사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심리, 문화, 고민,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때 학생이해교육 연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4. 학생 이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학생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시행 2011.3.1)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시행 2012.6.29)에 의거 이행되고 있다.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 학적사항 :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
-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내용·인증기관 및 취득연월일 등

•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특히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다.

- 학교정보
- 학생의 수상경력
-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학생의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며,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러한 학생에 관한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를 준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현행 학생생활기록부를 통한 교사의 학생 이해를 위한 자료는 학생의 개인 인적 및 학적(출결)사항, 수상경력 그리고 교과(교과학습발달상황) 및 교과외(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활동 중심으로 학생 이해를 위해 실질적으로 교사가 참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I의 진로희망사항과 학교생활기록부 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표 II-11> 학교생활기록부 I의 진로희망사항**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학생	학부모

**<표 II-12> 학교생활기록부 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러한 학생 관련 자료에 대한 공식적 문서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I의 진로희망사항과 학교생활기록부 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은 학생 개개인의 이해를 위한 교사 자료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 이해 자료 보다는 주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이 주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작성에 큰 차이가 없다. 진로희망사항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5,6학년, 중등학교는 1, 2, 3학년의 구분, 중등학생의 독서활동상황, 고등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정도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작성상 다를 뿐이다.

주요국의 초·중등학교의 성적표에 제시된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학생 평가의 결과 보고 양식에는 크게 교과 영역과 교과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교과 영역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영역으로, 학생의 교과 영역에서의 성취도 평가는 학교 수준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인 학생 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교과외 영역은 교과 영역 이외에 학생을 평가하는 모든 영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영역 이외에 학생의 학교 생활 태도나 학습 태도 또는 습관, 흥미, 특기 등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교과외 영역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인 평가 영역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모두 학생에 대한 평가 영역으로 제시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다.

특히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의 공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학생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 사생활(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한 초등학생들의 '학생기록 시스템'에 대해 국가위원회는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그 동안의 논란에 따라 일부 자료를 수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학생 기록에서 장애 여부나 병적 기록에 대한 부분이 삭제될 예정이며, 기존의 35년간이라는 기록 보관 기간을 단축될 전망이다. '학생기록'에는 학부모 인적사항, 주소 등 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학생 기록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교사들, 교장들, 교사 조합, 학부모 단체 등이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이 기록을 경찰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르 몽드, 2010.7.20).

### Ⅲ

---

## 교사의 학생 이해 실태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2. 조사 도구
3. 자료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논의 및 시사점



### III. 교사의 학생 이해 실태

####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01월 18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대도시 지역 교사 161명, 중소도시 지역 교사 155명, 읍면과 벽지의 교사 131명 등 모두 447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에서는 구글 문서도구 질문지를 작성하여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오프라인에서는 교사들에게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447부로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자료 처리가 어려운 응답지 2부를 제외한 445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도구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구안하였다. 우선 교사의 인식에 중점을 두어 일반적 정보, 학생 이해의 현황, 학생과의 소통,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 등 네 가지 범주를 정하였다. 각 범주에 따라 하위 문항을 설정하였고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표 III-1>과 같이 총 26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일반적 정보에 대한 2문항은 서답형, 일반적 정보의 1문항과 학생 이해의 현황 2문항은 5점~7점 척도형, 나머지 21문항은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 문항의 범주와 수**

문항 범주	문항 수 (총 26문항)	비고
일반적 정보	5문항 (1, 3, 5, 6, 7)	선다형
일반적 정보	2문항 (2, 4)	서답형
일반적 정보	1문항 (6-1)	척도형
학생 이해의 현황	2문항 (8, 9)	척도형
학생 이해의 현황	5문항 (10, 11, 12, 12-1, 13)	선다형
학생 이해의 어려움	8문항 (14, 15, 16, 17, 18, 19, 20, 21)	선다형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	3문항 (22, 23, 24)	선다형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는 PASW Statics 18을 활용하여 척도형 문항의 경우 문항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고 선다형 문항의 경우 문항별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척도형 문항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근무지, 교육경력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Schèffe)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가.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인식

<표 II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속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74	39.1
	여	271	60.9
연령대	무응답	4	.9
	20대	83	18.7
	30대	215	48.3
	40대	102	22.9
	50대	41	9.2
학교급	초등학교	268	60.2
	중등학교	177	39.8
근무 지역	대도시	159	35.7
	중소도시	155	34.8
	읍면	122	27.4
	벽지	9	2.0
교육 경력	5년 미만	104	23.4
	5-9년	131	29.4
	10-15년	89	20.0
	16-20년	39	8.8
	21년 이상	80	18.0
	무응답	2	.4

응답자의 60.9%(271명)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39.1%(174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30대가 48.3%(21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2.9%, 102명), 20대(18.7%, 83명)가 많았으며 50대는 9.2%(41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60.2%(268명)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중등학교는 39.8%(177명)로 나타났다. 근무 지역은 대도시(35.7%, 159명)와 중소도시(34.8%, 155명)가 비슷하게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읍면 27.4%(122명), 벽지 2.0%(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력별로 보면 5-9년에 해당하는 교사가 29.4%(13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23.4%, 104명), 10-15년(20.0%, 89명), 21년 이상(18.0%, 80명), 16-20년(8.8%, 3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자녀 유무와 친밀도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있다	240	53.9			
자녀와 친밀도 (1~7)	2	1	.4	6.02	1.031
	3	3	1.3		
	4	19	7.9		
	5	40	16.7		
	6	82	34.2		
7	95	39.6	21.3		
없다	205	46.1			
합계	240	100.0			

응답자의 53.9%(240명)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40명 중 자녀와의 관계를 7점 척도에서 7(매우 친밀하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6%(95명)이었고 6으로 답한 사람은 34.2%(82명), 5라고 응답한 사람은 16.7%(40명)로 그 뒤를 이었다. 4(보통이다)와 3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7.9%(19명), 1.3%(3명)로 드물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교사들의 90.5%(217명)가 5(자녀와 친밀하다) 이상의 친밀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는 교사들의 자녀와의 친밀도는 평균 6.02(표준편차 1.031)로 교사들은 자녀들과 매우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다.

<표 III-4> 학생 이해 정도

구분 (1~7)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학교 급	근무 지	자녀 유무	교육 경력
2	3	.7	5.17	.921	t = .873	t = 2.455* 초등 >중등	F = 2.986*	t = 3.787* 유>무	F = 4.471* 10년 이상 >5년 미만
3	14	3.1							
4	73	16.4							
5	193	43.4							
6	138	31.0							
7	24	5.4							
합계	445	100.0							

\*p<.05

교사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학생 이해 정도는 7점 척도에서 5(잘 안다)가 43.4%(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31.0%, 138명), 4(16.4%, 73명)가 뒤를 이었으며 7(매우 잘 안다)로 답한 교사(5.4%, 24명)와 학생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3(3.1%, 14명)과 2(.7%, 3명)로 응답한 교사도 일부 있었다. 잘 안다(5~7)는 응답은 79.8%(355명)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이해 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5.17(표준편차 .921)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남·녀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 이해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초등·중등의 학교급( $t = 2.455, p = .014$ ), 대도시·중소도시·읍면·벽지의 근무지( $F = 2.986, p = .031$ ), 자녀 유무( $t = 3.787, p = .000$ ), 교육경력( $F = 4.471, p = .001$ )에 따른 교사의 학생 이해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èffe의 사후분석 결과, 학교급에서는 초등이 중등보다 높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5년 미만의 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

구분 (1~5)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학교 급	근무 지	자녀 유무	교육 경력
2	6	1.3	4.07	.650	$t =$ 1.419	$t =$ .877	$F =$ 2.167	$t =$ 3.690* 자녀 유>무	$F =$ 2.891
3	61	13.7							
4	273	61.3							
5	105	23.6							
합계	445	100.0							

\* $p < .05$

학생 이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점 척도에서 4(노력한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61.3%(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5(매우 노력한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3.6%(105명)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3이라는 응답(13.7%, 61명)이 많았다. 하지만 2라고 응답한 교사(1.3%, 6명)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조사 대

상 교사의 84.9%(378명)가 학생 이해를 위해 노력(4~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4.07(표준편차 .650)로 교사들은 학생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사의 성별, 학교급, 근무지역, 교육경력에 따른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에 유의미한 차이( $t = 3.690, p = .000$ )가 있었다. Schèffe의 사후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수업을 제외한 학생과의 대화 시간**

구분	빈도	백분율
10분 미만	28	6.3
10분 이상 20분 미만	72	16.2
20분 이상 30분 미만	137	30.8
30분 이상 40분 미만	91	20.4
40분 이상	117	26.3
합계	445	100.0

하루 중 수업시간을 제외한 학생과의 대화시간은 20분 이상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0.8%(13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분 이상(26.3%, 117명), 30분 이상 40분 미만(20.4%, 91명), 10분 이상 20분 미만(16.2%, 72명), 10분 미만(6.3%, 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분 이상 학생과 대화를 하고 있는 교사는 77.5%(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 평균 30분 미만으로 학생과 대화를 하고 있는 교사도 53.3%(237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하루 평균 대화 학생 수

구분	빈도	백분율
5명 이내	125	28.1
6-10명	174	39.1
11-15명	92	20.7
16-20명	34	7.6
21명 이상	20	4.5
합계	445	100.0

하루 평균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수는 6-10명이 39.1%(17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명 이내(28.1%, 125명), 11-15명(20.7%, 92명)이 뒤를 이었다. 16-20명은 7.6%(34명), 21명 이상은 4.5%(20명) 이었다. 전체 응답 교사의 87.9%(391명)가 하루 평균 15명 이하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육(연수) 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연수 경험 있다	284	63.8
효과	있었다	233
	없었다	49
	무응답	2
연수 경험 없다	161	36.2
합계	445	100.0

전체 응답자의 63.8%(284명)가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육(연수)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육(연수)을 받은 교사 284명 중 연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82.6%(233명)이었고 17.4%(49명)는 교육(연수)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445명 중 36.2%(161명)는 학생 이해와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학생 이해와 관련한 정보원(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백분율
	N	백분율	
개인적 경험(자신의 성장 과정, 자녀 양육 경험, 교직 경험 등)	171	37.3	62.6
방송매체의 관련 프로그램	117	25.5	42.9
교육청·학교 주관 연수 프로그램	90	19.6	33.0
사설 민간 업체 주관 연수 프로그램	44	9.6	16.1
대학 및 대학원 강좌	23	5.0	8.4
기타	14	3.1	5.1
합계	459	100.0	168.1

학생 이해와 관련한 정보는 개인적 경험(62.6%, 171명)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의 관련 프로그램(42.9%, 117명)과 교육청·학교 주관 연수 프로그램(33.0%, 90명)은 그 뒤를 이었으며 사설 민간 업체 주관 연수 프로그램(16.1%, 44명)과 대학 및 대학원 강좌(8.4%, 23명)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터넷 기사, 카페나 블로그의 글, 도서, 상담과정, 학생과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학생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10> 학생을 이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지도	372	83.6
진로지도	46	10.3
학습지도	16	3.6
기타	9	2.0
무응답	2	.4
합계	445	100.0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지도(83.6%, 3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10.3%, 46명)와 학습지도(3.6%, 16명)에서 겪는 어려움은 생활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모두 다, 삶의 문제, 생활 및 진로, 소인수라 없음, 인성지도, 학부모의 교육관으로 인한 학생의 돌발 또는 비사회적 행동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11> 학생 이해가 어려운 원인**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자신	165	37.1
사회	101	22.7
학교문화	70	15.7
학생	69	15.5
기타	38	8.5
무응답	2	.4
합계	445	100.0

교사들이 학생을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은 교사 자신(37.1%, 16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22.7%, 101명)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문화(15.7%, 70명)와 학생(15.5%, 69명)은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가정, 학부모,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성장환경, 교사·학생·학부모의 가치관 차이, 교사와 학생의 괴리, 세대차이, 교생기간이 너무 짧음, 정보 부족, 학생과 교사 모두 책임, 학생·교사·사회 모두 책임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12> 학생 이해를 방해하는 교사 관련 요인(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업무 부담	248	34.3	56.1
가정에서의 성장 경험	191	26.4	43.2
교직에서의 경험	147	20.3	33.3
학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험	133	18.4	30.1
기타	5	.7	1.1
합계	724	100.0	163.8

교사와 관련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업무 부담(스트레스, 시간 및 여유 부족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6.1%, 248명). 가정에서의 성장 경험(예: 착한 아이, 촉망받던 아이로 자라온 경험, 가정의 양육 분위기 등)은 43.2%(191명)로 나타났고 교직에서의 경험(예: 문제학생과 갈등, 학생에 대한 선입견 등)이 33.3%(147명), 학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험(예: 착한 학생, 모범생으로 학창시절을 지낸 경험, 학교에서의 기대, 학교에서의 상처 등)이 30.1%(133명)로 뒤를 이었다.

**<표 III-13>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의 요인(속성)**

구분	빈도	백분율
가정환경과 종교(특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학생 등)	160	36.0
학습 부진과 장애(신체 적인지적 심리적 발달 상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	127	28.5
성격(내향적, 외향적 학생 등)	95	21.3
성별(여교사로서 남학생, 남교사로서 여학생)	45	10.1
기타	11	2.5
무응답	7	1.6
합계	445	100.0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요인(속성)으로는 가정환경과 종교(특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 등)가 36.0%(160명)로 가장 많았고 학습 부진과 장애(신체적·인지적·심리적 발달 상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가 28.5%(127명)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격(내향적, 외향적 학생 등)이 21.3%(95명), 성별(여교사로서 남학생, 남교사로서 여학생)이 10.1%(45명)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학생, 도덕성 결여, 말이 안통하는 학생, 부모님의 막연한 보호 안에서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 생활태도, 학습방해(태도)라는 응답도 있었다.

초·중등 학교급별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은 다음의 <표 III-14>, <표 III-15>, <표 III-16>와 같았다.

**<표 III-14>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구분	빈도	퍼센트
1학년	50	18.9
2학년	21	7.9
3학년	7	2.6
4학년	11	4.2
5학년	19	7.2
6학년	157	59.2
합계	265	100.0

초등학교 교사들은 6학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2%(157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으로 6학년을 선택하였고 1학년은 18.9%(50명)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2학년(7.9%, 21명)과 5학년(7.2%, 19명), 4학년(4.2%, 11명)과 3학년(2.6%, 7명)의 순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중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구분	빈도	백분율
중학교 1학년	16	21.3
중학교 2학년	50	66.7
중학교 3학년	9	12.0
합계	75	100.0

중학교 교사들이 선택한 이해하기 어려운 중학교의 학년은 2학년이 66.7%(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21.3%, 16명)과 3학년(12.0%, 9명)이 뒤를 이었다.

**<표 III-16>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년**

구분	빈도	백분율
고등학교 1학년	57	57.6
고등학교 2학년	37	37.4
고등학교 3학년	5	5.1
합계	99	100.0

한편,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학년 중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57.6%, 57명)는 응답을 보였고 2학년이 37.4%(37명)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학년은 5.1%(5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17> 학생 이해에 저해가 되는 학교 문화(복수 응답)**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입시 위주의 교육	327	46.8	74.0
권위적 분위기	181	25.9	41.0
교직 풍토	106	15.2	24.0
전통적 사제관	55	7.9	12.4
기타	29	4.2	6.6
합계	698	100.0	157.9

학생 이해에 저해가 되는 학교 문화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교과 중심 학교생활 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74.0%, 327명). 권위적 분위기(어른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등)는 두 번

째로 많은 41.0%(181명)로 나타났고 교직 풍토(기선 제압, 학생에게 정주면 상처 받는다는 선배교사의 충고 등)와 전통적 사제관(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생각 등)은 각각 24.0%(106명)와 12.4%(55명)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고교 합격만 하면 졸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행동, 과중한 업무로 학생과 대화 및 상담 시간이 부족함,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 학생들의 사고방식,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것,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줄 수 없는 분위기, 본인 자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학부모,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풍조 등의 응답이 있었다.

#### 나.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

<표 III-18>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복수 응답)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	284	38.1	64.1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	221	29.7	49.9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	156	20.9	35.2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	73	9.8	16.5
기타	11	1.5	2.5
합계	745	100.0	168.2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으로는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가 64.1%(284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가 49.9%(221명)로 높게 나타났고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은 35.2%(156명)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은 16.5%(73

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문제 학생을 대하는 구체적·효율적 방법 제시 및 공유, 감정(상담) 코칭 기술, 가정결손 등 부모의 성향, 가정환경과 연관되는 학생의 특성 및 심리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II-19>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복수 응답)**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	260	32.1	58.8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대화법)	166	20.5	37.6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	152	18.8	34.4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96	11.9	21.7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	94	11.6	21.3
학생 관찰 기록 방법	37	4.6	8.4
기타	4	.5	.9
합계	809	100.0	183.0

교사들은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에 가장 높은 응답(58.8%, 260명)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대화법)은 37.6%(166명),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는 34.4%(152명)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학생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21.7%(96명),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은 21.3%(94명)로 나타났고 학생 관찰 기록 방법은 8.4%(37명)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 밖에도 교사 스스로를 이해하기, 가정의 화목도 및 결손 등의 답이 있었다.

**<표 III-20>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	224	53.3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83	19.8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	75	17.9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33	7.9
기타	5	1.2
합계	420	100.0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53.3%(2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은 각각 19.8%(83명)과 17.9%(75명)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7.9%(33명)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 밖에 가정 상황과 부모의 성향을 먼저 알고 아동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음 절은 학생 이해와 관련된 연수의 요구도를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중·고등)학교 교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 1) 초등학교 교사

**<표 III-21>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초등)**

구분(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	164	36.9	61.2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	132	29.7	49.3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	98	22.0	36.6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	42	9.4	15.7
기타	9	2.0	3.4
합계	445	100.0	166.0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학생 관련 내용으로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를 61.2%(164명)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49.3%(132명)가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를 선택하였고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 36.6%(9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15.7%, 42명)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의 초등교사 응답으로는 문제 학생을 대하는 구체적·효율적 방법 제시 및 공유, 감정(상담) 코칭 기술, 가정결손 등 부모의 성향, 가정환경과 연관되는 학생의 특성 및 심리 등이 있었다.

**<표 III-22>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초등)**

구분(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	158	32.7	59.2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대화법)	104	21.5	39.0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	86	17.8	32.2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57	11.8	21.3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	49	10.1	18.4
학생 관찰 기록 방법	26	5.4	9.7
기타	3	.6	1.1
합계	483	100.0	180.9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을 가장 많이(59.2%, 158명) 선택하였다.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대화법)은 39.0%(104명)으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32.2%, 86명)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21.3%, 57명),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18.4%, 49명)이 뒤를 이었고 학생 관찰 기록 방법에 대한 응답은 9.7%(2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교사 스스로를 이해하기, 가정의 화목도 및 결손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II-23>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초등)**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	138	52.9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52	19.9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	48	18.4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22	8.4
기타	1	.4
합계	261	100.0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52.9%, 138명)을 가장 많이 뽑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이 19.9%(52명)와 18.4%(48명)로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보였다. 하지만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8.4%(22명)로 가장 적은 응답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가정 상황과 부모의 성향을 먼저 알고 아동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 2) 중·고등학교 교사

**<표 III-24>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관련 내용(중등)**

구분(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	120	40.0	68.6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	89	29.7	50.9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	58	19.3	33.1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	31	10.3	17.7
기타	2	.7	1.1
합계	300	100.0	171.4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학생 관련 내용으로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68.6%, 120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문제 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는 50.9%(89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과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이 33.1%(58명), 17.7%(31명) 뒤를 이었다.

**<표 III-25>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중등)**

구분(복수 응답)	응답		케이스 백분율
	N	백분율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	102	31.3	58.3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	66	20.2	37.7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 대화법)	62	19.0	35.4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	45	13.8	25.7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39	12.0	22.3
학생 관찰 기록 방법	11	3.4	6.3
기타	1	.3	.6
합계	326	100.0	186.3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58.3%, 102명). 다음으로는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37.7%, 66명)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담 대화법)(35.4%, 62명)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각각 25.7%(45명)과 22.3%(39명)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학생 관찰 기록 방법은 6.3%(11명)에 불과하였다.

**<표 III-26>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중등)**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	86	54.1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31	19.5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	27	17.0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11	6.9
기타	4	2.5
합계	159	100.0

학생 이해를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54.1%, 86명). 다음으로는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19.5%, 31명),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17.0%, 27명),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6.9%, 11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5. 논의 및 시사점

전국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이해 정도, 학생 이해 노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학교급, 근무지, 자녀 유무, 교육 경력에 따른 학생 이해 정도와 자녀 유무에 따른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이해 정도는 학교급과 근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등학교보다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운영되고 중등학교는 교과별 담임제로 운영되는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학생의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무 지역에 따른 학생 이해 정도의 차이는 교사들의 학업 강조 정도, 학생의 수업 태도, 학생들의 규율위

반 정도 등 학구적인 풍토변인들이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박성호(2012)의 연구와 관련지을 수 있다. 학생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교사들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기선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규모가 적은 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었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역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의 질을 따질 수는 없지만 학생과 대면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학생 이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 교사의 경우 학생 이해 정도와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에서 자녀가 없는 교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를 기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직간접 경험이 교실에서의 학생을 대하는 상황과 중첩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직접 대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학생 이해를 위한 인식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교육 경력에 따라서는 학생 이해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 교사는 5년 미만인 입직기 교사에 비해 학생 이해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는 발령 후 처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서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것들 실제와 조절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이지만 2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십 년간 교육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베테랑으로서 학생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의 학생과의 대화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가 30.8%였고 30분 미만으로 대화한다는 응답은 53.3%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근무시간 중 30분 미만의 시간을 학생들과 대화에 사용 한다는 것이다. 수업 중에는 학생과의 깊은 대화 또는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 중 한명은 하루 중 30분 미만이라는 짧은 시간동안만 학생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응답 교사의 87.9%가 하루 평균 15명 이하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년)에 따르면 2010년 학급 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27.5명, 전기중등교육기관의 경우 34.7명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급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 절반의 학생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교사들과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 업무 부담(56.1%), 가정환경과 종교(36.5%, 160명), 입시 위주의 교육(74.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학생이 성장하게 되는 가정의 맥락을 학생 이해와 관련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이해의 저해 요인으로 학부모라 응답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가정환경과 학부모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은 가정환경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의 부담(56.1%)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교사들이 학생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함께하며 대화나 감정을 교류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로 인해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시 위주 교육(74.0%) 역시 학생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주지교과 위주의 학력 향상에만 매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오롯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사제동행의 자리는 마련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네 가지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5점 중의 4점 이상)라고 응답한 교사가 84.9%나 된 점을 생각해 볼 때 교사들은 학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생 이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실 연수원(16.1%)보다는 교육청 주관 연수에서 학생 이해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33%)이 배나 많은 점을 볼 때 학생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생 이해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학생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도 자신의 가정에서 성장 경험이 많은 영향(43.2%)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장기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났거나 문제아와는 거리가 먼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생에 대한 사고는 고정적이거나 편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이해를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사 자신을 돌아보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 이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한 내용으로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64.1%), 정서적 교류 방법(58.8%),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53.3%)을 뽑았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의 요구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학생들의 또래 문화와 청소년의 집단 심리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학생 이해가 어려운 학년이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중학교의 경우 2학년,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이 학년에 대한 또래 문화와 집단 심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의 학생을 이해한다는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이해 정도에 있어서 잘 안다는 43.4%, 보통 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96.2%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통 이상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교육과 학생에 대한 전문가로서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이해받고 있는 학생은 학교를 떠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학생이 4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 또한 고민 상담의 대상으로서 교사를 최하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교육과학기술부, 2012)로 꼽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들은 ‘나는 과연 학생을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 이해가 어려운 원인으로 상당수의 교사가 자신의 문제(37.1%)에서 찾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학생 이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교사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IV

---

### 학생 이해에 관한 교사·학생 심층 면담

1.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2.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 IV. 학생 이해에 관한 교사·학생 심층 면담

### 1.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지를 구안하였다. 면담지 문항은 학생 이해 정도와 학생 이해의 정의, 현황, 학생 이해 어려움의 원인, 유형, 그리고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방안과 연수에 대한 요구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학생 이해의 정도는 척도질문(1~10)점으로 구성하여 교사 자신의 학생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이해의 현황과 실태, 학생 이해 어려움의 원인과 유형, 학생 이해를 위한 방안과 연수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상황을 묻는 기적질문을 추가하였다. 교사 심층 면담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교사 대상 심층 면담지

번호	질문내용	비고
1	선생님은 스스로 학생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질문
2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생들을 잘 이해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정의
3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재 하고 계신 활동들이 있나요? 어떤 것인가요?	현황
4	그 활동들이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실태
5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형
6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
7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노력
8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방안
9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요구
10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를 받게 된다면 선호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주제와 연수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요구
11	아침에 등교했더니 기적처럼 학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선생님의 혹은 학생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질문

### 가. 면담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면담참여자는 총 7명으로 학교 급별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3명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들의 학생 이해의 정도는 3~10점으로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참여자의 나이 또한 4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고루 분포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년 경력의 여교사가, 중학교는 각각 15년, 25년 경력의 남교사가, 그리고 고등학교는 25~30년 경력의 남교사가 면담에 참여하였다.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라는 점이다. 면담 참여자의 교육경력, 근무지, 학교에서의 보직담당여부, 학생과의 갈등, 학생 이해 정도 등의 특이사항을 비교란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경력에 따른 교사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임교사 1명과 경력 3년의 초등 교사를 추가적으로 면담하고 구체적인 면담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V-2>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학교 급	구분	학생 이해 정도 (1~10점)	나이	성별	교육 경력	비고
초등학교	E-1	7.5점	30대 후반	여	12년	농어촌 지역근무
	E-2	8점	30대 후반	여	15년	학생과 갈등경험
중학교	M-1	8점	40대 초반	남	15년	혁신학교 교사
	M-2	10점	50대 중반	남	25년	생활지도의 달인
고등학교	H-1	3점	60대 초반	남	30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
	H-2	8점	50대 초반	남	25년	수년간 고3부장
	H-3	10점	50대 초반	남	28년	생활지도의 달인

## 나. 초등학교 교사

### 1) 교사 E-1

면담참여자 E-1 교사는 농어촌 지역의 일반 초등학교 여교사이다. 현재 2학년 을 담임중인데 12년 동안 주로 고학년 담임을 한 후 오랜만에 저학년을 맡았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충대충 나태한 모습을 참지 못하 여 남학생 지도를 힘들어 한다. 현재 4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있다.

<표 IV-3>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교사 E-1 (여)	초등	30대 후반의 여교사. 주로 고학년 담임이나 전담수업을 해왔음. 현재는 2학년 담임으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 고 대충대충, 나태한 모습을 참지 못하여 남학생 지도를 힘들어함.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단순 이해를 넘어 문제 해결자로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잘 이해한다는 의미에 대해 E-1 교사는 개개인의 기 본 특성이나 성향뿐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민 등에 대한 대 안이나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E-1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개개인의 성향, 성격, 특기와 소질, 개성, 장단점 등을 잘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물리적, 정신적 문제점이나 고민 등을 파악하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할 점들을 적시에 조언해 주는 등 학생 개개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가까이 관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E-1 교사)

E-1 교사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재 방과후 개별 상담 활동, 각종 조사지 활동, 일기 검사를 통한 코멘트 주고받기, 교환 편지 주고받기 등을 하고 있는데,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며 교사와 학생간의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E-1 교사는 학생들을 잘 이해한다는 의미로 학생에 대한 단순 이해자의 역할에서 대안이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학생을 잘 이해하는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 (2) 학생 이해를 위한 현실적 어려움

E-1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시공간적 제약과 세대 간에 존재하는 정서적 괴리감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1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 :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 면담이 이루어지므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교실 이외에는 별다른 공간이 없어 다른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주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이 큼니다. 또한 방과 후에 빠듯한 학원 시간과 기타 교육활동시간이 이미 짜여져 있어 개별 면담시간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우며 교사의 잡무 시간도 많이 할애되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여겨집니다. (E-1 교사)

② 또한 교사와 학생 세대간에 존재하는 정서적인 괴리감(일명 세대차이)이 느껴질 때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짙게 느껴지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E-1 교사)

E-1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방과 후에도 교사와 학생이 나름대로 서로 바빠 시간을 맞추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 확보가 쉽지 않으며, 교실 이외에는 공간이 없는데 청소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장소제공 등의 이유로 공간적 제약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디지털 문화에 빠르고 자연스러운 학생들의 세대와는 말투, 표정, 몸짓 등이 거슬리게 여겨지는 때가 많고 이러한 감정상의 문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엔 교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처럼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려 하며, 왕따나 기타 교우관계, 신변보호 등의 구실로 조사지 등을 통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드러내려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의 한계가 점점 학생들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학생과의 진정한 대화와 만남**

E-1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으로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 지속적인 관심과 가정과의 긴밀한 연락, 학생을 위해 선뜻 시간을 만들어 내는 교사의 책무성, 정보화 사회에 발 빠른 적응 및 학생 또래 계층만의 문화 탐색 및 인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생활조사지 활동을 벌여 지속적으로 관찰, 체크하는 것 등이 가장 필요하다. (E-1 교사)

E-1 교사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의 방법 이전에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인 학생과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E-1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른 대안은 실제적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2) 학생 이해를 위한 소통 매체의 활용

E-1 교사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학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사와 학생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소통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E-1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일기장 검사가 꽤 효과가 좋은 학생 이해 수단이 된다고 한다. 교사에게 직접 말로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의 문제나 학급 내에서의 문제, 또는 개인의 신변 문제 등을 적거나 고민하는 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지속적으로 일기장 내용에 신경을 쓰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살짝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문제 해결 및 관계 형성을 돕기도 한다. (E-1 교사)

## (3) 정서적 관계와 진정성

E-1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 진전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 교사의 변화된 모습 : ① 학생에 대한 교사의 밝아진 표정과 긍정적 몸짓, 실제로 좁혀진 거리감, 격의 없이 나누는 가벼운 농담과 웃는 모습 등이 엿보일 때, ②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고 학생의 의견을 묻고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③ 학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뜻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E-1 교사)

- 학생의 변화된 모습 : ① 교사에 대한 인사, 눈을 맞추고 웃는 표정, 예의를 갖춘 말투와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집중하려는 태도, 교사에게 다가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먼저 건네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등이 엿보일 때, ② 교사를 무조건 고리타분한 지시를 내리는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나와 뭔가 이야기가 통한다거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바꾸었을 때, ③ 교사의 조언이나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E-1 교사)

E-1 교사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교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학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학생 존중과 관심,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진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E-1 교사는 교사와의 친근한 태도 및 행동, 배움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 등의 모습이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 (4) 실질적인 학생 이해를 위한 근무 여건의 조성

E-1 교사는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를 위해 교육 당위론적 접근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1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학생 이해를 무조건 교사 개인의 몫,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 당국 차원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 상담 시간을 교사의 수업 시간처럼 보장해 준 다든지, 자유롭게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이 그것이다. 현실의 교사 학생 간 분위기는 너무도 딱딱하고 때론 살벌하기까지 하니까 말이다. 또한 상담 공간의 확보, 업무 경감 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지원 항목이다. (E-1 교사)

## 2) 교사 E-2

면담참여자 E-2 교사는 60만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 중소도시의 일반 초등학교 교사이다. 현재 1학년을 담임중인데 지난 1학기 6학년 담임 중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담임을 교체하였다. 마음씨 착하고 여린 E-2 교사의 일이기에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민했었다고 한다. E-2 교사에게는 2학년인 딸과 1학년인 아들이 있다.

**<표 IV-4>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E-2 교사(여)	초등	30대 후반의 여교사, 남매의 어머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며느리, 이해심 넓은 좋은 교사라는 주변의 평과는 달리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해 담임을 교체한 경험이 있음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학생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기

E-2 교사는 8점 정도로 너그러운 점수를 자신에게 주었다. 무엇이 학생을 이해하는 것일까?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E-2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아이들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런 게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E-2 교사)

E-2 교사는 공감 능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해의 바탕에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함께 동의해주는 과정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에 동감해주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큰 틀에서 학생 이해로 정의하고 있었다.

## (2) 학생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E-2 교사는 망설임도 없이 학생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생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소통의 의미라고 하면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이해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소통한다고 하는 구체적 양상에 대해 E-2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금 1학년 담임이에요.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끊임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손잡고 가려고 하고 싶으면 손잡아주고, 동생 얘기, 아빠 얘기 등 이야기하고 싶은 걸 끝까지 들어줘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저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고, 잡아주고 그런거거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E-2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임하는 E-2 교사는 학생을 베푸는 대상, 받아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여 교사가 받아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2 교사는 올 1학기의 6학년 학생과의 소통 실패로 인한 경험이 학생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사는 어느 순간에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올해 한번 실패했잖아요. 고학년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학생들이 해달라는 것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수영장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한참 수영복 입기 싫어할 나인데, 수영복 이외에 못입게 되어있는 수영장 규정을 들어서 제가 걸옷을 못 걸치게 했거든요. 거기서 한 아이가 폭발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어요. 저는 그저 원칙을 주장했을 뿐인데, 좋은 거잖아요. 규칙지키는 거.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했던 거더라구요. (E-2 교사)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교사의 타고난 성품과의 싸움 : 교사로서 거듭나기

교사 역시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은 존재이다. E-2 교사는 교사로서의 성장과정, 발달과정에 대해 회상하곤 하였다. 학생과의 불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학생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는 E-2교사는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강조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타고난 성품 또는 양육 및 성장과정에서 길러진 성격의 변화가 어려웠다고 고백하였다.

수영장 문제를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규칙을 안 어겨 봤거든요. 어른이 하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또 규칙은 지키라고 정해진 것이니까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늘 앞서잖아요. 저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을 담당하게 한 것 같아요. 원칙을 강조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여린 마음이 부딪친 거죠. (E-2교사)

학생 이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제 성격과 관련된 것 같아요. 소심하고 남에게 잘 맞춰주는 제 자신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남의 흉내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제 성향, 성품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제 것도 일부 포기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E-2교사)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어의 제언

##### (1) 감성코칭기법

학생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E-2 교사는 자신이 실패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성품

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족에 기인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수가 생긴다면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상담에 관심을 많았어요. 작년에 학생들과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저것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감성코칭 이런 과정이 참 저와 딱 맞는데,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좀 저렴하게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연수가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다양한 사례도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어려운게 아니구나. 모두 비슷하게 힘들구나 하면서 힘을 얻게 될 것 같아요. (E-2 교사)

E-2 교사는 교사들이 학생 이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위로할 수 있도록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을 풀 힘도 생길 거라는 이야기였다.

E-2 교사의 사례는 교사가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자신에게 오점이 될 것이라 여긴 학생과의 소통 실패가 지금은 좋은 약이 되어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교사들 과도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연수에서 제공되어도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감성코칭 기법 등 구체적인 학생과의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 교사의 소통 능력을 배가하는 연수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 중학교 교사**

### **1) 교사 M-1**

M-1 교사는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 학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 15년의 부장교사이다.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특별히 수업 시간을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강조하였다.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게 되는데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 IV-5>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M-1 교사(남)	중학교	40대 남교사. 혁신학교의 학생부장, 학생 이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업을 강조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설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1) 학생의 마음을 읽고 받아주는 것**

M-1교사는 학생의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8점이라고 대답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받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라 본다고 하였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을 받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M-1 교사)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 M-1교사는 항상 학생들이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방과 후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카톡과 페이스북을 활용한다고 해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수업이 외의 만남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듣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신장을 위해 방과 후에 라면상담을 하기도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M-1 교사)

최근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점이 바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같은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겉으로 잘 들어 내지 않고 학생들의 표현도 거칠어지면서 선생님들의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해가 어렵다고 봅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의 영향이 투영된다고 보고 교사들의 심리적인 상태 역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어 보지 못하고 자람으로 인해서 역지사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M-1 교사)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수업을 변화시키는 노력**

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아마도 수업시간일 것이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게 되는데 M-1교사는 이 수업시간이야말로 학생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수준별 수업, 소외 없는 학생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평등하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업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배움중심 수업은 교사주도가 아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배움중심 수업입니다. (M-1 교사)

M-1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이야말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추천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항상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비폭력 대화기법을 익혀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배움중심 수업설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어의 제언**

##### **(1) 배움중심 수업설계**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가 배움 중심 수업설계를 실천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읽기와 같은 주제를 참여형 혹은 토론형 연수로 진행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천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비록 학생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학생들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긍정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담기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움중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또는 토론형태의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1 교사)

## 2) 교사 M-2

면담참여자로 추천된 M-2교사는 수년간 중학교 학생부장으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맡고 있다. 학생 이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수줍게 10점이라고 응답한 M-2교사는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학생 이해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 학생 등교 시 교문에서 친절하게 맞아주기, 휴대폰 문자를 통해 학생들과 끊임없는 의사소통하기 등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표 IV-6>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M-2 교사(남)	중학교	50대 중반. 교육경력 25년의 학생부장 교사 . 최근 생활지도의 달인으로 소개되었음. 매일 학생 등교 시 교문에서 학생들을 만남.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늘 문자를 주고받음.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

M-2교사는 자신의 학생에 대한 이해 정도를 10점이라고 응답하면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중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어려움(예를 들어, 학교 폭력, 왕따)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연락하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도 강조하였다.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함으로써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학생등교지도, 급식지도,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 만남입니다. (M-2 교사)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교사의 지지지 않는 열정**

학생들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 M-2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선생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해결해줌으로써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일로 받아들여 피곤하게 생각할 경우, 쉽게 지쳐 결국, 학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은 교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M-2 교사)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어의 제언**

##### **(1)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체험**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의 주제와 방식에 대한 질문에 M-2교사는 거침없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이들과 숙박을 하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천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해결해줌으로써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일로 받아들여 피곤하게 생각할 경우, 쉽게 지쳐 결국, 학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M-2 교사)

## 라. 고등학교 교사

### 1) 교사 H-1

면담참여자로 추천된 H-1교사는 지난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명예 퇴직한 경력 30년의 남교사이다. 담당과목은 수학이었으며,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를 이동해본 경험을 없다. 연구자는 H-1교사와 몇 년간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안학교의 특징을 가진다는 P학교 본질과 생각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동감하며 실천하는 선생님이로 기억한다. 함께 정년퇴임을 맞은 아내와 함께 산다는 H-1교사에게는 P학교에서 평생을 함께한 교육동지로서 아내와, 교육학을 전공하는 딸, 딸의 두 손녀가 다양한 경로로 교육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P학교는 충남에 위치한 농업을 강조하는 고등기술학교로서 성서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것을 교훈으로 하는 사립학교로 교사 13명, 강사 14명, 전교생은 90명 남짓으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표 IV-7>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H-1 교사(남)	고등	60대 남교사 대안학교와 유사한 P학교의 교장, 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얻은 이해의 노하우가 풍부하고, 학생 이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학생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기

H-1교사는 학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10점의 척도로 말한다면 3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학생들끼리의 이야기 '베갯머리 송사'까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입니다. 읽어내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에 공감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H-1 교사)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에 공감하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H-1교사는 학생들을 교사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방법을 조언한다. 학생들의 교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이야기만 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단서를 잡을 수 없다.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H-1교사는 강조하였다.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아이가 특특 던지는 말이라도 다 믿으면, 그 아이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풀무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우리 말을 믿어줘' 라는 생각이 공유되면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한 개인의 선생님에게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로 집단적으로도 내어 놓는 일이 가능합니다. (H-1 교사)

마음을 읽고 읽은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여러 번의 한계가 있고 또 배신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H-1교사가 내어 놓는 해법은 언제나 단순하다. 한계를 짓지 말고, 끝없이 믿어주며 학생보다 더 큰 변

명을 학생대신 해보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이 교사의 마음 읽기와 공감의 과정을 거쳐 울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또 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의 일을 예로 들면서 H-1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선생님들은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하고 배신감 느끼죠.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교활하고 나쁜 아이인가? 그렇지 않은 거다.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간 사정을 선생인 내가 찾아주는 거죠. 아이가 변명하기 전에 선생인 내가 아이의 변명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내 안에다가. '개가 내 앞에서 어떻게 계속 피울 겁니다 할 수는 없었을 거야. 나와 상담하는 중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 피우고 싶었던 마음을 못 견뎠을 거야. 친구들 때문 일거야 그랬겠지. 그럴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어.' 그게 결국 공감이라고 생각하구요.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내가 못 견뎌서 저지른 일도 인정해주시고 덮어주시려하는 구나 그렇게만 되면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아이가 할 변명 이상의 변명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보는 것, 제 경험에서 보면 늘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순간에는 저도 진심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H-1 교사)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후의 변화에 대해 H-1교사는 당겨진 고무줄이 다시 되돌아올 때는 당겨졌던 팽팽함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비유를 들었다. 고무줄은 일종의 관계의 끈이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그 끈만 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오듯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때 교사가 느낄 한계에 대한 번민을 H-1 교사는 종교적 신념으로 승화시켜야 할 정도로 큰 믿음이라고 강조하였다.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학교 문화의 변화: 공동체성 지니기

교사의 개인적 성장 과정, 교사로서의 발달 경험 등 교사와 관련된 변인으로 인한 학생 이해의 어려움, 학생의 특성, 학생과 교사의 차이와 다름에서 오는 이해의 어려움, 교직 문화가 갖는 학생 이해의 어려움 중 H-1교사는 학교 문화와 맥락적 측면이 학생 이해를 막는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변인이나 학생변인으로 인한 어려움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문화와 맥락은 변화되기가 그보다 쉬운 변인이며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데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담혀있는 겁니다. 왜 담혀있을까? 대부분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한 탓에 담힙니다. 우리 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공동체성을 학급 안에 살려놓으면 인간은 서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H-1 교사)

H-1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실 내의 공동체성 함양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 공동체성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 존재감을 들었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어의 제언

### (1) 교사가 스스로 발견하는 좋은 의사소통

교사는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다. 최근 교사에게

는 지식을 전수하는 일을 가장 많이 요구한다. 지식이 아닌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를 만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H-1 교사는 공감할 수 없는 지식보다는 몸소 느끼는 공감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공자님 말씀에 행위여력 즉위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를 갖추고 힘이 남거든 공부하라는 거지요. 억지로 공감없이 넣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데부터 내가 공감한 곳에서부터 조금씩 넓혀나가야지요. 선생님들도 자기기 원하는 좋은 교실, 좋은 소통의 모습을 그려보고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직접 고등학생이 되어 보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학교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1 교사)

그러나 단순한 사례의 소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는 아무리 우수한 사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연수과정에서도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이벤트를 만들지 말고 교사가 어떤 교실에 좋은 교실인지,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한지 찾고 정말 이런 교실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질 때 그에 적합한 사례를 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H-1 교사는 말하였다.

P 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H-1 교사는 학교라는 조직이 갖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밖에서 P학교가 좋다고 많이들 칭찬하는데, P학교의 구성원의 노력이 아니라 원래 P학교는 그래왔고, 구성원은 거기서 그냥 살면 된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 학생 전체 구성원의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도 이야기하였다.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보다는 오랫동안 숙고하고 끈기 있게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조언하였다.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P학교 H-1교사의 사례는 교사가 학생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열어두고 끊임없이 학생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읽는 것 등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연수 방식으로 연수참가교사의 자율적 방식으로서의 의사소통 탐구와 학생과의 역할 바꾸기, 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식도 조언받을 수 있었다.

## 2) 교사 H-2

H-2교사는 진학지도의 전문가로 10여 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의 경험이 있으면 최근 몇 년간 고3 진학부장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다 보니 진로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찾아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8점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H-2 교사(남)	고등학교	50대 초반의 남교사. 오랫동안의 고3담임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음. 교사입문 초기에 학생들과 많은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고 회상함.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인생의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것

H-2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고민을 잘 들어주고 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H-2 교사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드러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인생의 목표를 함께 찾아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학생들의 다른 다양한 문제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하고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고민을 들어주고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H-2 교사)

최근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교사는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나 고민이 있어도 교사를 찾지 않는 분위기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사는 첫째,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둘째, 학생들의 목표를 찾아주는 진학지도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이 교사를 찾지 않는 이유는 학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 역시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일단은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의 목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2 교사)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교사의 열정과 시간 투자**

H-2 교사는 학생 이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학생들의 관계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대화를 시도할 것을 추천하였다. 특히, 학생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교직에 대해 교사는 직업이라는 직업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목표에 비해 학생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열정을 보여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관계형성에 노력할 것을 추천하였다.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시간을 상당부분 투자해야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학생들의 변화를 꾀하는 직업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이 시간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교직에 들어오는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하다보니 학교라는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생각을 갖다보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책무성에서 보면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과의 의사소통과 학생들의 이해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2 교사)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예의 제언**

##### **(1) 학생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접근**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의 주제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 H-2 교사는 연수의 주제는 실제로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유형에 대한 비디오나 동영상 시청 후 교사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공유하는 참여형 혹은 토론회식 연수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학생 이해와 생활지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대답하였다.

### 3) 교사 H-3

H-3 교사는 생활지도컨설팅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28년 경력의 교사이다. 학생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마 그것은 10점 일겁니다.’라고 허허 웃으시면서 대답하였다. 학생들과의 비폭력대화를 강조하고 학생 이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늘 학생과의 만난다고 대답하였다.

<표 IV-9>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학교급	특성
H-3 교사(남)	고등 학교	50대 초반의 남교사. 학생들의 심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고 특히, 학생들의 우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컨설팅지원단으로 활동하시다보니 학생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함.

#### 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 (1) 학생들의 욕구(관심사)를 읽어주는 것

H-3 교사는 학생 이해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읽어주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행동, 특히 문제행동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숨어있는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학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의 욕구를 읽어주는 것, 그래야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는데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의 의도를 찾으려 노력하고 발견하는 것이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3 교사)

또한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를 읽기 위해서 인터넷 채팅,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이는 학생들과의 소통의 양 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주는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과 솔직히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으며 학생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이해가 되며 결국 교사는 학생문제 해결로 인한 고민을 하는 등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인터넷 공간이 학생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채팅을 하고 소통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멍때리고 있을 때 왜 멍때리고 있냐고 다그치지 않고 방과후 채팅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힘들어보인다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아빠가 집을 나가셨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인터넷 공간은 학생들과 부담 없이 솔직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됨을 느꼈는데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는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3 교사)

#### **나)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 **(1)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H-3 교사는 학생들의 가장 만만한 대상이 교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가장 쉽게 학생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관심끌기→강한 척하기→복수하기→현실도피→자살생각→자살시도와 같은 형태로 발전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우울을 교실에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폭력 등 문제행동이 발생하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행동의 의도를 알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측은해지며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H-3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학생 이해의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학급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 1역할 주기, 수업시간에 역할 주기, 사이버상담, 홈페이지 카페 활동 등의 역할을 할 것을 추천하였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지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교사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 방안이 저비용 고효율의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면대면 상담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 상담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주는 등의 교사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면 교사는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러한 예방방안을 활용한다면 교사로서 에너지를 훨씬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3 교사)

## (2) 긍정을 보는 능력

H-3 교사는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수업시간에 잔다고 해서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학생에게 욕박지르거나 나무라지 않고 '어제 많이 달리셨나요' 라는 한 마디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H-3 교사)

## 다) 교사를 위한 연수예의 제언

### (1) 문제행동의 의도 파악

학생 이해와 관련된 연수주제와 연수방식을 묻는 질문에 H-3교사는 우선,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는 연수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상황(예를 들어, 선생님이 청소하라고 지시할 때 선생님을 어디를 청소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의 상황)을 주고 토론을 하거나 혹은 역할극을 해 보게 하는 방안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대답하였다.

문제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학생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수가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들어주고 선생님들 간의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연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설명을 통한 강의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나 강의실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발표하고 역할극해보는 방식의 연수가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H-3 교사)

## 마. 경력 3년 이하 교사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교사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2명을 함께 면담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을 아래와 같다.

<표 IV-10>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학교 급	학생 이해 정도 (1~10점)	나이	성별	교육경 력	비고
초등학교	7	30대 초반	여	초임	초임교사
	9	30대 초반	여	3년	3년차 교사

면담결과,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이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은 방어적 교육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생활 중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특히, '사고 없이 지나가자, 조용하게 가자, 문제를 만들지 말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교사의 노력은 학부모의 민원이 될 뿐 결국, 이로 인해 교사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므로 아이들에게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의 이해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들은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께 순종해야 하며 학생의 책임은 공부하는 것이므로 공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많이 노는 아이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수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놀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히 고학년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는 학구의 차이, 학교문화와 교사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들은 아이들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변의 말이 판단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6학년은 어려운 학년이다.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심리상태를 잘 모르는데서 오는 이해의 부족, 교사와 학생간의 성장배경과 성장경험의 차이, 그리고 교사의 권위의 심각한 추락을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 이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학생문제의 원인은 가정에 있으므로 해결의 실마리도 가정에서 풀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책을 보거나 또래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다보니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이해를 위해 선호하는 연수주제나 연수방식을 묻는 질문에 연수 주제는 문제학생이해 연수, 상담기법 연수, 학년별 특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들었고 연수 방식은 그룹토의, 역할극, 자기가 잘하는 것 나누기, 소그룹으로 나누기, 잘하는 교사에게 강의 듣기 등이 있었다.

## 바. 논의 및 시사점

학생 이해와 관련된 교사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이해의 정의,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 교사로서 학생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학생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주제와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학생 이해의 정의에 대해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의에는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항상 교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학생 이해는 '단순히 이해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을 통해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욕구를 읽어주는 것, 문제행동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 인생의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린 교사도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교현장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상 개별상담을 할 시간의 부족과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춘 장소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교사 스스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오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교사 자신이 깊이 있게 고민해본 경험이 없어서 오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꼽을 수 있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이 학생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교사와 상의하지 않는 분위기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교사 자신들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학생 상담을 위한 시·공간의 제약은 카톡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터넷 채팅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이해 정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인터넷 공간에서 학생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이야말로 방과 후에 시간에 제약 없이 솔직히 마음을 오픈하고 만날 수 있어 소통의 양과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교사 스스로 겪어보지 못해서 오는 학생 문제 이해의 어려움은 교사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하여 학생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이 되어 역할연기를 해보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서는 교사가 먼저 학생과 학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자신이 술선수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로서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여 학생 이해를 접근하기보다는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생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이었다. 이들은 학생들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결국 학생들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교사의 열정과 시간투자, 교사의 지치지 않는 열정, 비록 문제행동일지라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수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변화 등을 학생 이해의 필수요소로 꼽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의 주제와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기법과 대화의 기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배움중심 수업설계, 비폭력 대화기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연수의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면접 참여자 대다수가 원하는 연수의 방법은 문제학생의 상황에 대해 교사들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는 형태의 연수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제학생과 함께 숙박하면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는 문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비디오로 시청한 후 교사들이 팀별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론한 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수, 그리고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사가 학생이 되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극 연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의 노력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학생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의 문제의 원인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학생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음,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교사는 존경받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학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 방안들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며 교사에게 순종해야하며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10~15년차 교사의 경우,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학생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반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학생 이해 정도와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대체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급 별 교사의 인식의 차이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의 중요성과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사 대상 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기법 즉, 대화의 기법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인터넷 채팅, 카카오톡, 페이스 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활용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이해와 관련한 관계 요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과 감정의 교류, 공감 등의 내용을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방안까지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제유형별 상담전략에 대한 다양한 예방방안과 대처전략에 대한 지식습득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이해의 관련 요소 중 학생 요소와 관계 요소,

교사 요소에서 학생들의 문제 유형, 상담, 갈등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문제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발표하여 서로 공유하는 방식의 연수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반드시 변화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지·심리 및 정서·행동에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이해 관련 요소 중 학생 요소로서 학생의 발달과 심리, 또래문화, 고민, 갈등 등에 대해 배경 지식을 넓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이해

학생 이해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지를 구안하였다. 면담지 문항은 이해 받는 정도와 이해를 잘 해주는 교사, 이해의 현황, 이해의 실태, 유형, 그리고 학생이 바라는 이해의 방안과 요구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교사로부터 이해 받는 정도를 척도질문(1~10)점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이 이해의 현황과 실태, 이해받지 못해 생긴 어려움의 원인과 유형, 학생 이해를 위한 방안과 바라는 점 등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상황을 묻는 기적질문과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를 추가하였다. 학생 심층 면담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학생 대상 심층 면담지

번호	질문내용	비고
1	자신이 선생님들께 이해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질문
2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의
3	그런 선생님이 계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현황
4	혹은 그 반대의 선생님(상처를 준 선생님)이 계셨나요? 역시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실태
5	선생님께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점 인가요?	유형
6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나요?	원인
7	그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나요?	노력
8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안
9	나를 잘 이해해주시기 위해 선생님이 변화될 점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요구
10	아침에 등교했더니 기적처럼 선생님과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선생님의 혹은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질문
11	다음의 장소에서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학교, ② 가정, ③ 학원	학생생활

### 가. 면담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면담참여자는 총 7명으로 학교 급별 초등학교 학생 2명, 중학교 학생 2명, 고등학교 학생 3명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들의 학생 이해의 정도는 5~9점으로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5-6 학년 남, 여 학생이, 중학교는 중 2, 3학년 남, 여학생이, 고등학교는 고1의 남학생 3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모두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면담 참여자의 특이사항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학교 급	구분	학생 이해 정도 (1~10점)	나이	성별	학년	특징
초등학교	A	7점	12	남	초5	학교생활 충실
	B	5점	13	여	초6	모범생, 성적우수
중학교	C	8점	15	여	중2	명랑, 학생생활충실
	D	7점	16	남	중3	우수한 모범생
고등학교	E	5점	17	남	고1	평범한 학생
	F	8점	17	남	고1	표현력이 강함
	G	9점	17	남	고1	학교생활 충실

### 나.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학생들이 표현한 학생들을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학생들의 처지 이해하고 존중하기, 들어주고 소통하기, 인정하고 기회주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 1) 처지이해하고 존중하기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처지를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태도일 것이다. 학생들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의미를 ‘처

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답하였다.

사람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은 좋았던 상태의 열흘을 보는 것보다 나빴던 상태의 하루를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선생님께는 나의 나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하게 배려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충분히 배려 받고 있고, 입장을 잘 이해받고 있어요. (학생 A)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주는 선생님

나의 의견을 궁금해 해 주시고 내가 내세운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

너무 자신의 틀에서만 학생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주지 않으시고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것. (학생 B)

학생들을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 (학생 C)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시고 알아주시는 것. (학생 D)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자신을 이해해 주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며, 나의 의견이 선생님께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존재가 선생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학생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들어주며 소통하기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소통이 수월한 선생님, 말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선생님, 무작정 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이해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니 너의 상태는 어땠니 하면서 학생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학생 B)

저희를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못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 E)

생각을 살펴 주시고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분

귀 기울여 주시며 고민이 생겼을 때 잘 들어주시는 분, 그럴 때 행복해요. (학생 F)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해 주는 것을 학생을 이해하는 태도로 보았다. 학생들의 자신의 생각과 고민과 처지를 선생님 께서 귀 기울여 들어줄 때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니 너의 상태는 어땠니’ 하면서 학생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일방적인 성인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해받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다.

### 3) 인정하고 기회주기

‘학생들은 칭찬받고 싶은 심정으로 학교에 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다인수 학급에서 매일 개별적인 칭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이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로 파악도 도와주시구요. (학생 F)

저희의 자율성을 존중하시면서 저희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 E)

강압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학생 C)

반론할 기회를 주시는 분, 그리고 판단할 기회를 주시는 분. (학생 D)

잘 했다고 칭찬을 잘 해 주시고,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 (학생 G)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친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학생 F는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진로 파악도 도와주시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학생 E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을 학생을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학생에게 칭찬을 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시는 분을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을 알고 배려하시는 선생님을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꼽은 것이다.

#### **다. 이해 못한다는 것**

학생들이 표현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일방적인 선생님, 인색한 선생님, 선입견/고정관념으로 판단하시는 선생님, 학생을 불신하는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더욱 많은 말을 하고 있다.

##### **1) 일방적인 선생님**

학생들은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관계가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주로 선생님 말만 하시는 일방적인 선생님을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보았다.

질문을 해도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이 응대하시고, 학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말도 막하시고. (학생 B)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선생님.

선생님 말만 하고 학생이 무엇을 하든 관심 두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선생님. (학생 C)

선생님의 할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학생은 의사표현 할 기회가 없음.

나는 때리는 선생님 아니 때리는 것은 괜찮아요. 납득할 수 없는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와는 정반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반찬을 남김없이 먹게 한다거나, 머리를 꼭 짧게 깎아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이요. 머리가 길면 나쁜 짓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긴 것 뿐이잖아요. 근데 짧게 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 A)

지금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강요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하면 심한 말도 막하시고, 화풀이하듯이 수업하시는 선생님요. (학생 D)

수업시간에 설명/풀기/채점/확인을 반복하면서 일찍 풀이한 학생은 방치되고 남은 시간 떠들면 야단 맞고, 늦게 까지 못 푸는 학생은 못한다고 혼나고. (학생 C)

우리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학생 G)

학생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아니면 특정 아이들 이야기만 들으시고 우리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신다. (학생 F)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이해받는다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생 A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의 강요가 매우 싫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생 D 역시 학생들에게 학교의 힘든 일이나 사건 등으로 화가 난 상태로 수업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화풀이하는 듯한 모

습을 보이는 교사가 가장 학생들과 멀리 느껴지는 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입장을 잘 알고 충분히 배려하는 선생님과 달리 자신이 정한 원칙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강요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학생들은 힘들게 견디고 있었다. 특히, 학교의 규칙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반론할 기회를 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강요하는 선생님, 수업시간에도 학생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은 통제되거나 방치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수업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질책과 꾸지람에 학생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학생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 2) 무시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무시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요. 선생님은 칭찬을 안 해 주세요.

칭찬 안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생 C)

저는 일단 선생님께서 저를 이해하시려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열정이 있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노력하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보면 아예 이해를 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 D)

내가 왜 무시당하는지 설명조차 해 주지 않고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의 선생님. (학생 A)

학생들은 학생을 무시하는 선생님, 교육자로서의 모습에 노력을 하지 않는 인색한 모습을 학생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들었다. 특히, 칭찬 받을 상황인데도 선생님은 칭찬을 안 해주시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하기 되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선생님, 학생의 소리에 귀기울이 않고 소통이 없이 어른으로서 학생에게 무시하며 대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내면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고, 학생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서 신뢰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본다.

### 3) 선입견/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선생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는 편견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들었다.

학생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학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 D)

질문을 해도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이 응대하시고 학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말도 막 하시고, 학생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학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 F)

선생님들은 저희를 성적순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아요.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은 '이새끼'라고 불러요. 이름은 최소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불리면서도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를 이해하려는게 아니라 물건 대하듯 하신다고 할까? (학생 H)

선생님의 의견으로 판단한다. (학생 A)

남자 선생님은 여자 아이들 이빠하세요. 남자애들은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자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 무시하세요.

남자 아이들도 잘 할 수 있는데 왜 여자들도 못하는 날라리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왜 여자들에게만 그러는지. (학생 C)

학생들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특히 성적, 성별의 차이에 따라 학생을 대하는 편견이 있는 모습을 학생들은 선생님의 불공정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특성에 따라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새끼'라는 호칭으로 불리거나, 물건 취급을 받거나 선생님의 편견에 의해 판단될 때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고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교육적 행위여야 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은 모습은 학생들에게 이해받기 어려우리라고 본다.

#### 4) 화를 드러내는 선생님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에게 일방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학생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학생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드러내는 선생님을 들었다.

어른 말만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선생님

영어 전담 선생님의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혼내시는 선생님...

학생의 말을 존중하기보다 선생님, 어른들의 의견을 더 믿는다. (학생 D)

정말 싫어요. 왜 우리에게 화풀이하는지.... 어떤 애가 경찰서에 학교 폭력 신고했다고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싫어요. 아예 우리를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거라서 애들도 다 싫어해요. (학생 A)

나는 때리는 선생님 아니 때리는 것은 관찮아요. 납득할 수 없는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와는 정반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반찬을 남김없이 먹게 한다거나, 머리를 꼭 짧게 깎아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이요. 머리가 길면 나쁜 짓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긴 것 뿐이잖아요. 근데 짧게 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 B)

학생의 입장이나 태도를 불신하여 어른이나 타인의 말을 더 신뢰하고 우선으로 판단하는 선생님, 자신의 입장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선생님을 학생들은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하였다. 나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나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기 보다는 옆 반 선생님, 전담 선생님의 말이 판단의 우선이 되어 화의 근원이 되고 자신의 입장에 거스르는 결과도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학생들은 불만이다. 그리고 특히, 본인들이 선생님의 화풀이 대상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인격적으로 건디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 **라.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

학생들은 학생 이해를 위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성적보다 학생 입장에서 소통 먼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대화일 것이다.

나의 생활을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겪는 갈등상황에서는 저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 (학생 A)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 (학생 B)

소통이 수월한 선생님, 말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선생님. (학생 C)

거의 인기 많은 선생님들 보면, 저희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일일이 답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자상하게 이해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좋아요. (학생 D)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실 때 공부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나 성적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보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 상태, 기분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게 대

화라고 하면 그런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오해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학생 E)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소통의 시간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학교가 크고 학생들도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생들과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에만 머물러 계시니까 학생들과 점점 동떨어지는 것 같다고나 할까 좀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F)

선생님들은 저희를 성적순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아요.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은 '이새끼'라고 불러요. 이름은 최소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불리면서도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를 이해하려는게 아니라 물건 대하듯 하신다고 할까? (학생 G)

이야기 잘 통하는 선생님, 특히 언니같은 오빠같은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 A)

초등학교 때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오랫동안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대면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학생과 대화하도록 한다거나,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 B)

학생들은 대화하고 싶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방법으로 선생님과 소통을 원하고 있다. 성적 등의 차이로 대접받기 보다는 자신이 남과 다름을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해받고 싶은 것이다. 학생 E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 상태, 기분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게 대화라고 하면 그런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오해인지 알게 될 것 같다고 한다.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하는 상황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 소통이 수월한 선생님, 자상하게 이해해 주

시는 선생님, 학생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양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화를 맞는 장애물이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학생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서로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포도 학생은 특히 그것이 학생 쪽에서 좀 강한 것 같으며, 대화와 이해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선생님들도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고정관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하면 '고지식하고, 무엇인가를 늘 훈계하려고 하며 보수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 선입견을 깨야하는데, 선생님들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 B)

특히 이해의 방향에서도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하는 것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이포도 학생은 주장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서로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불손하거나 선생님께 예의가 없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 역시 학생들이 서로 자중하고 선생님에 대해 존경을 갖추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선생님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학생 쪽에서 예의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껴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자신의 공부해온 환경, 우수한 성적, 성공적 인생에 대해 자랑하듯 훈계하는 말씀을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면, 자기 자랑에 그치게 되어 학생들과의 대화를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짱,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A)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대화를 하실 때 필요한 것을 판단보다 듣기 먼저/단정보다 상황 파악 먼저를 들었다.

무작정 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이해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니?', '너의 상태는 어땠니?' 하면서 학생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난 후에는 질책보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호응, 공감, 격려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흔내는 것 말고 학생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꾸중대신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 마. 학교급 비교

### 1) 교사에게 이해받는다는 것

학생들의 교사 이해에 대한 생각은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학생 A는 초등학생이고 학생 F는 고등학생이다.

학생A : 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대우는 아니더라도 저에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잘해준다는 게 어떤 거야?

학생A :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차별같은 걸 안하고 똑같이 대해주시고 그런거요.

학생 F : 지금 학교의 선생님으신데요, 나이가 젊으신 편이라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저희를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해요.. ....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

시고, 학생 입장에서 강요하지 않고 저희의 자율성을 존중하시면서 저희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세요.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로 파악도 도와주시구요.

초등학생인 학생 A은 선생님께서로부터 이해 받는다는 것을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차별같은 걸 안하고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초등학생은 감성적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고 잘 대해 주고 이야기를 받아 주시는 것을 이해받고 있는 느낌으로 여긴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은 자신의 자율성이 존중받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진로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을 이해의 측면으로 보았다.

## 2) 이해 받지 못한다는 것

선생님께서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례에 대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인 학생 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 A : 저희 말은 거의 안 듣고 선생님말만 하시고 저희 이야기는 막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연구자 : 그런 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봐.

학생 A : 저희가 영어실에서 막 혼나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는 거의 떠들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영어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거나 했냐고 막 그래서 우리 의견 거의 들어주지도 않고

연구자 : 음. 영어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너희 이야기는 안 듣고? 음. 기분이 어땠어?

학생 A : 억울했어요.

연구자 : 억울했어?

학생 A : 네

연구자 : 그럼 너네들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억울해요 이렇게 말 안해?

학생 A : 했는데요.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자꾸 의견을 듣지도 않고 넘어가 버려요.

학생 A : 나를 모른체 하고 소외되는 느낌

초등학생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특정 현상에 대하여 선생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알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어린이인 자기들 보다 어른인 선생님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학생에게는 일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억울해 하고 있다. 학생 A는 선생님께 이해받고 싶어서 자기 나름의 행동을 취해보기도 한다.

연구자 : 그럼 선생님께 잘 보이고 이해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거 있어?

학생 A : 공부를 열심히 해 봤어요.. 칭찬받고 싶어서요.

연구자 :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봤어?

학생 A : 네.

연구자 : 그럼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 주셔?

학생 A : 그다지 칭찬도 안 해 주시고...

연구자 : 칭찬도 안 해 주셔? 그럼 기분이 어때?

학생 A : 네. 안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나.

선생님께 이해받고 싶은 의지로 행한 노력이 선생님께 이해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학생 A는 노력할 필요가 있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에게는 교사의 칭찬과 같은 보상과 인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학생 C : 질문을 해도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이 응대하시고, 학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말도 막하시고, 학생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학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 D : 지금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강요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하면 심한 말도 막하시고

학생 E : 저는 일단 선생님께서 저를 이해하시려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열정이 있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노력하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보면 아예 이해를 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막말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시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며 열정이 부족한 것을 들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지 않고 교사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초등학생이 교사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고등학생은 성숙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의사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들고 있다.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는 것 자체를 이해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고등학생은 좀 더 성숙한 존재로서 이해되고 싶어한다는 데서 두 학교급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 3) 학생 이해를 이해 필요한 것

교사가 학생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인 학생 A의 이야기이다.

학생 A :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 A는 교사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남과 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학생 B :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저희를 잘 이해하고, 놀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았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이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학생 E : 초등학교는 꿈꾸는 단계, 중학교는 계획하는 단계, 고등학교는 실천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단계에 맞추어 선생님도 변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온화하고 허용적인 선생님이 중학교까지는 괜찮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좀 엄격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F : 거의 인기 많은 선생님들 보면, 저희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일일이 답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자상하게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이 좋아요.

고등학생은 자신들의 학교 생활의 목적을 인생을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의 역할이 자신들의 준비를 위해 많이 알려주고 그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자상하게 안내하고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싶어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 더 성숙된 인격체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B와 학생 E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교사도 학교 급에 따라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바. 논의 및 시사점

선생님들 보면 티가 나요. 학생들과 관계가 좋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이나 하시는 일에 협조적이면 선생님 표정이 편안해 보이세요. 별로 힘을 안들이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표정이 행복해보여요.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는 애들하고 관계가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선생님 표정에 열정이 없어요. 가르치시려는 의지도 없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면학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게 관계가 좋아졌다는 표시 같아요.

교육이 일어나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적 활동의 출발일 것이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은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이해받고 있다고 판단할까? 질문에 답한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해받는다라는 것은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하는 것, 학생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모습,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 선입견/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선생님, 화를 드러내는 선생님을 들고 있다. 학생은 대화하며 소통하고 싶으나, 선생님은 일방적인 상황,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으나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인정받고 기회를 얻고 싶으나, 고정관념, 편견으로 판단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로 이해하는 상황은 분위기도 좋고, 면학분위기도 갖추어지는 것 같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진심으로 대화로 소통하고 싶어 한다. 고정관념을 깨고, 신뢰심을 가지고 소통하길 원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해'라는 키워드로 대화의 코드를 찾고, 대화의 기법을 익히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고 연구하고 익히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피교육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의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피교육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의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화와 소통, 상호작용, 인간에 대한 이해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급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대답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교사가 자신들의 존재를 인지해 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차별 없이 자신을 대해 주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초등학생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감성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이해해 주고, 자신들이 할 일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프로그램에서 같은 주제로 접근하더라도 이해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학생이 교사에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존중받고 이해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안

1. 방향
2. 설계
3. 연수 프로그램



## V.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안

### 1. 방향

#### 가. 기본 전제

교사와 학생간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문화의 이해 방향

최근 학교 이해의 방향이 학교 자체에서 학교 문화의 이해로 접근하듯이, 학생의 이해 역시 학생 주변 문화의 이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발달이론(1989)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간 성장에 있어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한 개인을 이해하고 있다. 학교라는 장소에서의 학생의 이해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학교의 생활공간(life space)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② 학생 경험의 총체적 이해 방향

학교에서의 학생의 생활공간과 그 환경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경험의 축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총체는 이후 학교생활뿐 아니라 학교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겪는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의 총체는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구성원간 이해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③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방향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겪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대인간 역할로부터 시작되고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기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즉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해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 상호간 관계 형성으로 발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학교생활 속에서의 학생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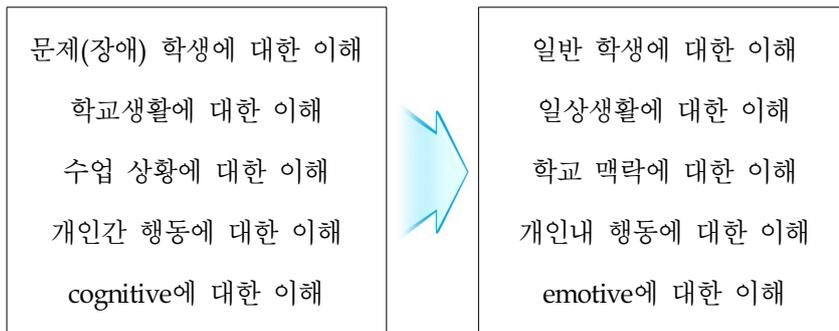
### ④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방향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만남을 통한 상호간 이해와 관계 증진은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은 학생의 주변 문화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교사의 학생 이해는 학생 자체의 이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문화의 이해로 그 폭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학생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이해하고 문제 학생을 교정하는데 있어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교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Epstein & Sanders, 2000).

특히 이러한 학생 이해의 기본 방향은 교사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기본 교육과정의 방향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이면서도 학교의 지역적 및 공간적 풍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 나. 기본 방향

기존의 학생 이해에 대한 접근은 문제 학생이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중심이었으며,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 생활이나 수업 상황에서의 수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학생 이해의 접근이었으며, 대인간 관계(인간관계)에서의 행동 이해와 갈등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 행동의 이해와 발달이나 심리 특성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생 이해의 접근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보다 포괄적이고 일상적 맥락의 인간학적 이해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림 V-1] 학생 이해의 패러다임의 변화

따라서 학생 이해의 접근은 문제(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에서 일반 학생에 대한 이해의 관점으로, 학교 안팎에 대한 이해와 학교 맥락적 접근이 요구되며, 개인간 관계뿐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적 특성의 이해와 학생 행동과 특성에 대한 감성적 접근의 이해가 필요하다.

## 2.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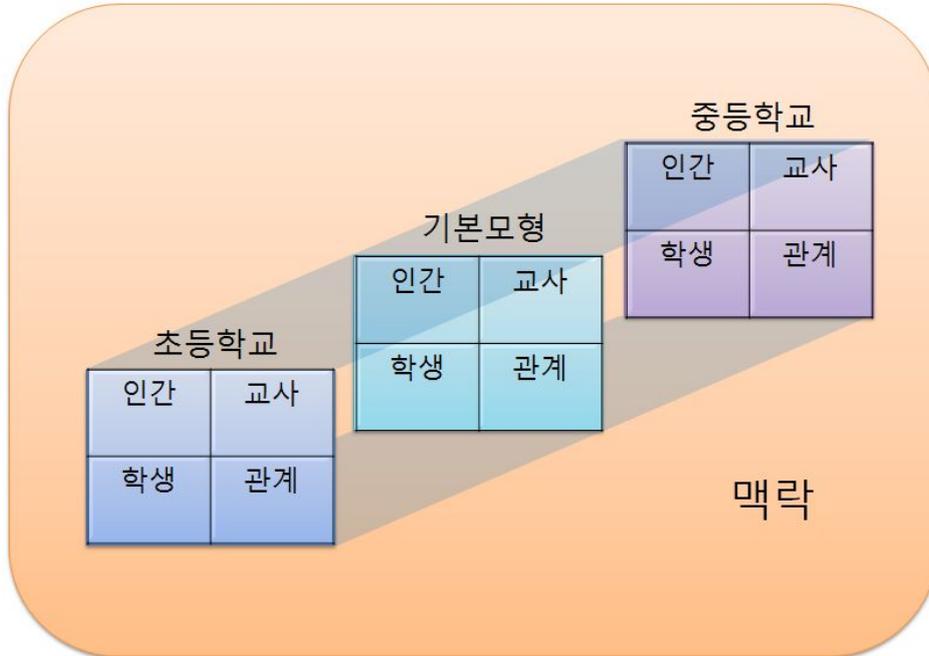
### 가. 접근 모형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기본 접근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인간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학적 이해와 교사 문화와 학생 문화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 그리고 동시적 상호작용 하의 관계 이해를 기본으로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V-2] 교사의 학생 이해의 접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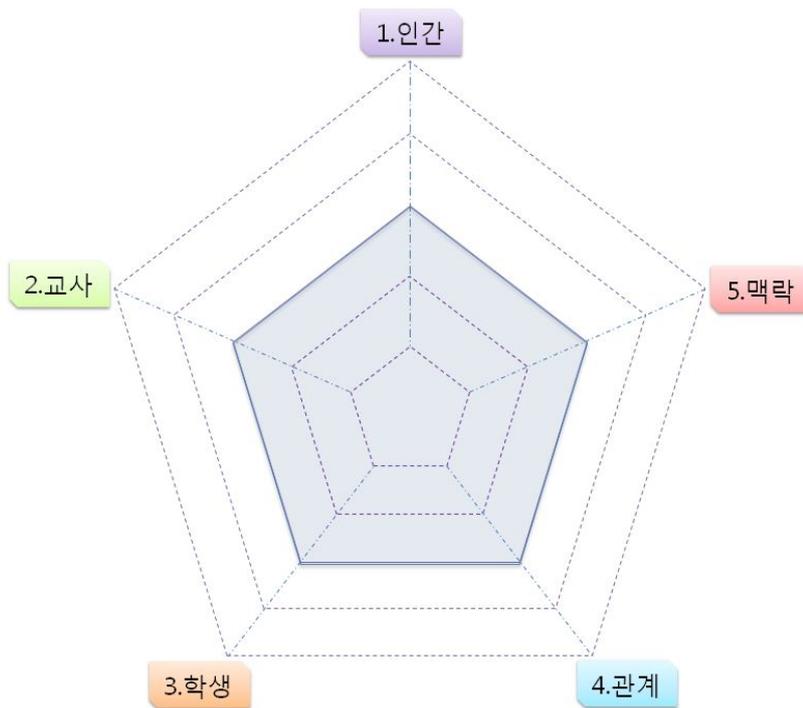
그림과 같이, 교사의 학생 이해의 접근은 인간이해, 교사이해, 학생 이해, 관계 이해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교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교 맥락 하에서의 교사의 학생 이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간 이해가 증진되고 그러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학교 맥락에서의 교사의 학생 이해의 접근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3] 학교급별 맥락 하에서의 학생 이해 모형**

그림과 같이 인간 이해, 교사 이해, 학생 이해, 관계 이해의 기본 모형에서 초등학교 맥락과 중등학교 맥락의 학생 이해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접근과 중등학교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접근은 차별화되어 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등과 같은 지역별 맥락 혹은 학교규모별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 이해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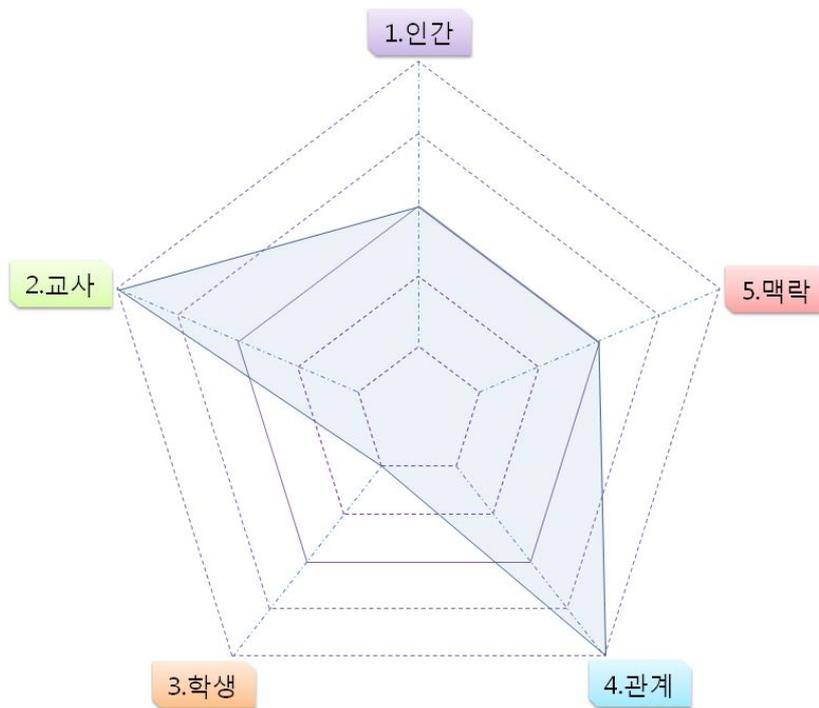
다음 [그림 V-4]는 학생이해와 관련한 5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구성된 연수의 기본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인간, 교사, 학생, 관계, 맥락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이해를 추구하는 학생이해교육의 기본형태가 된다.



**[그림 V-4]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기본 모형**

위 그림은 각 요소별 3차시로 총 15차시 1학점으로 편성된 기본 모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수 여건에 따라 각 요소가 균형있게 동등한 6차시로 편성된 총 30차시의 2학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V-5]는 이러한 기본 모형에서 특정 요소를 강화하여 변형시킨 모형이다. 교사의 개인 성향, 학교급, 환경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배합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학생이해교육모형으로 교사 개개인의 연수 효과를 배가시키는 형태가 된다.



**[그림 V-5]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응용 모형**

위 그림은 교사와 관계 요인을 중점에 둔 모형으로 학생보다는 교사자신의 요소와 관계 측면의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형이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가감하여 연수를 편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나. 운영 모형

① 적용대상 :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가능하다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교육 관련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② 수업시간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 수업형식 : 개별 활동보다는 가능하다면 그룹(모둠) 활동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④ 수업방식 : 일제식 강의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발표식 수업을 활용하는 등, 가능하다면 학습자 주도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⑤ 수업매체 : 스마트 기기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웹사이트 활용할 수 있다.

⑥ 수업소재 :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이해뿐 아니라 교사 자신에 대한 자기연찬(반성)의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되,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한다.

⑦ 수업모형 : 다양한 수업모형을 적용하되, 특히 role-play 학습, 가치갈등 수업, 탐구공동체 수업, 주제중심 수업 등의 모형을 활용한다.

### 3. 연수 프로그램

#### 가. 개요

##### 1) 목적

이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실붕괴, 학교 폭력, 따돌림 등 오늘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학생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의 학생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2) 목표

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이해’의 관계적·교육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둘째, 인간, 교사, 학생(학부모 포함), 관계, 맥락 등 ‘학생 이해’에 관련된 요소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 이해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알아보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한 알맞은 극복방안을 실천 수 있다.

##### 3) 대상

이 연수는 초중등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되 각 대상에 따라 적절한 연수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하여 맞춤형 연수로 실시하게 된다. 학생 이해 관련 요소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철학적·심리학적·사회적 이해 등의 인간 요소와 학교 문화, 학교의 시공간적 위치, 시대적·장소적 배경 등의 맥락

요소는 공통 요소로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사 요소는 학교 급에 따라서 교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교사 요소에는 학교급별 교사 문화, 교직 문화, 리더십, 자기 치유, 마음 관리 등 교사 관련한 내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 요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발달 특성, 심리 상태, 행동 양식, 또래 문화, 놀이, 사고방식,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수 대상에 따라서 알맞은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용하도록 한다.

#### 4) 성격(4H4C)

- Holistic 학교 중심 연수

이 연수는 수업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교 맥락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기존의 연수가 수업과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의 내용을 주로 다뤘다면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배경으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고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 Humanitic 감성적인 연수

이 연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 학생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취하여 이성과 객관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언어적 상호작용 외에 비언어적 상호작용, 감정의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 Helping 지원적인 연수

이 연수는 교육적 관계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학생과 그런 학생을 방치하고 포기하는 교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을 지원하여 진정한 사제지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 연수를 통해 교사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다.

◦ Healing 치유의 연수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인해 교육의 장은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이 연수는 교사의 상처입고 닫힌 마음을 치유하고 학생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과 마음 관리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자아로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

◦ Case 사례중심의 연수

이 연수는 기존의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처방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정한 행동 사례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돕는다. 어떤 욕구가 학생의 관찰된 행동의 기저에 작용하였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욕구가 드러나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어떻게 학생의 심리와 고민, 언행, 행위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 Comprehensive 종합적 연수

이 연수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심리, 문제 사례 등 단편적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와 접근을 달리하여 인간, 교사, 학생, 관계, 맥락의 다섯 가지 요소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생으로만 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연수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 Contextual 맥락적 연수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은 맥락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이해 역시 학교 문화와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 교사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학교문화와 학교급, 시공간적 배경 등의 맥락 상에서 이해할 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서 교사가 학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연수에서는 학생 이해와 관련한 요소들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적 접근을 취하였다.

▫ Communicative 관계·소통적인 연수

만남에서 시작되는 관계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특성이다. 이 연수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인간학에 기반하여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성립하고 나아가 학교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게 한다.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의 의미를 알아보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수평적, 양방향적, 인화 지향적, 비형식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법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소통을 추구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감정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소통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 5) 차시 구성

이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2학점 30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이해의 다섯 가지 요소를 대영역으로 하고 인간이해에 관한 내용을 6차시, 교사이해에 관한 내용을 6차시, 학생 이해에 관한 내용을 8차시, 관계이해에 관한 내용을 8차시, 맥락이해에 관한 내용을 2차시로 하는 총 30차시 분량의 내용을 구성하여 예시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V-1>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차시 구성**

영역	예시주제	시간배분
I 인간이해 (2시간×3주제)	1. 인간과 인간관계	2시간
	2. 인간행동의 이해	2시간
	3. 인간 행동과 마음 변화의 메카니즘	2시간
II 교사이해 (2시간×3주제)	1. 마음과 마음 치유 원리 및 치유와 돌봄 모델 이해	2시간
	2. 시대변화와 교사 코칭리더십	2시간
	3.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 자기 바라보기	2시간
III 학생 이해 (2시간×4주제)	1.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2시간
	2. 또래 관계란 무엇인가	2시간
	3. 부모의 양육 태도 이해하기	2시간
	4. 학생들의 문제행동 이해하기	2시간
IV 관계이해 (2시간×4주제)	1. 교사를 위한 비폭력 대화	2시간
	2. 교사 - 학생 간 의사소통 방식	2시간
	3. 학생, 학부모와의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지름길	2시간
	4. 감성코칭	2시간
V 맥락이해 (2시간×1주제)	1.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	2시간
계		30시간

## **나. 프로그램 내용**

### **1) 인간이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하나의 독립체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발달해 가며, 어떤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결과는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긴밀하게 관계하며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 심리학적 이해, 사회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학생 이해의 토대를 위한 내용을 정리한다.

### **가) 인간이해의 교육내용**

인간 이해 부분의 교육내용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 심리학적 이해, 사회학적 이해이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 부분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다루며, 인간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부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나)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인간 이해 교육내용

기존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설정, 코칭, 생활지도와 갈등해결, 문제 행동 지도 방법에 집중한 반면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와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는 소홀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담에 대한 내용도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의사소통기술과 함께 기법적으로 치우친 면이 많았다. 상담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지만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사와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의 만남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의 측면과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이해는 편향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철학·심리학·교육학 등 이해의 기반이 되는 근원에서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연수를 통해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상담이나 생활지도 연수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연수 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위 요소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 심리학적 이해, 사회학적 이해를 토대로 한다.

다)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

<표 V-2>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주제명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강의 목표	첫째,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철학 전공자, 인간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강의 가능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www.acaphilo.or.kr/xe/lecture">http://www.acaphilo.or.kr/xe/lecture</a>		
참고문헌	강신주(2011),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강신주(2010). 철학대철학. 그린비. 알랭 드 보통. 철학의 위안. 불안한 존재들을 위하여. 정명진 옮김(2012). 청미래. 서용선(2012). 혁신교육, 존듀이에게 묻다. 살림터.		
관련단체	철학아카데미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p><b>[강의 개요]</b></p> <p>인간으로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 존재들에 대한 이해를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학생의 행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정 행동에 대해 처방적 이해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성적, 환경적 특성에 대해 철학으로 그것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한다. 학생들과 관계에서 위안과 행복을 구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교사에게 철학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교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적용방안을 알게 한다.</p>			

<표 V-2>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철학적 탐색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와, 너의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학생과 교사의 차이, 학생들 간의 차이와 존엄성을 이해하게 한다.

② 삶을 위한 철학적 성찰

교사들의 성장과정의 환경과 고통, 기타 경험들이 교사의 인격과 존재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삶의 한 영역으로서의 환경적 요인을 성찰한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의 삶에서 고통의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해와 소통의 존재로 남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라는 타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강의는 전체 강의와 개별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과정의 아픔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아픔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

③ 나(교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교사로서 역할을 행한 교사의 과거, 현재의 교육적 행위를 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 교사의 과거, 현재에 대해 반성적 성찰하기
- 교사로서 미래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철학적 관점을 토대로 저널쓰기

강의는 전체 강의와 조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하고 조별 토론활동으로는 교사의 과거 이야기, 각 교사의 학생과의 특정 사례 이야기와 반성적 성찰하기, 그리고 교사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 다시 처방해보기, 현재의 자신의 모습 성찰하기, 미래의 나의 모습 설계하기 등의 활동을 철학적 관점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철학적 이해의 중요성, 학교교육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통해 결론을 맺는다.

<표 V-3>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주제명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강의 목표	첫째, 학생의 행동 특성을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처방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자신의 행동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다.		
준비물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심리학 전공자, 청소년 심리학자, 소아심리학자, 심리학과 인간행동에 대한 강의 가능자,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조너선 코졸(2007). 젊은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김명신 옮김 (2008). 문예출판사. 김윤정(2011). 알기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매년(2002).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정광순외 공역 (2012). 학지사. Eggen, P외 공저(2006). 교육심리학. 신중호외역(2007). 학지사.		
관련단체	심리상담센터 들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 경험		
<p><b>[강의 개요]</b></p> <p>이 강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다. 첫째, 학생에 대한 이해 측면이다.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한다. 즉, 개인차, 서로 다를 수 있음, 환경과 개인의 발달, 성장과의 관계 등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정 사례를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해석해 보는 활동을 한다. 둘째, 교사 측면에 대한 접근이다. 교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환경,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나의 과거, 현재의 모습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영향을 평가한다.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교사로서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교사라는 자신의 환경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작용했는지 반성적 성찰을 한 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설계하는 활동을 한다.</p>			

<표 V-3>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① 학생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학생 행동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그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생태 체계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서 인간을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을 중심으로 개인을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는 해석학적 설명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해석학적으로 심리적 이론에 의해 해석하도록 강의한다.

② 교사인 나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교실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어린이의 가치와 존재, 특성을 탐색하며, 교사는 어떤 태도로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나의 트라우마, 나의 심리적 상태, 나의 지금의 교사로서의 신념과 학생을 대하는 모습은 과거의 나와 어떤 연속선상에서의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역할극이나 조별 치유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반성적 저널쓰기

교사인 나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과거, 현재를 연속선에서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사로서의 나의 신념, 심리적 상태, 학생에 대한 행동 등에 대한 반성적 저널쓰기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다. 그리고 교사로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때 미래를 설계하는 글에는 신념의 변화, 미래의 교사로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발표 기회를 통해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한다.

**<표 V-4>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주제명	인간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강의 목표	<p>첫째, 인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p> <p>둘째, 학생의 행동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처방할 수 있다.</p>		
준비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소요시간	2시간
강사	교육사회학자, 청소년 상담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happy.eduniversity.net">http://happy.eduniversity.net</a>		
참고문헌	<p>김현수.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희망의 심리학. 에듀니티.</p> <p>Saxe, G.N.의 공저(2007). 아동, 청소년 의기 상담. 김동일역(2011). 학지사.</p> <p>Rice, F. P. (2008). 청소년 심리학 제 12판. 정영숙외 공역(2009). 시그마 프레스.</p> <p>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p>		
관련단체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 경험		
<p><b>[강의 개요]</b></p> <p>학생들의 행동은 가정, 사회, 학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 교육현상, 사회현상을 보는 접근 방법을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학생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학생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맥락 속의 학생 이해의 접근을 통해 학생의 자아개념, 자존감, 정체성, 그리고 사회성 발달 측면과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p>			

<표 V-4> 인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① 인간, 교육현상,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는 그가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의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인간, 교육현상, 사회현상에 대해 기능이론, 갈등 이론, 해석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이해의 차이를 알게 한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특정 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학생 문제를 이해하고 처방하는데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한다. 특히, 조별 활동에서 사례 적용과정을 통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했을 때 서로의 해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본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② 문화와 교육

이 강의에서는 문화의 개념,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 문화의 유형 중 학생 문화, 또래 문화, 가족 문화, 학교 문화, 학급 문화 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화의 다양성과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을 둘러싼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가 학생의 인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로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문화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고 학생의 문화 존중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아개념, 정체성, 사회성 이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서 학생을 민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자세를 탐색한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교사와 학교의 권위와 권력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지금 현재의 교사인 자신과 학교의 환경이 학생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례 (공지영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를 통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한 인간의 성장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그리고 주인공 현수가 되는 역할극을 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를 학생의 사회적 환경의 측면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강의는 전체 강의와 조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전체 강의를 통해 이론을 이해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사례들을 이론에 적용해 보고 역할을 바꾸어 반성적 성찰하기를 한다.

## 2) 교사 이해

교사는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교사 문화는 어떠한가?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학생 이해의 주체로서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이해하기에 앞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력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을 이해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내 안의 선입견과 편견, 문화적 억압 등을 살피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수에서 교사이해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교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기', '나의 치유와 성장', '나의 리더십' 등이 포함된다.

### 가) 교사 이해의 교육내용

학교라는 직장에서 교사들의 문화는 어떠한지를 통해 다른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나를 알아보기 위해 MBTI 성격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 유형을 살피고 진정한 나에 대해 다가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나의 치유와 성장에서는 어른이지만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자기 감정을 EFT로 표현하고 밑바닥에 뿌리내리고 있는 감정을 살펴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서 치유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 나의 리더십에서는 리더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한다.

#### **나)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교사 이해 교육내용**

교원 연수에서 교사이해는 결국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설(원격)교육 연수원에서는 명상으로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얻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 연수에서는 학생 이해를 위한 역량을 기른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교사에 대한 이해가 학생 이해의 하위 요소로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 교사 집단에 대한 이해, 나의 경험과 그에서 비롯되는 편견, 리더십과 관련된 연수 내용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

**<표 V-5>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주제명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		
강의 목표	첫째, MBTI 성격검사의 유래와 검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검사를 실시하고 자신의 선호경향에 대해 이해한다.		
준비물	MBTI 검사지	소요시간	2시간
강사	MBTI 전문자격증 소지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s://www.mbti.co.kr">https://www.mbti.co.kr</a>		
참고 문헌	조성환 저. MBTI 내 성격은 내가 디자인한다. 부글북스.		
관련단체	한국MBTI연구소		
학습집단	개인, 전체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검사 실시 ③ 발표		
<p><b>[강의 개요]</b></p> <p>교사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학생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나와는 다른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p> <p>MBTI 검사는 성격유형검사로서 이 강의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자신은 물론 학생들의 성격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진단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선호경향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스스로의 성격을 진단하고 파악해보는 기회를 갖는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MBTI 검사의 유해</p> <p>MBTI 검사가 개발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검사의 이론적 배경이 된 칼 융의 성격심리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MBTI 검사명칭의 설명을 추가한다.</p> <p>② MBTI 검사 전 오리엔테이션</p> <p>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교사)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검사 시 유의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성격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호경향성을 알아보는데 의미를 두도록 강조한다.</p>			



<표 V-5>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에서 계속

[강의 내용]		
<b>신호지표</b>	<b>외향형(Extraversion)</b>	<b>내향형(Introversion)</b>
<b>설명</b>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b>대표적 표현</b>	자기외부에 주의집중 외부활동과 적극성 정열적, 활동적 말로 표현 경험한 다음에 이해 쉽게 알려짐	자기내부에 주의집중 내부활동과 집중력 조용하고 신중 글로 표현 이해한 다음에 경험 서서히 알려짐
<b>신호지표</b>	<b>감각형(Sensing)</b>	<b>직관형(iNtuition)</b>
<b>설명</b>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 철저히 일처리한다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한다
<b>대표적 표현</b>	지금, 현재에 초점 실제의 경험 정확, 철저한 일처리 사실적 사건묘사 나무를 보려는 경향 가꾸고 추수함	미래 가능성에 초점 아이디어 신속비약적인 일처리 비유적, 암시적 묘사 숲을 보려는 경향 씨뿌림

<표 V-5>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에서 계속

[강의 내용]		
<b>선호지표</b>	<b>사고형(Thinking)</b>	<b>감정형(Feeling)</b>
<b>설명</b>	진실과 사실에 주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람과 관계에 주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b>대표적 표현</b>	진실, 사실에 주관심 원리와 원칙 논거, 분석적 맞다, 틀리다 규범, 기준중시 지적 논평	사람, 관계에 주관심 의미와 영향 상황적, 포괄적 좋다, 나쁘다 나에게 주는 의미 중시 우호적 협조
<b>선호지표</b>	<b>판단형(Judging)</b>	<b>인식형(Perceiving)</b>
<b>설명</b>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다	목적과 방향은 변화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b>대표적 표현</b>	정리 정돈과 계획 의지적 추진 신속한 결론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로 수용 유유자적한 과정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

<표 V-6>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주제명	‘나(self)’의 치유와 성장		
강의 목표	첫째, 내면아이의 개념과 치유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내면아이 치유과정에 대한 실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내면아이 치유과정 동영상	소요시간	2시간
강사	내면아이치료 전문가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s://www.familykorea.org">https://www.familykorea.org</a>		
참고문헌	존 브래드쇼 저,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학지사		
관련단체	한국가정상담센터		
학습집단	전체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치유실습		
<p><b>[강의 개요]</b></p> <p>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린 시절의 각 발달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했던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의존적이며 발전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적인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품은 채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이로서 당연히 경험하고 받아보았어야 할 신뢰와 안전한 환경,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 걸만 성장한 성인 즉, '성인아이'(Adult Child)로 살아간다.</p> <p>교사는 이러한 상처 입은 내면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여 이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면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 자신의 내면아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존중받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내면아이에 대한 개념의 이해</p> <p>내면아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를 위해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아이를 찾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p>			

<표 V-6>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에서 계속

② 내면아이의 중요성

자신의 받아들여지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역시, 선생님께 존중받고 수용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내면아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③ 내면아이 치유의 과정 거치기

내면아이 치유의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게 된다. 각 단계를 거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관시켜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이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는다.

④ 용서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기

내면아이의 발견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내면아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비록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이를 학교장면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케 한다.

[강의 내용]

Bradshaw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 인한 것이며, 만약 우리가 그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인 악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났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나서 성인이 된다면, 그 화나 있고 상처 입은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이는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표 V-6>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에서 계속

내면아이 치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내안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경우 지금의 감정을 EFT로 정확히 한다. 현재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 현재의 감정의 뿌리인 밑바닥 감정을 알아본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이와 유사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뭘까? 되새긴다. 현재의 감정과 뿌리의 감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표면감정은 분노인데 뿌리감정(밑바닥감정)은 질투, 복수심인 경우도 있다. 밑바닥 감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3) 현재 감정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면 그 기억속의 어린 아이를 상상하면 된다. 상상속의 어린 아이와 현재의 내가 상상 속에서 만나면 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금의 감정을 물어보면 된다. 화가 너무 나 있는 상태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화가 났는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 속에서 물어보면 된다. 억울한 것, 화난 이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그 내면아이의 마음이 조금 풀리게 된다.

(4) 내면아이의 감정이 풀어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핍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결핍된 욕구를 잘 들어주고 욕구를 풀어주어야 한다.

(5) 이렇게 내면아이의 감정이 풀어지고 내면아이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내면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이다. 감정이 아직 남아있거나 내면아이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용서가 쉽게 되지 않다. 그래서 (3),(4) 과정을 충분히 해야 용서가 잘 이루어진다.

(6)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용서도 이해도 사실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7) 마지막으로 사랑의 단계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잘되기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단계이다.

<표 V-7>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주제명	‘나(교사)’의 리더십		
강의 목표	첫째, 교사리더십의 개념과 리더로서의 자질, 능력, 역량을 안다. 둘째, 사례를 통해 리더로서의 훌륭한 교사의 능력을 점검한다.		
준비물	교사리더십 관련 동영상	소요시간	2시간
강사	리더십 및 코칭 전문가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www.ktai.co.kr">http://www.ktai.co.kr</a>		
참고 문헌	앤 리버만 저. 황기우 역 : 교사리더십. 학지사		
관련 단체	한국TA연구소		
학습 집단	전체, 분임	장소	강의실
중심 활동	① 강의 ② 분임토의 ③ 발표		
<p><b>[강의 개요]</b></p> <p>교사는 훌륭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속도, 발달상황을 잘 파악(변화해가는 학생읽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유동되고 있다. 그 변화나 성장이 바람직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힘들다. 자기를 잘 아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가 타인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교사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으로 학생을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각종 인성능력 파악검사를 활용하여 "진단→교육지도→관리"의 Plan-Do-Check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교육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p> <p>이를 위해 리더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본다. 이를 통해 훌륭한 교사의 6가지 능력을 도출하고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학교장면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 발표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교사리더십 개념에 대한 이해 교사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리더십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다.</p>			

**<표 V-7>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에서 계속**

② 리더의 자질과 능력,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이해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교사 스스로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리더로서의 능력함양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③ 훌륭한 교사의 능력 점검

훌륭한 교사의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며 또한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한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더불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④ 사례를 통한 리더십 활용

학교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 점검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도록 한다. 분임별 논의 후에 각 분임별로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며 유의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강의 내용]**

리더는 확실한 자기인식, 자기책임, 자기지각의 자기통찰(insight)을 통한 자기이해, 타인이해와 플러스(궁극적, 적극적)의 자, 타동기부여로 자율행동화를 촉진, 잠재능력개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상담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리더는 대인관계와 인성이 밝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하며 인간문제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해서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 창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리더는 상대방의 변동이나 동태(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징조가 나타나는 것)를 평소 관심을 갖고 관찰, 발견하는(감지능력)과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예지능력). 리더는 지시적 교육이나 훈육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자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고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지시, 훈육, 충고, 설득 등이 가능하지만 상담방식에 의한 교류방식은 일반의 교육과 달라서 상대방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발견해서 자기 확립, 자율,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헬퍼(조력자역할과 촉진자역할)의 역할인 것이다.

<표 V-7>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에서 계속

리더의 역할 첫째는 상대에의 변화과정을 겪는 것이다.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통찰→자기발견→자율성→Total Freedom의 과정을 겪고, 리더의 역할 둘째는 상대의 신념강화: 안다(知-지식)→하고 싶다(精-감정)→할 수 있다(意-신념)→한다(行-행동화) 과정을 겪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더의 인간관계 능력은 ① 사람을 잘 보는 능력(관찰)→인간이해(Understanding) ② 사람을 잘 쓰는 능력(관리)→동기부여(Motivating) ③ 사람을 잘 기르는 능력(육성)→교육훈련(Training)의 능력이다. 이를 통한 훌륭한 교사의 6가지 조건(지도능력)은 다음과 같다.

- (1) 자아존중과 인격적 대우로 대해 주는 교사
- (2)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이해, 수용,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교사
- (3) 같이 있기가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게 배려해주는 교사
- (4) 사리판단이 정확하고 대인, 대물관계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교사
- (5) 논리정연하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잘 해주는 교사
- (6) 유효적절한 동기부여로 힘을 넣어 주는 교사

이 6가지 중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려보면 의사소통에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 1~3번까지는 인간심정이해, 상대방입장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최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EQ형의 관계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4~6번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잘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효율적인 의사전달에 유리한 IQ형의 관계유형이다. EQ형의 대화방식은 감성적인 대화, 느낌의 대화, 감정공유, 공감대형성에는 유리하지만 자기의사 표현에는 약하거나 우유부단해지기 쉬우므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거나 자신감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 리더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IQ형의 대화방식은 논리정연하고 컨트롤 면에 강성을 발휘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상대방의 비이성적인 감정 상태나 입장을 배려하는 데에 소홀해져 일방적인 의사전달, 상대를 설득하려드는 위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여유를 갖고 대화전반부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인간적인 스킨십에 유의한 상담대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자기방식대로 밀고 가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형식적으로 응답하게 된다.

**<표 V-7> 교사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에서 계속**

다음의 사례를 들려주고, 이 사례에 대한 분임별 토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발표하며 서로 공유한다.

사례) 나는 교사경력 15년차로 학교의 부장교사를 맡고 있다. 교직원 회의에 의견 중 하나로 “학교에서 부모님들의 청소를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해당 담임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느 한 담임선생님은 이러한 학교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부모님들의 청소를 계속 시행했다. 이런 경우 나(부장교사)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 3) 학생 이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의 문화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하나의 독립체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의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 성인이 자신이 교육받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학생을 바라보면 자칫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지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려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는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긴밀하게 관계하며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의 교사 이해와 요구’, ‘학생의 환경적 요소와 문화 이해’, ‘학생 문제 행동 이해하기’를 다룰 것이다.

#### 가) 학생 이해의 교육내용

학생 이해 부분의 교육내용은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의 교사 이해와 요구’, ‘학생의 환경적 요소와 문화 이해’, ‘학생 문제 행동 이해하기’이다. ‘학생은 누구인가?’ 부분에서는 학생이라는 존재, 위기의 학생들 이해, 학생 이해하기 내용을 다루고, ‘학생의 교사 이해와 요구’ 부분에서는 학생이 싫어하는 교사, 학생이 이해받는다느 느낌,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의 유형, 교사와 학생의 불일치 감정을 다룬다. 셋째, ‘학생의 환경적 요소와 문화이해’ 부분에서는 사회 변화와 학생 문화, 학생의 환경요소이해, 학생 문화의 이해, 학생의 문화와 심리적 영향을 다루며, ‘학생 문제 행동 이해하기’ 부분에서는 다양한 학생 문제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학생 문제행동에 대처 방법, 학생 문제 행동의 감정 코치법 등을 다룬다.

#### 나)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는 학생 이해 교육내용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학교 문화, 교실 문화 등의 맥락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과 맥락에 기반을 두고 마음의 치유, 성찰, 반성 등 교사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심리, 문화, 고민,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때 학생이해교육 연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학생 이해 관련 연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설정과 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기법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이해는 편향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교사에게 이해 받고 싶은 학생의 심리와 학생에 대한 인간적 이해,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 행동 특성에 이해를 통해 학생을 맥락적이며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상담이나 생활지도 연수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학생에 대한 이해를 연수 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위 요소로 학생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학생의 문화 이해, 행동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다룬다.

**다)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

**<표 V-8>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

주제명	지금 나의 학생들은?		
강의 목표	첫째,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로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위기의 학생들의 원인을 스트레스, 대화의 단절, 불행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학생 사례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아동 복지학자, 발달심리학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s://www.kyci.or.kr/index.asp">https://www.kyci.or.kr/index.asp</a>		
참고문헌	오은영(2012). 아이의 스트레스. 웅진리빙하우스. 토마스 고든(1989). 교사역할훈련과 훈육. 강재태외공역. 코리아.		
관련단체	한국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 경험		
<p><b>[강의 개요]</b></p> <p>첫째,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탐색한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특성과 학생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탐색한다. 둘째, 위기의 학생들을 주제로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지, 학생의 스트레스와 위기의 원인, 대화의 단절과 학생의 위기 등을 탐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반성적 성찰과 저널쓰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학생의 가상적 대면, 그리고 다시 쓰는 교단 일기 등을 통해 학생 이해의 지평을 넓히도록 한다.</p> <p>강의는 전체 강의와 조별토론, 개인 저널쓰기 활동으로 진행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학생이라는 존재 이해</p> <p>학생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철학적 이해와 관련하여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의 접근으로 탐색하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다른 환경, 다른 경험, 그리고 차이의 관점에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표 V-8>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에서 계속**

특히 초,중,고 수준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강의를 통해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더불어 학생은 일방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받을 존재임을 이해한다. 특히, 다르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해의 지평이 넓어짐을 이해한다. 조별 활동으로 각자의 사례를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같은 학생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위기의 학생들**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학생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스트레스, 대화의 단절, 불행 등의 키워드로 이해한다.

- 우리 학생들은 행복하냐?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그들을 불행하다고 여기게 하는가?

- 우리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 주변 환경과의 대화의 단절의 이유는 무엇이고, 대화의 단절이 학생에게 어떤 심리적 상태를 야기하는가?

- 학생들의 목소리가 없는 학생들의 세상이 있다?

위와 같은 주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복잡한 상황, 다양한 감정 반응, 정서의 불편함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의 목소리가 없는 성인 입장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학생의 행동에 대한 사려 깊은 관찰과 깊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에게 문제해결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는 사례발표와 이론적용, 평가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③ 사례중심의 반성적 성찰**

학생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교육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학생 입장에서 재탐색하고 사례중심의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 나의 학생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 학생 이해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재탐색

- 반성적 성찰하기

-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화

개별 활동 과정을 거친 후 조별 활동을 통해 각자 사례에 대한 평가와 재탐색 결과, 반성적 성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치유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표 V-9>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

주제명	학생의 교사 이해와 요구		
강의 목표	첫째, 학생이 교사에 대해 느끼는 이해의 정도와 느낌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불일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학생 사례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초, 중, 고 교사, 청소년 상담심리학자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토머스 고든(1979). 교사역할훈련. 김홍옥역(2003). 양철북. 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교육청(2013).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하임 G. 기너트(2003). 교사와 학생 사이. 양철북		
관련단체	충청북도 교육청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극		
<p><b>[강의 개요]</b></p> <p>이 강의에서는 먼저, 학생이 느끼는 교사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싫어하는 교사와 그 이유, 학생이 교사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의 상황과 유형,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의 유형에 대해서 탐색한다. 그리고 둘째, 교사와 학생의 불일치 감정의 이유와 갈등의 요인, 불일치 감정의 사례 등을 탐색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 방법의 설계, 긍정적 상호작용의 방법 설계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지는 감정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과거, 현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한다.</p> <p>강의는 전체 강의와 조별토론, 개인 저널쓰기 활동으로 진행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학생이 가지는 교사에 대한 생각</p> <p>학생이라는 존재가 성인인 교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교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한다.</p>			

**<표 V-9>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에서 계속**

- 학생이 싫어하는 교사와 교사의 유형, 그리고 사례
- 학생이 이해받는다느 느낌과 사례

학생이 선생님께서로부터 이해받는다느 느낌의 유형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평가 반성하도록 한다.

②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바라는 선생님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특성이 이해하며, 사례를 통해 공감하고 반성 평가하는 기회를 가진다. 전체 강의를 통해 연구 결과와 이론을 이해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별 토론 활동을 통해 찾고 반성하는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 학생들이 바라는 선생님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 학생이 이해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선생님이었는가?
- 나의 어떤 면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과거, 현재의 나의 외상, 감정적 상태는 어떠한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위와 같은 주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복잡한 상황, 다양한 감정 반응, 정서의 불편함 등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나의 감정 반응, 정서의 불편함도 동시에 성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문제는 학생의 문제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는 교사인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③ 교사와 학생의 불일치 감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교사와 학생간의 불일치 감정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 입장에서 재탐색하고 사례중심의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 갈등과 불일치 감정의 사례 중심의 반성적 성찰
- 관계 개선을 위한 창조적 문제해결 방법 설계
-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화

개별 활동 과정을 거친 후 조별 활동을 통해 각자 사례에 대한 평가와 재탐색 결과, 반성적 성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치유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표 V-10>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

주제명	학생의 자존감 높이기		
강의 목표	첫째, 학생들의 자존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의 자존감과 학생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자존감 높은 인물 사례 실패 속에서도 성공한 리더의 사례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심리학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www.counpia.com/">http://www.counpia.com/</a> <a href="http://www.kccp.kr/">http://www.kccp.kr/</a>		
참고문헌	정지은·김민태(2011). 아이의 자존감. 지식 체널. 하임 G. 기너트(2003). 교사와 학생 사이. 양철북		
관련단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극		
<p><b>[강의 개요]</b></p> <p>이 강의에서는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해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자존감의 조건을 알고 학생들과 관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셋째, 교사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평가하고 교사의 자존감의 수준이 학생의 자존감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한 후 교사의 자존감 형성도 중요함을 안다. 그리고 학생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환경으로서 교사 자신의 학생 지도 내용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학생의 자존감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p> <p>이야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자존감 형성에 장애가 되는 행동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p> <p>- 의존적인 학생</p>			

**<표 V-10>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에서 계속**

- 어리광이 심한 학생
- 엄마와의 관계가 서먹한 학생
-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칙도 용인하는 학생
- 소리지르며 억지 써서 자신을 표현하는 학생
- 쉽게 포기하는 학생
-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
- 참고 지는 것이 익숙한 학생

②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적용해 본다.

- 학생이 성장하는 만큼 교사도 성장해야 한다.
- 편안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 칭찬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해 주어라
- 편안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 감정은 수용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해라.
- 실패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 성공경험을 늘려 주어라.
- 아이의 장점을 찾아 주어라.
- 적극적인 그리고 적절한 대화 방법을 사용하라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라.

③ 교사의 자존감과 학생의 자존감과의 관계 이해

교사는 학생의 모델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괜찮은가?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교사로서의 교육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은 어떤지 체크해 본다.

**<표 V-10>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에서 계속**

-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지 않았나?
- 나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았나?
-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나?

만약 이 질문에서 어릴 때 나의 상처가 떠오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와 제대로 애착을 이루지 못한 채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교사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변하면 학생의 자존감도 변한다.

자존감이 높은 교사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학생을 대한다. 그리고 학생과의 갈등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며 해결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향상 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체크하고 반성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V-11>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

주제명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기		
강의 목표	<p>첫째, 학생의 문제행동 해결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p> <p>둘째,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셋째, 과거, 현재 나의 학생 문제해결 대처 방안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p>		
준비물	문제행동 유형별 사례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청소년 상담자, 청소년 정신과 의사, 교사교육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www.1388.or.kr/index.asp">http://www.1388.or.kr/index.asp</a> <a href="https://www.kyci.or.kr/index.asp">https://www.kyci.or.kr/index.asp</a>		
참고문헌	<p>김수정(2012).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대한민국 초등학생, 청어람 미디어.</p> <p>정지은·김민태(2011). 아이의 자존감. 지식채널.</p> <p>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교육청(2013).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p> <p>토머스 고든(1979). 교사역할훈련. 김홍옥역(2003). 양철북.</p>		
관련단체	헬프콜 청소년 전화 센터		
학습집단	전체, 조별 활동, 개별활동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강의, 토론, 역할극		
<p><b>[강의 개요]</b></p> <p>이 강의에서는 학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파악하기, 해결방안 탐색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 유형과 그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양한 문제 행동의 유형을 교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그 행동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토론한다. 둘째,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과거, 현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반성적 평가를 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문제행동의 원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찾고 문제에 대한 파악은 철학적, 심리학적, 학생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을 인지하도록 한다.</p> <p>강의는 전체 강의와 조별토론, 역할극하기, 개인 저널쓰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된다.</p>			

<표 V-11>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① 학생의 문제 행동과 대처방안

학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사의 문제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파악

먼저 학생 문제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해한다. 이 때 문제별 특성에 따른 분석보다는 학생 개인의 환경적 맥락과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려 깊게 관찰한 다음 문제의 원인과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대해 파악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해 본다.

- 구체적으로 학생이 보이는 행동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인가?
- 언제 문제행동을 일으키나?
- 문제행동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 문제행동을 보이기 전, 어떤 특정한 일이 있지는 않았나?
- 문제행동으로 가장 괴롭거나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
-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가족간의 불화, 교사와의 관계, 공부, 친구 관계 등 최근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은 없었나? 등

그리고 적극적 듣기, 수용의 대화, 학부모와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파악 활동 해 보기

2) 해결방안 찾기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기저로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가장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해결 방안을 설계한다. 이 때 학생 자신의 문제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처치의 대상은 학생, 학생의 사회적 맥락, 교사 자신, 학급의 분위기, 친구 관계 등이 될 수 있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해결 방안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학생의 감정 코치법
- 나 메시지 활용법

**<표 V-11> 학생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에서 계속**

- 역할놀이 활용법

★ 각자 교실에서 경험한 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를 발표하면서 문제 행동 사례별 해결방안을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한다.

3) 문제해결 실행하기

설계한 해결방안을 학생에게 세심하고 사례 깊게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 때 교사들은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해결 과정에서 효과를 증진하도록 한다.

-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12가지 대화법을 알고 자신을 평가하기
- 학생의 말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동해 보기
- 교사의 적극적 듣기와 소극적 듣기의 차이를 알고 듣기 훈련하기
- 사례를 통해 본 효과

4) 평가하기

학생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과정에 대해 반성적 평가의 기회를 갖는다.

교사는 평가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는 신념과 끈기가 필요함을 알아야 하며, 문제행동마다 다른 문제해결 방법이 있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②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 방법을 적용해 보고 과거, 현재 상황에서 학생 문제행동 해결을 위해 적용한 해결 방안들에 대해 반성적 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파악 활동에 대해 반성적 성찰
- 해결과정에서의 나(교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

개별 활동 과정을 거친 후 조별 활동을 통해 각자 사례에 대한 평가와 재탐색 결과, 반성적 성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치유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 4) 관계 이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독립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만남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성립되고 이것이 발전하며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학생과 학생간의 교우 관계, 교사와 교사의 직장동료관계, 학생과 교사간의 사제 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학생 이해의 다섯 가지 요소 중 한가지로 관계는 개념상 교사 요소와 학생 요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는 곧 이러한 관계맺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개념과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내용은 학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가) 관계 이해의 교육내용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은 다른 인간과 소통을 하고 감정을 교류하게 된다. 학생 이해를 위한 요소로서 관계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의사소통기술과 대화 기법, 비폭력 대화, 감정 코칭, 상담, 갈등해결 등의 내용이 관계이해의 교육내용에 해당된다.

##### 나)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는 관계 이해 교육내용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이해 관련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대화)기법, 감정코칭, 갈등해결 비폭력 대화를 들 수 있다. 의사소통(대화)기법은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한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감정코칭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다양한 실전 상황에서의 연습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과의 대화에서 기존과는 다른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히게 된다. 비폭력 대화기법은 마음 수련과도 연관을 지어 마음의 폭력성을 없애고 언어적으로도 비폭력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과 즐겁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단계를 하나씩 배워나가며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

**<표 V-12>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

주제명	대화(의사소통)기법 1(off-line)		
강의 목표	첫째, 대화의 기법에 대해 숙지한다. 둘째, 교실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다.		
준비물	대화의 기법 예시자료(음성, 동영상, 문자)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상담전문가		
참고 웹사이트	www.counselors.or.kr		
참고문헌	Clara E. Hill 저, 주은선 역, 상담의 기술, 학지사		
관련단체	한국상담학회		
학습집단	전체, 짝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대화 실습		
<p><b>[강의 개요]</b></p> <p>비단, 상담 장면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대화의 기법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는 교사로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말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반응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p> <p>따라서 교사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화의 기법을 익힘으로써 학생들과 더욱 친근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화의 기술을 살펴보고 또한 실습해봄으로써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대화의 기법 소개 신체적 주의기울이기, 심리적 주의기울이기, 명료화, 재진술, 반영 등의 대화의 기법에 대해 예를 통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화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p> <p>② 대화의 기법 실습 짝을 지어 '대화의 기법'에서 소개한 예를 하나씩 실습해봄으로써 대화의 기술을 하나하나 익힌다.</p>			

<표 V-12>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에서 계속

③ 자유로운 기법 실습

작을 짓고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학생 역할을 맡은 교사는 학교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고민을 토로한다. 교사 역할을 담당한 교사는 학생의 고민을 듣고 위에서 배운 다양한 대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이 때 다양한 대화의 기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강의 내용]

의사소통의 기법에는 신체적 · 심리적 주의기울이기, 명료화, 재진술, 반영 등의 대화의 기법들이 있다.

☞ 신체적 주의 기울이기

- ▷ 내담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Sit Squarely)/ ▷ 개방된 자세 유지(Open posture)
- ▷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유지(Lean toward the client)/ ▷ 시선의 접촉 유지(Maintain eye contact)/ ▷ 이완된 자세 유지(Relaxed)

☞ 심리적 주의 기울이기

- ▷ 간단한 반응과 개방적 질문의 형태로 나뉨
- “응”, “흐음”, “으응 그랬었구나!”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미소나 고개의 끄덕임 등
- ▷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자신과 심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노출과 탐색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상담효과를 높이는 역할

☞ 명료화

- ▷ 내담자의 모호한 진술 다음에 사용되는 질문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확인하며, 모호하거나 혼동되는 진술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
- ▷ 명료화를 하는 요령 : 내담자의 말을 반복하면서 “~라는 뜻이니?” “~라는 말이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표 V-12>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에서 계속**

☞ 재진술

어떤 상황, 사건, 사람, 생각을 기술하는 내담자의 진술 중에서 내용 부분을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기법

☞ 반영

내담자의 느낌이나 진술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상담기법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

☞ 요약

둘 이상의 언어적 표현들을 서로 묶어서 진술의 내용 부분을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재진술과 반영의 확대된 형태의 상담기법

☞ 직면

직면이란 내담자의 언어적 진술과 비언어적 진술, 또는 언어적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담자가 이러한 모순점을 진술하는 기법이다. 직면은 내담자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내담자의 자아 혹은 상황을 지각하는 다른 방법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한다.

☞ 해석

해석이란 특정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나 연관성 여부를 지적하는 것이다. 해석은 내담자의 암시적인 대화 내용과 행동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어 대안적인 관점으로부터 상이한 설명을 가지고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 정보제공

정보 제공이란 자료 또는 어떤 사실들에 대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보도 평가해 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제공은 내담자가 그동안 회피해 왔던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도록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질문

질문은 내담자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상담기법이다. 질문의 효용성은, 어떤 질문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질문의 형태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 이중 질문, 그리고 '왜' 로 시작되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표 V-12>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4)에서 계속

### 효율적인 질문방법

1. 가능한 한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2. 단일 질문, 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3.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4.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의 형태를 취한다.
5.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한다.
6. 일단 질문을 한 다음에는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서 내담자의 대답에 귀를 기울인다.

#### ☞ 자기개방

자기노출이라고도 알려진 자기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와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담자가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도록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관련된 상담자의 정보와 감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기개방은 대체로 재진술과 반영, 그리고 요약 등에 의해 촉진된다. 자기개방을 시의 적절하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관점들을 나누고 발견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 나-전달법

상담상담자의 감정을 밝히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로서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상담자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주고, 공격적인 행동 대신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

### 나-전달법 표현절차

1.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파악한다.
2. 상담자의 감정을 유발시킨 원인을 파악한다.
3.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원하는 바를 파악한다.
4. “너의 ~한 행동으로 인해 나는 ~한 (느낌)이 든다”는 형식으로 진술한다.
5.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제안, 요구, 주장하는 내용을 “나는 네가~하는 것이 좋더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표 V-13>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

주제명	대화(의사소통)기법 1(on-line)		
강의 목표	첫째, 온라인 대화의 장점을 이해한다. 둘째, 학생과 온라인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준비물	온라인 대화 예시자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요시간	2시간
강사	카페운영 교사		
참고 웹사이트	www.kakao.com/talk, www.facebook.com		
참고문헌	카톡, 페이스북 활용 메뉴얼		
관련단체	해당 사이트		
학습집단	전체, 짝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온라인 대화 실습		
<p><b>[강의 개요]</b></p> <p>온라인 상호작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많은 교사들이 현재 온라인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온라인 대화는 언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속성으로 인해 더욱 솔직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p> <p>최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페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자주 만남으로서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온라인 상호작용의 장점 온라인 상호작용이 갖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p> <p>② 온라인 상호작용의 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페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예를 통해 온라인 상호작용의 힘을 확인한다.</p> <p>③ 온라인 상호작용 방법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p>			

**<표 V-13>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4)에서 계속**

④ 온라인 상호작용 실습

작별로 2~3가지의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가상의 상황에서 역할을 정하고 짝과 대화를 연습하도록 한다. 충분한 연습이 되었으면 작별로 1가지 주제를 정하여 대화를 발표하도록 한다.

**[강의 내용]**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 획득, 메시지 교환 및 공유, 의미 창출을 위한 양 방향적/역동적/자기주도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온라인 의사소통 유형은 첫째,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불균형 상호작용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강의하는 것,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반응적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답변하는 것,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두 명의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것, 토론 활동에서 이전 메시지가 상대방의 다음 메시지와 연결되어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온라인 의사소통 도구로는 일대 일, 일대 다수의 의사 전달가능 이메일,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이며 아주 짧은 글을 이용하여 의사 전달,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이 용이한 쪽지, 다수 대 다수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긴 시간의 토론과 대화 가능한 카페나 홈페이지, 그리고 동시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간단하고 즉각적인 답변 교환이 용이하며 화상 전달도 가능한 채팅 등이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홈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 방법 생략-

<표 V-14>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

주제명	소통하는 사랑의 기술-감정코칭		
강의 목표	첫째, 감정코칭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교실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다.		
준비물	감정코칭 대화 예시자료(음성, 동영상, 문자)	소요시간	2시간
강사	감정코칭 전문가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cafe.naver.com/hecoaching/">http://cafe.naver.com/hecoaching/</a>		
참고문헌	최성애, 조벽 지. 최성애 조벽 교수의 청소년 감정코칭. 해냄		
관련단체	우리가 행복해지는 감정 코칭		
학습집단	전체, 짝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대화 실습		
<p><b>[강의 개요]</b></p> <p>말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7퍼센트. 93퍼센트는 눈빛, 억양, 말투, 태도 등으로 전달된다. 진정한 대화는 마음을 담고, 표정으로, 태도로, 온몸으로 소통해야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p> <p>이 강의에서는 교사 자신이 학생들과 관계를 망치는 대화의 습관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본다. 또한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습한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학생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대화법을 실제 실습해봄으로써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감정코칭의 개념 및 중요성 설명 감정코칭의 개념을 알려주고 소통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p> <p>② 학생들과 관계를 망치는 대화습관 점검 학생들과 관계를 망치는 대화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표 V-14>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에서 계속**

③ 학생에게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 익히기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에 대해 설명한 후 짝을 지어 이러한 대화법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경청하는 대화, 수용하는 대화, 그리고 학생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④ 상처받은 학생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익히기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대화법을 제시하고 짝을 지어 이러한 대화법을 실습한다. 목소리 톤을 낮추기, 인정해주기, 호감과 존중표현하기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실습을 통해 이러한 대화법을 익혀 학교 장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내용]**

학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대화의 습관을 익히기 위해 우선, 학생과 관계를 망치는 대화패턴을 점검해보고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과 상처받은 학생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을 익힌다.

**▶ 학생과 관계를 망치는 대화**

- 습관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해보자.

① 비난하는 대화 : 너는 왜 만날 그 모양이야? 예) 컴퓨터를 하는 학생

- 특정한 작은 일에 불만을 털어놓으면 ‘불평’이 되지만 상대방의 성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면 ‘비난’이 된다. 항상, 언제나, 늘 - 이런 말들 조심!

② 경멸하는 대화 : 경멸은 강한 독과 같다.

-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깊은 상처를 주는 말(그럼 그렇지, 짝이 노랗다. 어쭙~, 주제 파악이나 하셔, 동생만도 못하다, 꼴에 잘난 척은) 경멸의 표정(비웃는 표정, 눈알을 치뜨면서 굴리는 것)

- 경멸의 독은 길고 오래간다. 경멸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호감, 존중, 감사, 배려의 마음을 5배는 더 표현해야 겨우 풀린다.

<표 V-14>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에서 계속

③ 멀어지는 대화 : “너에게 물어본 거 아니거든”

- 무시하는 것, 판소리 하는 것(동문서답), 화제를 바꾸는 것, 대꾸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선생님께서 학생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 무시하는 말보다 더 나쁜 ‘담쌓기’ - 상대방을 유령취급, 강력한 무시행위이다. 학생의 욕구를 무시했을 때 학생은 존재감 자체가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④ 방어하는 대화 :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 문제가 있는 대화인 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자신을 걱정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말로만 위해주는 척한다고 느끼거나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양 자책하게 된다.

⑤ 단정짓는 말 : “네가 그랬지?” 예) 네가 또 동생 때렸지?, 학교 마치고 PC방에서 놀다왔지?...

- 단정짓는 말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과는 나눌 대화가 없다.

⑥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화 : “너 때문이야!”

- 학생에게는 원초적인 두 가지 감정이 있다 - 불안감(어른이 될 때까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예- 갖다 버린다, 경찰아저씨 잡아간다), 죄책감(학생은 나쁜 상황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중심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특성 때문이다. 예 - 너 때문이야.)

⑦ 명령하고 훈계하는 대화 : 예) 당장 그만 뒤, 빨리 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는 훈계의 대화

- 학생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미숙한 존재이므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르쳐야한다는 발상에서 나온다. 반성보다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 V-14>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4)에서 계속

▶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 법-사소한 차이가 마음의 문을 연다.

① 경청하는 대화 : “아 그렇구나”

-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누군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분이 풀릴 수 있다. 경청의 힘은 대단하다!

② 수용하는 대화 : “많이 힘들었겠구나”

- 어떠한 경우라도 수용이 먼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할 것.

- 예) 학원 안 가려는 학생 : 학원가기 싫은 모양이구나(수용)→혹시 무슨 일 있니? 안가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 할 것인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③ 학생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 예)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하게 표현.

- 속마음을 전혀 엉뚱한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이 한 말보다 학생의 기분을 살펴주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상처받은 학생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 상처받은 학생은 공격적이다 : 예) 친구의 상실로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린 우석이. 이것을 이해 못하는 엄마의 질책과 비난에 더욱 화와 짜증으로 분출되어도 무조건 “아니요”, “몰라요”, “싫어요!”

①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 크고 격한 목소리는 전투업을 마비시킨다. 파충류의 뇌로 피가 몰리면서 반응은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생존을 위한 두 가지, 도망가거나 공격의 형태로 반응하게 되어 대화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어투가 된다.

② 방어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한다. : “ 음, 엄마가 이번 일은 잘 모른 채 네 탓부터 했구나!”. 비난이 들어 올 때 맞받아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러면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③ 호감과 존중을 표현한다. : 예) 초5 찬호 :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기고 학교가기를 거부. 감정코칭 후 자신과 선생님의 장점 50가지를 적어보고 문제 해결.

• 일반적인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선 긍정대부정이 5:1정도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긍정을 먼저 보는, 호감과 존중의 문화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 V-15>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

주제명	교사를 위한 비폭력 대화		
강의 목표	첫째,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 방법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실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다.		
준비물	비폭력 대화 예시자료(음성, 동영상, 문자)	소요시간	2시간
강사	비폭력대화센터(CNVC)의 인증지도자		
참고 웹사이트	<a href="https://www.krnvc.org">https://www.krnvc.org</a>		
참고문헌	마셜 로젠버그 저. 비폭력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한국NVC센터		
관련단체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학습집단	전체, 짝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시나리오 작성 ③ 대화 실습		
<p><b>[강의 개요]</b></p> <p>학생들은 교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강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상처를 주지 않고 학생의 욕구를 살피며 수용과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p> <p>비폭력 대화는 대표적인 상호호혜적 의사소통 기술로서 이 강의를 통해 교사들은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 원리, 방법을 익히게 된다. 비폭력 대화를 익히기 위해 개념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적용 사례를 익히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절차에 따라서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을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를 시나리오로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짝이나 모둠별로 역할극 형식의 연습을 통해 실천감각을 체득하게 된다.</p>			
<p><b>[강의 방법 및 전략]</b></p> <p>① 비폭력 대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p> <p>비폭력 대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비폭력 대화의 등장 배경, 마셜 로젠버그의 사상, 비폭력 대화의 구성, 비폭력 대화의 흐름과 과정을 안내한다.</p>			

<표 V-15>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에서 계속

② 비폭력 대화의 예시 안내

먼저, 비폭력 대화가 사용되는 대화의 예시를 녹음 자료를 통해 들려준다. 다음으로 비폭력 대화가 사용되는 대화의 예시를 동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가 사용되는 대화의 대본을 읽어보도록 한다.

③ 비폭력 대화의 단계 익히기

비폭력 대화의 일반적 단계를 설명한다. 일반적 단계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예시 안내에서 받았던 대본을 단계별로 구분해본다. 다음으로 비폭력 대화의 단계별 예시를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화를 쓰고 짝과 말해보도록 한다.

④ 비폭력 대화 익히기

짝별로 2~3가지의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비폭력 대화의 단계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가상의 상황에서 역할을 정하고 짝과 대화를 연습하도록 한다. 충분한 연습이 되었으면 짝별로 1가지 주제를 정하여 대화를 발표하도록 한다.

**[강의 내용]**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가슴으로 교감하는 연민(compassion)이다” - 마셜 B. 로젠버그

인간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교사들은 학급에서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생각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짧은 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진심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말하는 게 안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또래들만의 세계에서 진심을 드러내게 된다. 학급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 원인은 이러한 잘못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심을 느끼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표 V-15> 관계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4/4)에서 계속

비폭력 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는 인간과 인간이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 기법이다. 비폭력대화의 목적은 질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욕구/필요와 상대의 욕구/필요가 동시에 만족되며, 서로 즐거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대화 모델이다(위키백과, 2012).

비폭력 대화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 자신의 욕구와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가 바라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는 대화 방법으로 관찰-느낌-욕구-부탁의 네 단계로 이뤄진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화 습관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비폭력적인 대화 절차를 익히는 연습을 통해 비폭력대화는 체화된다. 첫째, 관찰(observation) 단계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판단이 개입하면 듣는이에게는 비판이나 비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느낌(feeling) 단계는 관찰을 통해 떠오르는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생각이나 해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욕구(need) 단계는 관찰과 느낌을 통해 발생한 자신이나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를 살피는 것이다. 어떤 욕구에서 느낌이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다. 넷째, 요청(request)단계는 진정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표현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여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부탁한다.

<b>관찰(observation)</b>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평가'와 구별하기)
"내가	을 보거나, 들었을 때,"
<b>느낌(feeling)</b>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생각'과 구별하기)
"나는	느낀다."
<b>욕구/필요(need)</b>	느낌의 원인 ('수단/방법'과 구별하기)
"왜냐하면 나는	이 필요/ 중요/ 원하기 때문에"
<b>부탁(request)</b>	구체적, 긍정적, 의문형으로 하기('강요'와 구별하기)
- 연결 부탁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니? (생각하니?)"	
- 행동 부탁 "	을 해줄 수 있겠니?"

## 5) 맥락 이해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서 관계를 맺는다. 어른과 청소년(어린이)의 만남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학생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청소년이 학생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사회화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된다. 교사 입장에서도 독립된 성인이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의 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교사와 학교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떠한 현상과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상황과 배경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이해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학교 문화와 시간적·공간적 배경, 지역, 학교급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가) 맥락 이해의 교육내용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학교 문화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문화라는 것은 넓게 보면 사회 풍속과 문화의 하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 안목에서 문화의 개념과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시적인 문화의 접근에서 미시적으로는 단위 학교와 지역사회, 학급의 문화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맥락 이해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맥락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상황과 배경이 되기 때문에 문화 이외에도 학교급과 지역,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대한 고려도 맥락에 포함될 수 있다.

#### **나)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는 맥락 이해 교육내용**

학생 이해를 위한 맥락에서는 교육 환경과 패러다임, 학교 문화, 교육 공동체 등이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학생을 이해하기 곤란한 원인을 가져온 상황과 학급의 분위기, 구성원, 학교의 특정한 문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학부모 성향, 사회 전체의 교육 패러다임 등에 대해 이론적 접근과 사례 접근의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 사회의 풍토, 대중 매체와 문화, 유행, 학생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 학생들이 맥락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에 이해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다)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

<표 V-16>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

주제명	학교 맥락의 이해(교육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강의 목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학생 이해의 제 관점을 알 수 있다.		
준비물	사회 변화 및 청소년 관련 통계	소요시간	3시간
강사	미래학(사회변화) 및 청소년학과 관련 강사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강영배 역(2008). 현대 사회와 청소년. 서울: 박학사. 전희일(2011). 현대사회와 청소년. 서울: 양서원. 장원동 외(2008). 현대사회와 교육. 서울: 동문사.		
관련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a href="http://www.ncyok.or.kr">http://www.ncyok.or.kr</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 href="http://www.nypi.re.kr/">http://www.nypi.re.kr/</a>		
학습집단	전체, 그룹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사례 발표 ③ 그룹 토의		
<p><b>[강의 개요]</b></p> <p>21 세기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조직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조직도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학교조직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조직,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등에서 경직성을 보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학교 조직은 융통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학교 안팎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p> <p>이러한 점에서 본 차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사(가르침)와 학생(배움)의 현상을 이해하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의미를 살펴 본다.</p>			

<표 V-16>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1/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사회 변화와 현대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일반 강의와 사전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을 병행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 일반 강의 : 강의를 통해 주제 논의를 위한 사전 이해를 증진한다.
- 토의 : 연수자의 경험적 사례 발표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발표한다.

**[강의 내용]**

- 1) 현대 사회와 교육 환경의 변화
  - 현대 사회의 변화
  - 교육 환경에 따른 학생 이해의 관점 변화
  - 교육 패러다임의 이동과 학생 이해
  - 인간의 역동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이동
- 2) 사회 변화와 학생의 심리
  - 현대 사회의 학생 이해
  - 현대 사회에 사는 청소년의 모습
- 3) 현대 사회에서의 학교와 학교 밖 현상
  - 학교 안팎의 문화적 현상
  - 교사(가르침)와 학생(배움)의 현상 이해
  -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의미

<표 V-17>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

주제명	학교 맥락의 이해(학교 문화의 이해)		
강의 목표	학교 문화의 생태학적 맥락 하에 학생 이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생 이해를 위한 다양한 학교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준비물	학교문화(풍토) 및 학생 이해 관련 사례	소요시간	3시간
강사	학교문화(풍토) 및 교육생태학 관련 강사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p>강운정 외(2010). 교육의 생태학적 분석. 서울: 강현출판사.                  이정선 외(2007). 초등학교문화 이해. 서울: 양서원.                  오영재(2009). 한국의 중등학교 문화와 교육정책. 서울: 문음사.                  박효정(2003).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p>		
관련단체	초등학교문화연구소: <a href="http://www.esc.re.kr/index.htm">http://www.esc.re.kr/index.htm</a>		
학습집단	전체, 그룹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사례 발표 ③ 그룹 토의		
<p><b>[강의 개요]</b></p> <p>학생 이해를 위해 학교 조직과 문화적 맥락의 의의(성격)을 이해하고, 학교 문화의 시·공간적 맥락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학생 이해의 특성을 살펴보고, 학교의 문화적 풍토의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학생 이해의 종합적 안목을 갖도록 한다. 또한 학생 이해 관련 변인에 대한 학교 풍토의 영향을 학교 관련 변인, 교사 관련 변인, 그리고 또래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알아봄으로써, 학생 이해를 위한 학교문화의 과제를 탐색한다.</p>			

<표 V-17>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2/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학교조직과 학교 문화(풍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일반 강의와 사전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을 병행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 일반 강의 : 강의를 통해 주제 논의를 위한 사전 이해를 증진한다.
- 토의 : 연수자의 경험적 사례 발표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발표한다.

**[강의 내용]**

- 1) 학교 조직과 문화적 맥락의 의미
  - 학교 조직의 문화의 기본 이해
  - 학교 문화적 맥락의 성격
- 2) 학교 문화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학생 이해
  - 학교의 시·공간적 맥락의 이해(지역별, 학교급별 등)
  - 학생 이해의 생태학적 접근의 중요성
  - 학교 생태학적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특성
- 3) 학생 이해와 학교 풍토
  - 학교 문화적 풍토와 학생 이해
  - 학교 문화적 풍토의 다양한 요소
- 4) 학생 이해 관련 변인에 대한 학교 풍토의 영향
  - 학생 이해에 대한 학교 관련 변인
  - 학생 이해에 대한 교사 관련 변인
  - 학생 이해에 대한 또래 관련 변인
  - 학생 이해를 위한 학교문화의 과제와 전망

<표 V-18>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

주제명	학교 맥락의 이해(학교 공동체적 맥락과 학생 이해)		
강의 목표	학교 공동체 형성의 요건과 가치를 알고, 학교 공동체에서의 교육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학교 공동체 성공 사례	소요시간	3시간
강사	(학교)교육 공동체 및 교육관련자 역할 관계 관련 강사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주철안 역(2004). 학교 공동체 만들기. 서울: 에듀케어. 한대동 외(2009).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 서울: 학지사. 신흥민 역(2003). 교사와 학생 사이. 서울: 양철북. 강승규(2008).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사. 서울: 동문사.		
관련단체			
학습집단	전체, 그룹	장소	강의실
중심활동	① 강의 ② 사례 발표 ③ 그룹 토의		
<p><b>[강의 개요]</b></p> <p>학교 공동체에서 교육관련자들과 학생 관계 설정의 의미와 학교 공동체적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학교 공동체의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적 가치와 의의를 탐색한다. 또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과 학교 공동체의 문화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관련자들과의 공동체적 의식을 교사와 학부모 상호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상호간 공동체적 의식과 역할 관계를 중심으로 학생 이해를 증진시킨다.</p>			

<표 V-18> 맥락 이해 관련 교육내용 예시(3/3)에서 계속

**[강의 방법 및 전략]**

학교 공동체와 학교에서의 교육관련자들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일반 강의와 사전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을 병행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 일반 강의 : 강의를 통해 주제 논의를 위한 사전 이해를 증진한다.
- 토의 : 연수자의 경험적 사례 발표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발표한다.

**[강의 내용]**

- 1) 학교 공동체적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중요성
  - 학교 공동체에서 교육관련자들과 학생 관계 설정의 의미
  - 학교 맥락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
  - 공동체적 맥락에서의 학생 이해의 중요성
- 2) 학교 공동체의 의미와 성격
  - 학교 조직과 학교 공동체의 의미
  -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
  - 학교공동체적 가치와 의의 탐색
- 3)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요건
  -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 학생 이해를 위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 4) 교육관련자들과의 공동체적 의식과 학생이해
  - 교사와 학부모 상호간의 공동체적 의식
  - 교사와 학생 상호간 공동체적 의식
  - 학교 공동체에서의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역할

## **다. 프로그램 운영**

이 연수 프로그램은 방학 중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학점(30차시)으로 되었다. 연수 인원은 30명 한 반으로 편성하고 시도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된다. 다섯 개의 영역별 주제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강의, 상황극, 역할 훈련, 성격 검사 등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연수를 마칠 때에는 연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점, 학생 이해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작성하여 미래의 나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연수를 정리하게 된다.

## **라. 평가 방법**

### **1)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이므로 학생 이해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갖고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가 많을 것이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하여 연수 프로그램이 기대하고 있던 만큼에 부응하였는지, 학생 이해에 유익한 도움이 되었는지, 자신의 학생 이해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2) 연수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수 프로그램이 정말 학생을 이해하는데 효과를 보이는데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 V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학생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두 당사자의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에서 오늘날 학교와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에 대한 몇 가지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학생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학생 이해는 복합적이고 맥락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조화된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장에서는 학생 이해의 개념과 의의, 학생 이해 관련 요소,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 학생 이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해 문헌과 자료를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는 다양하게 풀이되는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두 당사자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서 대인간 자체로서의 목적성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 양방향적 관계, 인화지향적 관계, 비형식적 관계, 적극적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순차적 관계가 아닌 상호동시적 관계로 볼 수 있지만 교육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기에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상호 신뢰의 관계가 된다.

한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개인의 속성, 편견, 조직, 전달의 문제와 물리적 장애요인, 심리적 장애요인이 있다. 바람직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이해의 개념과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의의를 바탕으로 학생 이해와 관련된 인간, 교사, 학생, 관계, 맥락 등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인간 요소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기반이 해당하고 교사 요소에는 마음 관리, 리더십, 인간관계, 자기 치유 등이 포함된다. 학생 요소는 학생의 심리, 발달, 고민, 또래 문화, 학부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 요소는 갈등해결, 감성코칭, 상담기법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맥락 요소는 다른 네 가지 요인이 드러나는 맥락적 요소로서 학교 문화, 시공간적 배경 등이 해당된다.

학생 이해와 관련한 연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과 사설(원격)교육연수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었고 사설(원격)교육연수원에서 3배 많은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2학점(30차시)의 연수가 많았고 관계, 교사, 학생 요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인간과 맥락에 대한 내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서 학생 이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식문서인 생활기록부는 교과 내외적 사항, 특기사항, 출결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서구에서는 최근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III장에서는 양적 접근으로 교사의 학생 이해 인식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정보, 학생 이해의 현황, 학생과의 소통,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 등 네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26문항의 질문지를 구안하였다. 전국의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445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 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t$  검증,  $F$  검증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생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은 근무지역에 따라, 학생 이해 정도와 노력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 경력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친밀도, 학생 이해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대화시간은 30분 미만의 응답이 53.3%를 보였고 전체 응답교사의 87.9%가 하루 평균 15명 이하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이해 저해 요인으로는 업무(56.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도 학생 이해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0%). 교사 대상 설문조사의 시사점으로는 대부분이 교사들이 학생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학생 이해 저해 요인으로 자신의 성장경험이 많이 작용했으므로 교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 정서적 교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V장에서는 질적 접근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이해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대상 면담은 전직 교장, 현직 교사, 경력 교사, 신규 교사 등 교직발달단계에서 다양한 수준, 초중등 학교급별로 다양한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학생 이해에 대해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 이해가 어려운 원인으로 교사들은 시공간의 제약성, 교사의 경험 부족,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 등을 말하였고 교사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의 책무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의사소통기법, 대화의 기법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 대상 면담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학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적용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학생들의 인지·심리·정서·행동 등의 발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학생 대상 면담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다양한 학생을 선정하여 이해받는다는 것과 교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심도있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이해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일방적, 권위적, 무시, 편견, 선입견, 화 등의 이유로 교사와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대화로 소통하며 신뢰로운 상호관계를 희망하고 있었다. 시사점으로는 '이해'의 코드로 대화의 기법,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이해, 공감하기, 정서적 교류 등에 대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V장에서는 이해와 관계에 대한 문헌 고찰,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 조사, 교사와 학생 심층 면담의 결과에 터하여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는 학교 문화의 이해, 학생 경험의 총체적 이해,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대한 체계적 이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은 문제 학

생에 대한 이해보다 일반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수업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 학교 맥락에 대한 이해, 개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보다 개인내 행동에 대한 이해, cognitive에 대한 이해보다 emotive에 대한 이해로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이해의 접근 모형은 인간학, 교사문화, 학생문화, 동시적 상호작용 등의 종합적 측면에서 학교문화와 지역, 학교급, 규모 등의 맥락에 따른 이해를 추구하여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학교 맥락에서의 교사의 학생 이해 접근은 인간, 교사, 학생, 관계의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맥락에 따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는 접근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상, 시간, 형식, 수업 방식, 매체, 소재, 모형 등을 달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 이해는 교육을 받는 대상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학생과 교사의 만남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위계보다는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교육적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언

### 가. 프로그램의 적용 및 피드백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이해와 관련한 개념적 검토와 관련 요인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터하여 연구는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학교급별 연수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을 통해 시간, 내용 타당성, 방법,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평가와 수정보완을 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교원들이 학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학생과 교사의 상호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 **나. 학생 이해 기록 양식**

학생 이해의 수단적 측면에서 공식 문서로 활용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기록 양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지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항목으로 학생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사들은 개인별 수첩이나 메모를 통해 학생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남겨 지도에 참고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학생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이러한 기록을 공식화하거나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학생에게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생활 보호, 인권 문제 등으로 최근에는 기록을 축소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의 원인으로서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양식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당사자와 사회 구성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12). 문화. Retrieved 2013.01.13, from <http://dic.daum.net>
- 고전(2006). 2005년 교원 양성 정책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2(1), 163-194.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서울: 관련부처 합동.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1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급당 학생수. Retrieved 2013.01.07, from <http://cesi.kedi.re.kr/index.jsp>
- 김병희(1985). 교육적 개념으로서의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이준. (2002). 디지털 시대의 학교 문화와 교육정보화. **교육정보방송연구**, 8(3), 101-1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영천(1998). 잠재적 교육과정이 밝혀진 후: 교사와 행정가에게 주는 시사점. **교육인류학연구**, 1(2), 44-99.
- 김정원(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06.
- 류방란, 이해영. (2002).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2-5.
- 박성호(2012). 도농간 중학생 학력격차 감소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1), 77-108.
- 박소영(2011). 중등학교 교사 문화 비교 분석: 2001년과 2011년 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201-222.
- 서근원(2000). 초등학교 학생문화 이해를 위한 시론. **초등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 59-118.

성기선, 박철휘, 양길석, 류방란(2009).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복지 방안 연구: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11.

오영재(2009). 학교문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2009학년도 공모 교장 리더십 과정 직무 연수 교재. 103-11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오영재(2010). 한국 초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성과 교육 행정적 함의. **한국교육논단**, 9(2), 111-136.

이정선(2000). 한국의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 121-165.

이혜영, 류방란. (2001).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인성교육 비전(시안) -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임진영(2005a). 맥락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교호적 상호작용의 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18(2), 1-22.

임진영(2005b). 초등학교생활의 변화와 과제. **한국초등교육학회 2005년도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61-164.

정원식(2005). **인간과 교육**. 교육과학사.

조용환(1995). 학교 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사와 학생, 그들은 행복한가? **교육학연구**, 33(4), 77-91.

조용환(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8-2.

한규석, 최상진. (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국제한국학회 (1998).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홍재호(1994). 교사문화와 효과적인 학교의 관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재호(1999). 학교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교육연구. 15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황기우(1992).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해석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deian, A. G. (1980). *Organizations: theory and analysis*. Hinsdale: The Dryden Press.
- Buber, M. (1955). *Between man and man*(Trans. Smith, R.G.). Boston: Bacon Press.
- Buber, M. (1958). *I and thou*(2nd ed.)(Trans. Smith, R.G.). N.Y.: Charles Scribner's Son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9-251. Greenwich, CT: JAI.
- Epstein, J. L., & Sanders, M. G. (2000). Connecting home, school, and community. In (ed.) Hallinan, M. T. (2000).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Plenum Publishers
- Hills, P. J. (1979). *Teaching and learning as a communication process*. London: Croom Helm.
- Marinyn, F. & Lynne, C. (2007). *Interactions: collaboration skills for school professionals*. N.Y. : Pearson Education, Inc.
- Patti, J. (2006). Addressing social-emotional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In Elias, M. J., & Arnold, H. (Ed.). *The educator's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CA: Corwin Press.
- Jackson, P. W. (1968). *Life in classrooms*.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eiler, W. J., & Beall, M. L. (2007). *Communication: making connections*(7th ed.). N.Y. : Pearson Education, Inc.
- Soltis, J. F. (1978). *An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educational concepts*(2nd. ed.). Reading, Mass.: Addison-Wesely Publishing Co.





※(14-21) 다음은 학생과의 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서술 또는 선택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생활지도
- ② 학습지도
- ③ 진로지도
- ④ 기타( )

15.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자신    ② 학생    ③ 학교 문화    ④ 사회
- ⑤ 기타( )

16.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은 학생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 중 교사와 관련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 ① 가정에서의 성장 경험(예: 착한 아이, 촉망받던 아이로 자라온 경험, 가정의 양육 분위기 등)
- ② 학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험(예: 착한 학생, 모범생으로 학창시절을 지낸 경험, 학교에서의 기대, 학교에서의 상처 등)
- ③ 교직에서의 경험(예: 문제학생과 갈등, 학생에 대한 선입견 등)
- ④ 업무 부담(스트레스, 시간 및 여유 부족 등)
- ⑤ 기타( )

17.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생을 떠올려볼 때, 그 요인 또는 속성은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 학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① 성별(여교사로서 남학생, 남교사로서 여학생)
- ② 성격(내향적, 외향적 학생 등)
- ③ 가정환경과 종교(특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 등)
- ④ 학습부진과 장애(신체적·인지적·심리적 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
- ⑤ 기타( )

18.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19. (중학교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20.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1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③ 고등학교 3학년

21. 학생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학교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 ① 권위적 분위기(어른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등)  
② 전통적 사제관(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생각 등)  
③ 입시 위주의 교육(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교과 중심 학교 생활 등)  
④ 교직 풍토(기선제압, 학생에게 정주면 상처받는다라는 선배교사의 충고 등)  
⑤ 기타( )

※(22-27) 다음은 학생 이해 관련 연수의 필요 및 요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서술 또는 선택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2.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에는 학생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특정 연령대 학생의 경향성(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  
② 일반적인 학생의 일상 생활 및 특성에 대한 기술  
③ 문제학생의 사례별 특징 이해  
④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 및 집단 심리  
⑤ 기타( )

23.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 ①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상당·대화법)  
② 정서적 교류 방법(공감, 유대, 친해지기, 래포 형성 방법)  
③ 학생 관찰 기록 방법  
④ 학생과 학생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⑤ 학생과 소통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사례 공유  
⑥ 학생 이해를 위한 직접적 실습과 학생 멘토링 경험  
⑦ 기타( )

24. 학생 이해를 위해 교사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② 교사의 내면 성장 프로그램  
③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④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⑤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심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연구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mail:

## [부록 2]

학생 평가 결과 보고 양식에 제시된 평가 영역 국제 비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국가	구분	평가영역
일본	초등	학습상황, 행동상황, 특별활동
	전기중등	학습상황, 특별활동
	후기중등	학습상황
영국	초등	교과영역
	전기중등	교과영역
	후기중등	교과영역
미국	초등	교과영역, 태도영역
	중등	교과영역
프랑스	초등	교과영역, 태도영역
	전기중등	교과영역, 태도영역
	후기중등	교과영역
독일	초등	1학년: 학교생활태도, 학습태도, 학습능력발달상황 2학년: 학교생활태도, 학습태도, 학습능력발달상황, 국어, 수학 3학년: 교과 성적 평가, 일반적 평가(학교 생활에서의 학습태도, 사회적 태도 등) 4학년: 3학년과 동일
	전기중등	중간평가서: 교과 성적 학년말 성적표: 교과 성적, 작업공동체의 참여
	후기중등	중간평가서: 교과 성적 학년말 성적표: 교과성적, 작업공동체의 참여
중국	초등	사상품덕평가 학과성적평가(지식 능력, 태도 습관, 흥미·특기)
	전기중등	파악이 어려움
	후기중등	파악이 어려움
한국	초등	교과학습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재량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
	전기중등	교과성적
	후기중등	교과성적

- 미국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한 공립 초등학교와 한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임.
- 프랑스는 파리 제 20구 소재 공립 초등학교, 생 뵉쥐베리 중학교, 본 발레리 고등학교의 경우임.
- 독일의 초등교육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소재 Silcher 초등학교의 경우이며, 중등과정은 Kelper 김나지움의 경우임.
- 중국의 초등교육은 북경사범대학 실험 소학교, 전기 중등교육은 북경사중 초급중학교의 경우임.
- 한국의 초등교육은 서울 D초등학교, 전기 중등교육은 서울의 S중학교, 후기 중등교육은 서울의 M여고의 경우임.

### [부록 3]

미국 시카고 소재 공립 초등학교의 성적표 양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교과 영역]

교육과정	성취도				
	1	2	3	4	기말
Reporting Period:					
국어 읽기					
외국어(_____) 읽기					
*학년 수준					
언어 - 국어 또는 외국어(_____)					
Reporting Period:					
듣기					
말하기					
쓰기					
검수/편집(문법, 사용법, 철자)					
글씨쓰기					
수학					
과학					
사회과학					
예술					
음악					
건강 및 안전교육					
체육교육					
도서학(Library science)					
<input type="checkbox"/> Bilingual Program에 등록 <input type="checkbox"/> ESL <input type="checkbox"/> World/dual language					
Reporting Period:	1	2	3	4	기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태도 영역]

<b>사회적 영역</b>	1	2	3	4
자기 통제를 연습한다				
책임을 수용한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린다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을 따른다				
집단내에서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학교와 타인의 소유물을 귀하게 여긴다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을 한다				
<b>학업 영역</b>				
예습을 한다				
경청한다				
지시를 따른다				
독립적으로 일한다/ 집단으로 일한다				
학급활동에 참여한다				
자료를 귀하게 다룬다				
주어진 학급 일을 완성한다				
숙제를 한다				
노력: 읽기 (A, B, C, D, F)				
노력: 수학 (A, B, C, D, F)				
다른 교과에 대한 노력				
독서량				
<b>건강 및 안전 영역</b>	1	2	3	4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인다				
교통 및 안전 규칙을 지킨다				

교사 의견 및 면담 요청							
COMMENTS							
Reporting Period 1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Reporting Period 2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Reporting Period 3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Reporting Period 4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학부모 / 보호자 의견 및 면담 요청							
COMMENTS							
Reporting Period 1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Reporting Period 2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Reporting Period 3	<input type="checkbox"/> 면담요청						
면담일자 <input type="checkbox"/> Reporting Period 1 _____ <input type="checkbox"/> Reporting Period 2 _____ <input type="checkbox"/> Reporting Period 3 _____ <input type="checkbox"/> Reporting Period 4 _____							
<input type="checkbox"/> 여기에 표시가 된 학생은 반드시 여름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NEXT ASSIGNMENT</th> </tr>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학년</td> <td style="width: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td> <td></td> </tr> </table>	NEXT ASSIGNMENT		학년		반	
NEXT ASSIGNMENT							
학년							
반							



## 교원 연수를 위한 학생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발행일 : 2013년 1월 31일

발행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집필(저자) 한국교원대 최지연 외 3인

주 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연락처 : 043-290-2000

---